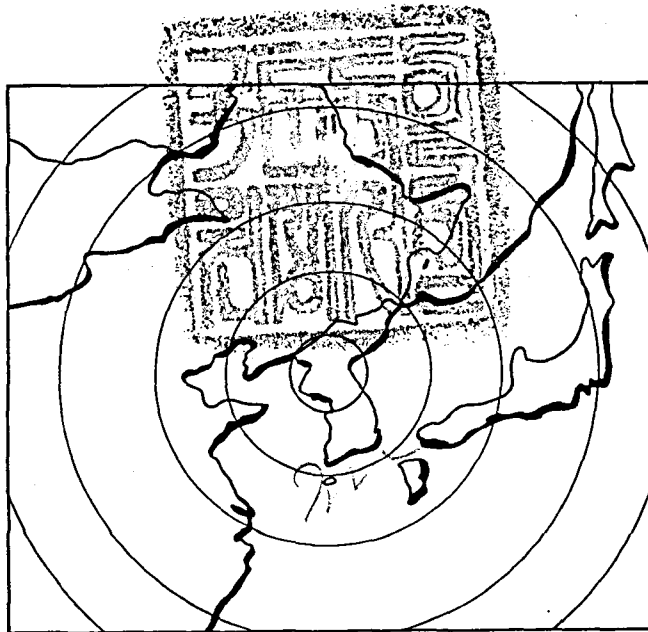


國統調 89-12-174

東北亞 經濟圈과

南北韓 經濟協力에 관한 研究

1989. 12



國土統一院
(調查研究室)

1. 이 책자에 收錄된 內容은 國土統一院이 統一政策 開發을 目的으로 外部 專門家에게 委囑한 研究結果로서, 當院의 公式的 見解를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이 책자는 우리나라의 統一 및 南北韓 關係에 관심 있는 有關機關에 研究資料로 提供되는 것입니다.

總 目 次

第 1 部 東北亞 經濟圈과 域內 多者間 經濟協力

(安 錫 教)

I. 問題의 提起	7
II. 東北亞 國家들과 蘇聯의 經濟交流	9
III. 中國의 開放戰略과 東北亞 經濟協力	15
IV. 東北亞 經濟圈 構想	24
Ⓟ. 東北亞 經濟圈과 南北韓間의 經濟交流	40
VI. 結論.....	50

第 2 部 南北韓間의 經濟交流와 協力 推進의 基本方向

(辛 昇 哲)

I. 序：共產圈 社會主義의 進路	55
II. 北韓의 經濟政策方向	63
III. 轉換期的 過渡期の 『디램마』	74
IV. 政策轉換의 有限性과 段階	86
V. 政策轉換의 二重性과 特性	96
VI. 東西間 協力の 本質과 段階	108
VII. 經濟的 接近方式과 그 段階	119
VIII. 南北間 交流와 協力の 可能性	130
IX. 結：交流와 協力 推進方案	144

〈第 1 部〉

東北亞 經濟圈斗 域内 多者間 經濟協力

研 究 責 任
安 錫 教
(漢陽大 教授)

目 次

I. 問題의 提起	7
II. 東北亞 國家들과 蘇聯의 經濟交流	9
III. 中國의 開放戰略과 東北亞經濟協力	15
1. 開放戰略의 理論的 背景	15
2. 沿海地區 經濟發展戰略의 主要 內容	19
3. 沿海地區 經濟發展戰略의 背景	21
IV. 東北亞 經濟圈 構想	24
1. 東北亞經濟圈에 관한 中國의 構想	27
2. 中國의 經濟圈 構想과 韓一中經濟 關係	32
V. 東北亞 經濟圈과 南北韓間의 經濟交流	40
VI. 結 論	50

I. 問題의 提起

근년에 나타나고 있는 國際政治的, 國際經濟的 일련의 변화들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우리가 일찌기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이다. 특히 1985년 3월 蘇聯共產黨書記長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등장한 이후 國際政治는 과거의 冷戰的 對決構造에서 和解의 構造로 전환되고 있다.

소련은 이른바 “新政治的 思考 (new political thinking)” 또는 “새로운 데탕트 (new detente)” 라는 政治哲學을 표방하고 이를 外交政策에 적용함으로써 美國과 중거리핵미사일의 폐기에 관한 INF協約을 체결한 이후 재래식 무기의 감축, 단거리미사일 제거, 나토와 바르샤바의 해체 및 亞·太沿岸國平和會議 등을 제거하고 있다. 西歐 및 美國 역시 이에 대한 대응정책을 마련하는데 부심하고 있으며 韓國 역시 北方政策을 통하여 새로운 國際政治秩序의 태동과정에서 韓半島의 긴장완화를 위한 일련의 정책을 투입하고 있다.

國際經濟的 측면에서 볼 때 世界經濟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의 특징을 노정하고 있다. 그 하나는 經濟의 블록化 추세이며 그 다른 하나는 亞太地域의 經濟적 영향과 비중이 강화되고 있는 현상이다. 歐州共同市場은 1992年까지 명실상부한 단일시장, 단일경제권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미국과 카나다는 이미 自由貿易協定 (Free Trade Agreement) 을 체결한 바 있다. 소련은 1986년 고르바초프의 블라디보스토크 연설에서 아시아국가임을 선언한 이후 지난 해 크라스노야르스크 연설에서 亞太國家들과의 經

濟協力意思를 재천명하고 나섰다. 對外政策에 있어서 이른바 “ 새로운 政治的 思考 ” 내지는 “ 脫理念化 ” 를 출발배경으로 하는 소련의 亞太地域에 대한 經濟的 進出意思是 이른바 “ 經濟的 安保 (economic security) ” 의 개념에 근거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東亞細亞國家들은 한편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效率的인 經濟發展을 示顯해 왔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美·日의 域內영향력에 강하게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련은 極東地域의 창문을 개방하여 亞·太地域의 經濟列車에 동승하여 동태적 발전의 氣를 흡입하는 일방 美·日의 經濟적 影響력에 대한 포함세력으로의 부상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소련의 움직임은 다시 美國의 反作用을 불러 일으키기 마련이며 최근 미국은 亞·太協力機構에 관한 여러가지의 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제안 역시 소련과는 약간의 時差가 있기는 하나 “ 經濟的 安保 ” 의 개념을 援用하고 있는 것은 흥미롭다.

2000 년대의 새로운 域內分業秩序가 태동하려는 와중에서 中國 역시 다양한 형태의 經濟的 協力方案을 구상하고 있다. 아직 中央政府의 正式案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고 유관연구소 내지는 학자들에 의하여 구상되고 있는 단계에 있기는 하나 中國側은 여러가지의 對안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中華經濟圈, 黃海經濟圈, 中南經濟圈, 그리고 東北亞經濟協力圈 등에 관한 구상들이 그것이다. 中國을 근년에 들어서면서 吉林省의 長春에 『 東北亞研究中心 』을 설립하여 여러 유관연구소 및 교수들을 참여시켜 東北亞의 經濟協力에 관한 연구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이와같은 中國의 地域經濟圈 구상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經濟 전략적 배경을 이루고 있는 것

은 1987년 말 이후 제기되어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沿海地區 經濟發展戰略 내지는 이른바 國際大循環論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東北亞情勢의 변화는 韓半島에도 그에 상응하는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아직 이렇다 할 改革·開放의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는 北韓에 대하여 韓國은 근년에 들어서면서 다양한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교류를 제기하여 왔다. 對北韓關係에 있어서 機能的 접근을 통하여 “신뢰를 구축하고 民族의 同質性을 회복하자”는 것이다.

南·北韓 經濟交流의 가능성은 크게 나누어 다음과 같은 두가지의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 하나는 第3國에서 多者間經濟協力の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형태이며, 그 다른 하나는 당사자간의 직접교류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배경으로 하여 이 글의 第1部에서는 東北亞經濟協力에 관한 유관국가들의 구상을 체계화시킴으로써 궁극적인 多者協力體系속에서 南·北韓 經濟交流의 가능성을 점검해 보고, 第2部에서는 주로 直接去來의 方案을 체계화시켜 보기로 한다.

II. 東北亞國家들과 蘇聯의 經濟交流

서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고르바초프 黨書記長이 등장하면서 亞太地域에 대한 소련의 관심은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지역의 域內分業에 대한 소련經濟의 참여정도는 극히 제한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다. 예를 들면, 소련의 전체교역에서

開發計劃이 발표되었다. “遠東經濟區, 부리야트 (Buryat) 自治區 및 치타 (Chita) 共和國의 生産力發展을 위한 長期綜合計劃”으로 발표된 이 案에 의하면 2000년까지 이 지역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무역을 활성화시키고 資本 및 技術導入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소련의 경제협력관계를 전망해 볼 때 특히 北韓을 포함한 東北亞國家들과의 관계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별로 볼 때 현재의 상황에서는 日·蘇關係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兩國간의 쌍무경제관계는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日·蘇貿易은 動力性を 상실하고 심각한 不均衡을 유발하였다. 또한 과학기술부문의 협력관계 역시 정체되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시베리아와 遠東地域의 자원 개발에 관한 전망도 불투명하다. 다시 말하면, 일·소간의 경제적 유대관계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1970년대 초반이후 두나라 간의 交易增加率은 先進國間的 무역신장을 보다 낮게 나타나 있다. 그 결과 두나라의 총교역에서 해당 개별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1975년 소련의 총교역에서 日本이 차지하는 비중은 3.8%, 소련의 對先進國 交易에서 일본의 비중은 12.1%에 달하고 있었으나 1986년에는 그 比重이 각각 2.4%, 11.0%로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 日本의 총수출에서 소련이 차지하는 비중은 2.9%에서 1.5%로, 일본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소련의 비중은 2.0%에서 1.6%로 감소하였다. 1970년대 중반 일본은 소련의 對西方수출에서 1位, 수입에서는 2位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1980년대 중반

이 지역국가들과의 무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11%에 불과하며 소련의 원동지역은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太平洋에 접해 있는 미국 5개州的 總生産額은 18개 大西洋州 총생산액의 45%를 차지함으로써 성장에 대한 對亞太國家交易의 기여도가 현저하게 크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고르바초프가 등장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소련은 亞太地域에서 美·日·韓 군사동맹 위협을 경고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軍事力을 증강시키는데 일차적인 관심을 두고 있었으며, 따라서 對資本主義國家와의 經濟的 交流에 있어서는 대체로 西歐國家들을 중시하여 왔다.

그러나 지리적으로 보면 소련의 원동지역은 亞太地域國家들과의 경제적 교류없이 소련 자체의 資本과 技術만으로는 성장잠재력을 개발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소련은 전체국토의 2/3가량이 아시아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원동지역은 금, 텅스텐, 주석, 납 등과 같은 지하자원이 풍부하다. 소련영토의 27.8%를 점유하고 있는 이 지역은 또한 전체 산림자원의 28%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양자원 역시 풍부하다. 소련의 원동지역은 비단 경제적 성장 잠재력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戰略的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M. 카뻘차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소련의 遠東地域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의 하나로써 소련, 미국, 일본 및 중국의 利害關係가 交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협스러운 韓半島의 긴장의 고리가 묶여 있음으로 政治的으로도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고르바초프 黨書記長은 그의 블라디보스토크 宣言을 통하여 亞太地域, 특히 東北亞沿岸國家들과의 상호협력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하여

에는 그 順位가 각각 5位, 6位로 變하였다. 같은 기간 일본의 수출에서 소련의 위치는 10位에서 13位로, 수입에서는 9位에서 22位로 그 重要性이 감소한 것이다.

<表 1>

日・蘇交易의 變化추이

(단위 : 백만루블)

區 分	1961 ~ 1965	1966 ~ 1970	1971 ~ 1975	1976 ~ 1980	1981 ~ 1985	1986
輸 出	698	1,547	2,956	4,233	4,170	980
輸 入	729	1,066	3,190	7,826	11,655	2,205
總 貿 易 額	1,427	2,613	6,146	12,059	15,825	3,185
무역증가율 (%)	21.4	14.9	24.1	7.2	3.4	- 1.0*
선진국에 대한 소련의 무역증가율%	8.0	10.8	27.5	14.8	6.7	-23.5

* 1985년 對比

출처 : Yu. Stolyarov / J. Shoydko, "Soviet - Japanese Trade and Economic Relations", in Far Eastern Affairs, 1987 No. 6, P. 32 .

1971년과 1975년 사이 對日貿易에서 발생한 소련의 적자는 2억 3천 4백만루블에 달했으나 1976 ~ 1980년의 5년 사이 적자규모는 36억루블, 1981 ~ 1985년에는 75억루블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한 소련의 경제학자는 日 - 蘇經濟關係가 "회귀할 수 없는 감속의 위험선"을 넘어선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兩國간에 경제관계가 이와같이 냉각되고 있는 데에는 여러가

지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인 시각에서 보면 특히 일본기업의 입장에서 對蘇 경제교류가 여타 국가와의 관계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收益性이 낮다거나 直接投資의 경우에는 투자에 따르는 『리스크』가 그만큼 크다는 사실을 反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政治的 要因은 『北方島嶼』의 문제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치적 문제가 미결로 남아 있는 한 두나라 간의 經濟交流은 일정한 한계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을 전제로 할 때 東北亞地域의 경제협력에 있어서는 앞으로 南·北韓-中-蘇交流가 점진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소련은 遠東地域에서의 多者間 경제협력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블라디보스톡크, 나호드카, 하산 등 지역에 經濟特區를 계획중에 있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미 중국과 소련간에는 다양한 경제교류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北韓 역시 국경지역에 經濟特區의 설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소련에 상당한 輕工業製品을 수출하고 있으며 원동지역에 진출하여 산림자원을 개발 그 일부를 일본에 수출하고 있다. 특히 블라디보스톡크는 북한과 인접하고 있어 나진까지의 항해시간은 2시간 정도에 불과하다. 南·北韓이 공동으로 소련의 遠東地域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 원동지역 / 시베리아의 자원개발에 대한 공동참여,
- 자원의 加工産業에 대한 공동진출,
- 輕工業製品의 合作會社 설립 등이 있을 수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소련의 자원을 남·북한이 공동개발하는데 있어서는 북한의 內地나 領海를 통하여 개발된 자원을 한국에

수출할 수 있는 輸送可能性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東-西獨間의 先例가 그러하듯이 그 비용을 남·북한이 공동부담함으로써 한국으로서는 자연자원을 저렴한 수송비를 안정공급받을 수 있는 이익이 있으며 북한으로서는 자신의 부족한 社會間接資本을 보완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자연자원의 加工에 있어서는 北韓 역시 상당한 경험을 축적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분야에서의 공동협력 역시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련은 中國과 마찬가지로 원자재의 直輸出보다는 加工輸出을 통하여 자국에서의 부가가치를 제고시키려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은 향후에 더욱 강화될 것이 분명하다. 輕工業 部門의 合作會社 설립 역시 그 가능성과 전망이 높은 분야의 하나로 간주된다. 소련이 전반적으로 그러하나 특히 遠東地域에서는 생활필수품이 부족한 실정이며 이를 단기간에 해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한국의 경제적 상황은 국내의 賃金上昇과 국제시장에서 후발개도국의 등장에 따라 知識集約的 産業에로의 産業構造調整이 불가피한 상태다. 이상에서 거론한 분야 이외에도 南·北韓 및 소련은 공동漁場의 개발과 水産物加工이나 일부의 전략산업에서도 經濟協力이 가능할 것이다. 소련은 전자, 기계, 조선, 산업로봇, 자동차산업 등에서 한국기업이 진출할 것을 원하고 있거니와 이러한 지식집약적 산업에서도 3者協力은 제한적이거나 그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예를 들면 수치제어기계에 상당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으며 근년에 들어서는 산업로봇에도 상당한 투자를 할애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에는 中國의 開放戰略을 개관해 보고 이를 토대로 北韓을 포함한 多者交流의 가능성을 점검해 보기로 한다.

Ⅲ. 中國의 開放戰略과 東北亞經濟協力

1. 開放戰略의 理論的 背景

中國은 經濟改革·開放을 추진하기 시작한 이후 지난 10년(1979~1988)에 걸쳐 年平均 9.6%의 經濟成長率을 示顯함으로써 東歐와 달리 지속적인 개혁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몇가지 指標들을 토대로 최근 中國經濟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表 2> 中國經濟의 변화추이(1987,1988年)

項 目	單 位	實績(1987年)	實績(1988年)
國民總生産(GNP)	億 元	10,920 (109.4)	13,694 (111.2)
農村社會生産總額	"	9,041 (112.7)	11,000 (110)
農業生産總額	"	4,441 (104.7)	5,300 (102)
工業生産總額	"	13,780 (116.5)	15,000 (117.7)
輸 出 入 總 額	億달러	827 (112.0)	1,029 (124.4)
輸 出	"	395 (127.8)	476 (120.8)
輸 入	"	432 (100.7)	553 (128)
外資利用實積	"	75.7 (104.3)	88 (116.2)

* ()는 前年度를 각각 100으로 한것임

이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中國의 國民總生産은 1987 年の 9.4%에서 그다음 해에는 11.2%나 증가하였다. 특히 이러한 경제성장이 전반적으로 농업생산이 저조한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볼 수 있다. 1988년 工業部門에서는 前年對比 17.7%의 伸長率을 기록하였거니와 특히 농촌공업의 신장율은 35%에 달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 채탄분야의 증가율은 10.8%에 그친 반면 加工工業은 23%나 증가하였다. 이는 中國製造産業의 構造가 대단히 빠른 속도로 近代化되어 가고 있다는 事實을 反證하는 것이다.

이러한 中國의 경제적 성과는 그 상당부문이 交易을 통하여 얻어진 것으로 보인다. 表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88년 貿易總額은 1천억달러를 상회하였으며 그중 수출이 476억 달러, 수입이 553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中國의 수출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사실은 수출상품의 구성에 있어서 工業제품의 증가율이 30%에 달하여 수출구조가 1차산에서 製造成品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동시에 工業品중에서도 전기·기계제품의 수출액이 45억달러로 60% 가량의 신장율을 나타내고 있거니와 이는 수출이 단순상품에서 상대적으로 知識集約度가 높은 산업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난 10여년에 걸쳐 中國의 貿易規模는 크게 증가하여 1988년말 현재 國民經濟의 交易依存度는 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中國당국은 향후에도 國民經濟의 海外開放을 더욱 加速化시킬 계획으로 있으며 이러한 開放政策을 南·北韓을 포함한 域內國家들간의 經濟交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여러

연구소와 경제학자들이 구상중인 “大中國經濟圈”이나 “東北亞經濟協力圈”은 日本의 通産省이 중심이 되어 거론하고 있는 “東亞經濟圈”과 함께 韓國의 域內分業과 對北方經濟政策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에는 이러한 점을 배경으로 하여 그러한 중국과 일본의 구상이 갖고 있는 이론적 배경과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1987년 10월말 中國共產黨 第3次大會 이후 중국은 開放을 통한 開發戰略을 체계적으로 재검토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특히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이 바로 국제대순환론과 이에 근거한 연해지구 경제발전전략이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상세하게 설명하겠지만, 그 의도는 東亞細亞를 중심으로 하는 經濟圈을 상정하고 중국이 여기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자세를 표명한 것으로 對外經濟戰略의 획기적인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國際大循環論은 중국 國家計劃委員會 計劃經濟研究所의 副研究委員으로 있는 王建이 발표한 논문에 기초한 것으로서 그 핵심적인 내용을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¹⁾

“이 이론은 하나의 經濟發展戰略에 관한 구상이다. 간단히 말하면 勞動集約型 製品을 크게 輸出하여 국제시장에서 外貨를 벌어들여 이로써 重工業發展을 위한 資金과 技術을 획득하고, 重工業發展을 통하여 축적된 資金으로 農業을 지원한다. 이와 같이 國際市場의 轉換메커니즘을 통하여 農業과 重工業의 循環關係를 소통시키는 것이다.”

註1) 王建, “選擇正確的 長期發展戰略—關於 國際大循環 經濟發展戰略的 構想”, 『經濟日報』, 1988년 1월 5일자, 北京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沿海地區(珠江델타, 長江델타, 福建省南部델타, 山東반도, 遼東반도 等)에 勞動集約型 産業, 즉 鄉鎮企業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원재료를 제품으로 가공하여 輸出指向型 發展戰略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함으로써 국내의 중공업과 농업발전을 연계시키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王建의 논문은 당시 趙紫陽 黨總書記가 높이 평가하고²⁾ 이에 기초하여 87년 11월 부터 12월에 걸쳐 上海, 江西, 浙江, 江蘇, 福建省 등을 시찰하고 지시한 내용을 정리할 것이 沿海地區經濟發展戰略이다. 조자양에 의해 제기된 이 전략구상은 88년 2월의 黨政治局會議에서 정식으로 채택되고 3월중순에 개최된 黨2中全會에서 다시 제기된 바 있었다. 이 때 조자양 총서기는 보고를 통해 이戰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 전략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失機를 해서는 안된다는 鄧小平의 말을 인용하여 그 긴박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후 “향후 2년간의 經濟調整政策”이 채택된 88년 9월의 中共黨 13期3中全會에서의 조자양의 보고에는 연해지구 경제발전전략에 관한 언급이 없어 일부 관측자들은 이 전략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기도 하였었다. 그러나 그후에도 계속하여 조자양 외에도 李鵬국무원 총리, 田紀雲 부총리 등이 이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점을 배경으로 다음에는 이 전략의 내용과 특징을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註 2) 趙紫陽, “趙紫陽 縱談沿海地區經濟發展戰略”, 『人民日報』1988년 1월 23일자, 北京

2. 沿海地區 經濟發展戰略의 주요 內容

그동안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온 연해지구 경제발전전략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³⁾

첫째, 이 발전전략은 현재 중국은 資本이 부족하고 일인당 自然資源도 풍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勞動集約的인 製品の 輸出에 힘을 기울여 이를 통해 沿海地域의 경제발전을 도모할 것을 제기하고 있다.

둘째는 “兩頭左外”와 “大進大出”의 방안이다. 兩頭左外란 연해지구에서 노동집약적인 産業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이에 필요한 원재료와 연료도 외국에서 輸入하고, 그것을 가공하여 생산한 제품을 해외로 輸出하여 外貨를 획득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때 “入口”와 “出口”가 모두 해외에 있기 때문에 이를 “兩頭左外”라 표현한다. “大進大出”이란 많이 수입하고 많이 수출한다는 것으로 앞의 戰略을 강조하여 부각시키는 내용이다.

현재 중국에서는 그동안의 公업화 결과 上海 등 연해지구에서는 원자재와 에너지 등의 生産資料를 조달하기가 대단히 어렵게 되었으며 그 코스트 역시 크게 상승하고 있다. 이와 같이 生産費가 상승하여 채산성이 악화될 상황에 처해 있어 차라리 한국이나 대만 등 아시아의 新興工業國에서 가공된 원자재와 중간재를 수입해 輸出商品을 생산하겠다는 전략이다.

註3) 山内一男, “『國際大循環』戰略とは存にか”, 『中國研究月報』, 1988년 4월호, (日本)中國研究所 凌星光, “沿海地域發展戰略背景と問題點”, 『中國研究月報』 1988년 8월호

세째는 外國企業에 의한 直接投資의 유치에 중점을 두겠다는 방안이다. 間接投資의 경우에는 원리금의 상환부담이 따르게 되어 중국의 外債問題가 더욱 악화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직접 투자를 선호할 것이 분명하다. 나아가서 외국기업의 직접투자는 技術 및 經營知識의 확산이라는 또 다른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중국은 이를 중시하고 있는 것이다.

네째 鄉鎮企業에 대한 정책이다. 중국에 있어서는 大·中 規模의 國營企業이 競爭力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이들 기업에서 企業改革에 의한 經營合理化는 아직도 초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규모는 작지만 鄉鎮企業들이 시장의 변화에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勞動集約的 製品을 수출하는데 있어서는 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다.

다섯째 外資系 企業(中外合資·合作企業)에서의 經營權을 外國人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合資企業의 社長, 工場長을 외국인에게 맡김으로써 예상되는 효과는

- 과거의 行政的 타성에 의한 전통적 경영방식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 製品의 質이 제고되고 生産性이 상승하며 해외의 판매시장을 개척하는데 유리하며,
- 노동자의 훈련을 통한 숙련도가 상승하고 국내 경영진을 양성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

합자기업의 경영권을 외국인에게 위임한다면 결국 외국에 대한 종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도 있기는 하나, 결국은 이러한 부작용을 감수하고라도 그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

하여 외자계 기업을 장려하겠다는 구상이다.

마지막으로는 科學技術을 生産力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중국의 科學技術수준은 전반적으로 볼 때 제3세계국가들에 비하여 결코 낮은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이것이 생산력 발전과 연계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연해지구의 中小企業에 의한 輸出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제품의 개발, 품질향상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國營企業의 우수한 기술자가 鄉鎮企業으로 이동하는 것을 촉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다음에는 沿海地區 經濟發展戰略이 제기되게 된 배경을 살펴 보기로 한다.

3. 沿海地區經濟發展戰略의 背景

중국측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 전략의 몇가지 중요한 배경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日本의 經濟調整에 대한 대응이다. 1987년에 前川 報告書가 제출되고 日本에서는 엔高의 영향하에 産業構造調整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중국의 일부 논자들 간에는 日本이 産業構造를 高度化시키는 과정에서 과연 일부 산업을 개발도상국에 이양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회의적 견해가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대부분의 중국학자들은 日本의 사양산업 또는 경쟁력을 상실한 산업이 여타 開途國에 이양되는 것은 필연적인 추세일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력이 풍부한 중국으로서는 이러한 산업을 육성하는데 결정적인 조건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亞細亞 新興工業國에 대한 편견이 시정되었다는 사실이다. 거의 10년전 까지만 해도 중국은 일본의 戰後 經濟發展에 대해서는 교훈적인 시사점이 있다는 태도를 갖고 주목하였으나 신흥공업국에 대해서는 植民地經濟라고 하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이나 대만 등의 經濟發展이 서서히 소개되기 시작하였으나 역시 부정적인 측면들이 부각되어 있었다. 예를 들면 外債나 物價問題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대만과 한국의 발전 경험으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견해가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亞細亞 新興工業國에 있어서는 賃金이 크게 상승하고 대만의 1인당 GNP는 6000달러에 달하고 있다. 자국에서 生産費가 상승하면서 이들 국가들은 勞動集約的 産業을 ASEAN과 중국으로 이전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날 중국에서는 노동집약형 제품의 수출에 의한 工業化를 실현시킬 수 있는 세번째의 기회를 맞고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즉, 1950년대 후반에 있었던 제 1의 기회에서는 일본이 노동집약형 제품의 수출을 통하여 공업화에 성공했고,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초반에 걸쳐 발생한 제 2의 기회에서는 신흥공업국들이 성공을 거두었으며 이번에 도전한 제 3의 기회는 노동력이 풍부한 중국이 이용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세째는 中國 國內産業構造의 高度化 問題인데 현재 중국에서는 1次産業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적극적인 開放政策을 통하여 산업의 비중을 1次産業으로부터 2次, 3次産業으로 원활히 전환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沿海地區 發展戰略을 통하여

노동집약적 향진기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1차산업을 2차산업으로 전환시키는데 기여하도록 하며 특히 농촌의 유희노동력을 흡수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 것이라는 점이다.

마지막으로는 1987년에 발표된 世界銀行의 報告書의 내용과 관련된다. 이 보고서에서는 발전도상국의 開發戰略을 4개의 모델로 구분하고 있는데 第1의 유형은 철저한 外向型 經濟(한국, 대만등)이고 第2의 유형은 일반적인 외향형 경제(멕시코 등)이며, 第3의 유형은 일반적인 內向型 經濟이고 제4의 유형은 철저한 내향형 경제(인도, 버마)이다. 이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경우는 제1의 유형으로서 중국 역시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이를 위하여 연해개발을 통한 국제대순환론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연해지구 경제발전전략의 주요 내용과 배경을 개관해 보았다. 근래에 들어와서도 중국은 이 연해지구 경제발전전략과 관련하여 특히 “以進養出(수입에 의한 수출확대)”, “三來一補(위탁가공, 조립가공, 보상무역)”을 발전시켜 외국의 資本, 技術, 管理경험을 도입하여 중국의 낙후기업과 접목시킴으로써 경제발전을 꾀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금년부터 시행되는 經濟調整政策과도 관련하여 연해지구에서는 산업구조, 투자구조, 신용구조 등을 조정할 계획이며 이를 통하여 外向型 經濟의 기틀을 세우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판매가 부진하거나 에너지 및 원자재를 많이 소비하고 계속 적자를 내는 기업을 제거하고 수출산업을 육성하여 경제적 效率性을 제고시키고자 하고 있다.

IV. 東北亞經濟圈 構想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世界經濟는 여러가지의 構造的 變化를 경험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것은 亞太地域의 경제적 부상이라 할 수 있다. 구대륙 “유럽”이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太平洋時代”가 예고되면서 여러 유관국가들은 나름대로의 다양한 經濟協力體에 관한 구상들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開放型 開發戰略을 견지해 온 한국으로서는 새로운 域內協力方案이 무엇인가에 의하여 커다란 영향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특히 域內協力에 중국과 소련이 참여하게 될 경우 이에 따라 한국의 “北方政策”의 전략도 그에 相應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보인다.

地域協力圈에 대한 구상은 이미 1979년 일본의 太平正芳 수상 이 취임후 “環太平洋合作構想”을 제기하였고, 1983년 中曾根수상은“太平洋經濟文化圈” 구상을 제기한 바 있었다. 그러나 이 구상들은 모두가 구체적 내용이 결여된 일종의 희망사항이었다. 이에 반하여 최근 竹下政府의 자문기구인 經濟審議會의 國際經濟部가 제기한 案은 상당한 구체성을 띄고 있다. 日本, 아시아의 “四小龍(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과 ASEAN을 포함하는 “東亞經濟圈”에 대한 이 구상은 그 이전과는 달리 일본의 外務省, 通産省, 經濟企劃廳 등이 직접 작업에 참가하였으며, 따라서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亞太地域 經濟發展戰略이라 할 수 있다.

소위 “東亞經濟圈”이라는 이 구상은 貿易, 投資, 資本의 “三位一體化”된 협력을 통하여 域內 經濟合作을 강화하고 경제발전을

촉진하며 궁극적으로는 “太平洋共同體”의 목표를 실현하려는 구상이다. 무역분야에서는 일본이 더욱 輸入을 확대하여 미국을 대신해서 “四小龍”과 ASEAN의 수출상품 흡수자로서의 역할을 하며, 이들 국가와 直接投資를 확대하고 통화분야에서는 일본이 주로 円貨에 의한 決算의 비중을 높여 엔貨의 國際化를 촉진시킨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東亞經濟圈의 구상은 일본 자신의 이익에 대한 고려에서 나온 것이다. 서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향후의 세계경제는 EC를 중심으로 하여 地域化의 추세를 강하게 노정할 전망이다. 이러한 블럭經濟의 심화는 특히 미국, 캐나다 및 서유럽에 수출량의 상당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輸出大國 日本에게 큰 타격을 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일본은 域內 新市場을 개척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또 다른 요인중의 하나는 美·日 무역마찰이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상품의 國際競爭力이 약화되어 貿易赤字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본에 대한 무역적자액의 비중이 단연 압도적이었다. 예를 들면 1987년 총적자액 1700억 달러중 500억 달러가 일본과의 교역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新保護貿易主義가 강화되고 일본시장의 추가 개방압력이 증대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은 점차 內需市場을 확대함과 동시에 자국의 상품을 수출할 수 있는 수출잠재력이 있는 새로운 추가시장을 개척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세계로는 亞太地域經濟의 활력있는 발전이다. 1970-80년대에 들어

서면서 아시아 “四小龍”의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했을 뿐만 아니라 ASEAN 국가들도 경제적 도약기에 접어들기 시작함으로써 亞太地域經濟는 세계경제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 지역의 年平均經濟成長率은 1960-73년에 6.3%, 1971-80년에 6.2%, 1981-84년에 5.9%를 기록하여 같은 시기의 선진국 경제성장을 4.6, 2.8, 2.1%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1987년에도 두 지역간의 경제성장을 각각 8.02%와 3.2%로 나타나 있다. 이제 亞·太地域은 세계에서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진 商品市場과 投資市場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비단 日本 뿐만 아니라, 후술하는 바와 같이, 中國과 蘇聯이 이 지역진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도 여기에 있다.

마지막으로는, 앞에서 거론한 바와 같이, 日本經濟의 産業構造調整의 필요성이다. 戰後 日本경제는 거의 안정적인 고도성장을 견지해 왔으나, 현재 정부 및 기업계의 지배적인 견해는 일본이 적시에 産業구조의 조정을 단행하지 않으면 미국경제와 같이 정체 및 쇠퇴현상이 발생할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일본은 특히 저렴한 노동력과 기술진보의 속도가 빠른 아시아 신흥공업국가와 ASEAN 등의 추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円高의 영향이 발생하여 전통적으로 우위에 있던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이미 치열한 경쟁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輸出指向型 經濟構造를 內需擴大型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중공업중심으로부터 고도정밀 첨단산업으로 産業구조를 전환시키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비교우위에 따른 域內 分業構造가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1. 東北亞經濟圈에 관한 中國의 構想

中國이 구상하고 있는 東北亞經濟圈은 지리적으로 소련(極東地域), 中國(東北3省 및 沿岸地域), 內蒙古, 南·北韓 및 日本을 포함하고 있다. 이 구상을 따라서 韓國 뿐만 아니라 北韓을 明示적으로 포함하고 있어 南·北韓과 여타국가들 간의 多者經濟交流의 가능성을 제고시킨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론적으로는 앞에서 다룬 國際大循環論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구상은 '89년 1월 北京에서 개최된 “東北亞經濟圈 合作發展問題 研討會” 이후 한국측의 관심을 끌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이 중국 내부에서 간헐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제2단계 經濟改革이 시작되고 난 85~86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시기의 중국 개방정책은 상당한 시련을 겪고 있었다. 국제시장에서 지속적인 原油價格의 하락으로 交易條件이 약화되고, 주요 교역파트너인 日本과의 교역에서 貿易赤字가 가속적으로 누적되었으며, 經濟開放에 따라 輸入이 급증하면서 전반적인 貿易不均衡이 심화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품의 輸出構造를 多元化시켜 수출주 종품목으로써 원자재를 제조상품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었으며, 동시에 域內分業構造의 측면에서는 對日依存度を 감소시키고 여타 국가들과의 多角關係를 정립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대순환론이 제기되어 중국이 중·장기 開放戰略으로써 연해 지구경제발전과 동북아 경제권이 구체화되게 되었다.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政治-經濟的 要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소련군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월남군의 캄보디아 철군, 중소국 경지역에서의 소련군 철군 등에 따라 中·蘇關係가 크게 개선되면서 두나라간에 經濟協力の 분위기가 고조되기 시작하였다는 점.
- 고르바초프에 의하여 亞-太地域에 대한 소련의 경제적 攻勢가 예상되고, 美·日, 호주 등에 의하여 다양한 域內協力方案이 구상되고 있어 중국으로서도 독자적인 案을 제기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
- 특히 일본의 구상은 과거 日帝下에 제기된 大東亞共營圈이 연상되어 일본이 다시 域內 hegemoni를 장악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는 사실
- 마지막으로 第6共和國에 들어서면서 韓國이 적극적으로 北方政策을 추구함에 따라 韓-中經協이 증가하고 있는데다가 특히 西海岸 開發이 對中 經濟關係를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배경으로 하여 다음에는 중국의 유관학자들이 제기한 東北亞經濟圈에 관한 논리를 요약 정리해 보기로 한다.⁴⁾

이 구상의 기본 출발점은 東北亞經濟에 속해 있는 국가들 간에 경제적 보완관계가 대단히 높다는 사실이다. 소련의 극동지역은 특정 重工業의 기반이 마련되어 있으며 자연자원이 풍부하다. 전반적으로 세계의 자원이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장래 소련 극동지역의

註 4) 奚方, “對『東亞經濟圈』的 幾點看法”, 『世界經濟』 1989년 제 2기, 北京; 余曷雕, “『東亞經濟圈』的 建立勢在必行”, 『世界經濟』 1988년 제 2기.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이 분명하다. 특히 최근의 정치적 해빙이 이루어짐에 따라 兩國間의 경제관계는 지속적으로 심화될 전망이다.

中·蘇交易에 있어서 東北3省은 전통적으로 중요한 창구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 1700년대 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中·蘇間의 交易은 吉林省의 長春을 거점으로 이루어지다가 그후 하르빈을 중심으로 하는 黑龍江省으로 확대되었다. 1957~66년에 걸친 中·蘇間의 邊境交易은 145백만 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주로 소련의 하바로프스크와 黑龍江省間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兩國間의 경제관계는 1968年 國境紛爭으로 냉각기에 접어들었으나 1982년에 들어서면서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80年代 양국간 경제관계가 광역화되면서 邊境交易의 상대적 비중은 16%(1986)로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그 중요성은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黑龍江省은 吉林, 遼寧, 上海의 對蘇交易창구일 뿐만 아니라 東歐와 中國을 연결하는 가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985年 7月 중국과 소련은 1990년까지 兩國의 交易규모를 50억~60억 달러로 확대시키기 위한 5個年協約을 교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兩國間의 總交易額은 1982년의 363백만 달러에서 1985, 1986년에는 각각 19억 달러, 26억 달러로 급증하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對蘇輸出은 농작물, 화학제품 및 경공업제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중국은 주로 강철, 목재, 화학비료 및 시멘트 등을 수입하고 있다. 중국은 향후에도 상당기간 에너지의 부족을 경험하고 重化學 우선에서 輕工業중시의 정책전환을 시도함에 따라 두나라 간의 交易構造는 상당한 보완적 성격을 유지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련은 미국, 일본, 캐나다 및 유럽에서 輸入規制를 받고 있는 중국의 섬유에 대한 市場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양국간의 교역에 있어서 貿易不均衡은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年次計劃에 따라 무역규모를 합의하여 주로 바터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최근 양국간의 정치적 관계가 개선되어 가면서 다양한 형태의 경제관계를 모색하고 있다. 合作會社의 설립, 技術移轉 및 철도, 전력과 같은 社會間接資本에 대한 상호지원방안 등이 그것이다. 지리적 여건이나 도로망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간접자본 및 역사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소경제협력, 나아가서는 東北亞經濟協力에 있어서 東北 3省은 중요한 거점역할을 담당할 것이 분명하다. 이에 관해서는 후에 가서 상세히 다루기로 한다.

지금까지 나타난 상황으로 보면 소련은 기본적으로 쌍무협력관계를 중시하면서 전체적인 亞·太地域을 겨냥한 經濟的 分業體制에 참여하고자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소련이 얼마만큼 “東北亞協力圈”이라는 小地域主義 (Subregionalism)에 관심을 보일지는 불투명하다. 중국의 여러학자들이 中-韓-日 貿易關係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소이도 여기에 있다.

중국측의 견해에 의하면 이들 국가들은 대단히 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日本은 방대한 자본과 엔진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풍부한 인력자원을 갖고 있으며, 공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잠재시장의 가능성도 양호하다. 또 한국은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제조산업과 상당수준의 생산기술과 경영기법에 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다. 따라서 東北亞地域의 국가들이 상호보완성을 받

휘한다면, 즉 소련 시베리아지역과 중국 동북지역의 풍부한 자연자원을 이용하고, 일본과 한국의 다층적인 생산기술 및 관리경험과 중국의 풍부하고 저렴한 인력자원을 이용하여 중국의 동북지역과 소련의 극동지역에 자원산업을 건설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加工工業을 발전시킨다면 域內 經濟發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물론 현재 産業構造의 측면에서 볼 때 이들 국가간의 경제협력관계는 垂直分業關係이다. 중국측의 예상에 따르면 이러한 수직분업관계는 대략 금세기말 까지 계속될 것이지만 21세기 초가 되면 중국産業構造가 고도화되어 감에 따라 中-韓-日間의 경제관계는 水平分業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그 때가 되면 지리상으로 인접해 있고 또한 일정한 文化的 同質性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東北亞細亞 각국은 초보적 형태를 갖춘 하나의 經濟圈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측의 견해에 의하면 이 경제권내에서의 相互關係는 유럽공동체의 경우와 같이 밀접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느슨하게 결합된 하나의 自由貿易地帶”가 될 수는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⁵⁾

이러한 구상을 실현하는 데에는 그러나 상당한 장애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東北亞에 속하고 있는 국가들이 서로 다른 “經濟體制”를 취하고 있으며 소련이나 일본에 의한 패권주의적 정책으로 요약된다. 명시적으로는 밝히지 않고 있으나 기실은 中國側이 적극적으로 東北亞經濟圈에 관한 구상을 제기하는 것도 이들 국가에 의한 일방적 영향력 행사 -經濟的인-를 中和

註 5) 金汎汎, “亞太經濟發展趨勢與沿海地區經濟發展戰略”, 『世界經濟』 1988년 제2기

시키기 위한 동기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日帝의 植民地 경험에 의한 비판적인 對日觀은 滿州 내지는 東北 3省에 강하게 잔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貿易政策 역시 地域圈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1985년 對日 貿易赤字가 60억달러를 기록하면서 수입문호의 개방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그러나 여타의 亞太地域 國家들과 마찬가지로 소련이나 중국이 제조상품의 對日輸出을 신장시키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自國産業을 보호하고 構造的 失業을 막기 위하여 일본은 産業構造問題調整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유통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은 1983년 이후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면서 현물시장 (Spot market)에서도 원유도입을 선호함으로써 중국의 對日原油輸出이 타격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1986년 원유가격이 하락하여 중국은 약 30억달러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물론 근년에 들어서면서 중국의 대일 貿易收支는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장기적으로 일본이 어느 정도 중국의 勞動集約的 輕工業製品에 대한 수입문호를 개방할 것인가는 낙관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2. 中國의 經濟圈 구상과 韓-中經濟關係

이상에서 다루어 본 제반 요인들을 고려할 때 中國이 國際大循環論을 배경으로 하여 東北亞經濟圈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은 韓-中經濟關係라 할 수

있다. 일본과 비교하면 일천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한-중교역은 그 동안 괄목할 만한 신장세를 기록해 왔다.

<表 3> 韓國의 社會主義國家들과의 交易 (백만 U.S.달러)

地域 \ 年度		'85	'86	'87	'88
全體	總計	1,438	1,609 (11.9)	2,027 (26.0)	3,650 (80.1)
	輸出	850	900 (5.9)	982 (9.1)	1,996 (103.3)
	輸入	588	709 (20.6)	1,045 (47.4)	1,654 (58.3)
中國	總計	1,161	1,336 (15.1)	1,679 (25.7)	3,196 (90.4)
	輸出	683	715 (4.9)	81.3 (13.7)	1,809 (122.5)
	輸入	478	621 (29.9)	866 (39.5)	1,387 (60.2)
蘇聯	總計	102	133 (30.4)	200 (50.4)	278 (39.0)
	輸出	60	65 (8.3)	67 (3.1)	100 (49.3)
	輸入	42	68 (61.9)	133 (95.6)	178 (33.8)
東歐	總計	175	140	148	176
	輸出	107	(△ 20.0)	(5.7)	(18.9)
	輸入	68	20 (△ 70.6)	46 (130)	89 (93.5)

* 괄호안의 숫자는 前年對比 增加率임
* 輸出은 KOTRA, 輸入은 관세청 자료임.

表 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8 年末 현재 兩國間의 貿易額은 36 億달러로 이는 한국의 對社會主義貿易의 80 %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또한 年度別 무역의 신장추세에 있어서도 한국의 전체적인 무역상승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直接投資는 아직 크게 활성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조건이 충족된다면 이 역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⁶⁾

東北亞經濟協力の 틀속에서 韓-中關係를 고찰함에 있어 우리는 이를 지역적으로 세분화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廣東省을 중심으로 하는 남지나해와 上海를 중심으로 하는 東지나해 및 大連을 중심으로 하는 黃海연안지역이다. 第1의 경우가 중국을 중심으로 대만, 홍콩, 마카오를 포함하는 “中國經濟圈” 그리고 第2, 第3의 경우가 東北亞經濟의 전략적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中國經濟圈에 관한 중국의 구상은 금년 4月10日字 “經濟導報”에 中國社會科學院의 周志懷연구원이 “中國經濟圈初探”題下の 글을 게재한 이후 그 대체적인 내용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다. 참고삼아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 大陸, 대만, 홍콩·마카오 3地區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相互補完性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1960년대 이후 대만과 홍콩은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보임으로써 그 결과 홍콩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금융중심의 하나로 부상하였으며, 무역, 해운, 관광, 정보 등 각 분야에서 그 역할이 크게 제고되고 있다.

註 6) 陳龍山, “東北亞經濟圈 與韓中經濟合作”, 中國吉林省 社會科學院, 1989. 4. 13.

대만은 農·工業均衡發展과 對外貿易을 통하여 1인당 GNP는 5000 달러, 대외무역규모는 세계 14위로 부상하였다.

- 그러나 앞으로의 발전에 있어서 이들 국가들은 상당한 난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대만과 홍콩을 輸出主導型 成長방식을 추구해 왔으나 1989년 이들 국가의 최대수출시장인 미국이 아시아·신홍공업국들에 대하여 일반 특혜관세제도를 폐지하고 신보호주의 압력을 가함에 따라 지속적인 미국시장의 개척이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시장다변화가 중요하나 이 역시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 이들 국가에서는 또한 勞動力이 부족하고 賃金上昇에 따른 生産費의 압력이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勞動集約的 産業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대만은 또한 장기간의 貿易黑字로 700억 달러 상당의 外貨를 보유하고 있어 해외 直接投資를 통한 문제해결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 이에 비하여 “大陸”은 78년 이후 改革·開放으로 年平均 9.3%의 經濟成長을 실현하기는 하였으나 지역이 넓고 인구가 많으며 자금이 부족한데다 경영관리수준이 낙후된 상태며 교통, 운수, 통신 등 社會間接資本이 취약하다.

이상과 같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3개 지역의 보완적 요소들, 즉 중국대륙의 토지, 노동력, 광대한 잠재시장과 대만의 기술, 경영「노우-하우」, 국제판매능력 및 홍콩의 무역·금융서비스능력 등이 결합되면 이들 지역은 장차 “大中國社會”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국가간의 경제교류상황을 보면 홍콩은 중국의 주요 수출, 중개수출시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외화획득원이 되어 있

으며, 중국은 홍콩의 第1輸入市場이다. 대만은 홍콩의 제4 무역대상국이며, 홍콩은 대만의 제3 무역대상국이다. 1988년 두나라 간의 貿易額은 450억 홍콩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과 대만간에는 88년 15억 달러의 間接交易이 이루어졌으며 직접무역도 개시되고 있다.

중국과 홍콩 간의 무역은 1978~1989년 사이 17.9배가 증가하였으며 合作領域도 집진적으로 확대되어 외국자본에 의한 투자액중 60%가 홍콩에 의한 것이며, 중국 역시 홍콩의 공업생산, 금융, 유통부문에 광범위하게 진출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중국과 대만과의 경제교류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두나라간의 교역은 아직 홍콩을 통한 간접무역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교역구조는 단순한 소비재에서 생산재로 전환되고 있으며, 역시 규모는 크지 않으나 대만자본의 對中國投資도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이상과 같은 中國經濟圈의 구상은 國際大循環論을 배경으로 한 경제발전의 동기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며 다분히 政治的 目的을 갖고 있는 것은 자명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홍콩과 마카오는 각각 1997, 1999년에 중국으로 반환될 예정이며, 中國側은 소위 “1國2體制”論을 토대로 대만과의 統一을 부단히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고려할 때 이들 지역간의 經濟的 統合은 政治的 統一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한 것이 분명하다.

이상에서 우리는 중국이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國際大循環論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廣東省을 중심으로 하는 남지나해에서의 經濟統合에 관하여 개관해 보았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동지나해와 황해 내지는 東北3省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의 經濟圈구상이다. 이른바 東北亞經濟圈의 배경과 구상내용에

관해서는 앞 章에서 자세히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중복을 피하면서 중국의 연안개발·개방전략을 한국과의 관계라는 맥락에서 개관해 보기로 한다.

上海를 중심으로 하는 山東의 연안지역 개방을 통한 國際大循環戰略과 韓國을 중심으로 하는 東北亞國家들과의 경제적 연계관계에 관해서는 黃大明 등 8명의 상해지역 경제학자들이 87年 말 中國社會科學院이 발행하는 논문집 「社會科學」에 “아시아·태평양 경제상황과 上海經濟發展”題下の 글을 발표하면서 구체화되었다. 이 논문은 물론 東亞細亞 經濟發展의 중심지로서 上海의 역할을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있기는 하나 그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이론에 의하면 중국의 對外開放은 3단계로 진행되고 있는데 제1단계는 4개 經濟特區에 의한 “先寧”戰略이며 제2단계는 海南島와 14개 연안도시의 개방인 “鋒線”戰略이고, 제3단계는 上海가 대외개방과 대내연합이라는 양면을 종합하여 전국최대의 경제중심으로서 4개 현대화 건설의 “開路先鋒”이 되는 “中鋒”전략이다. 최초의 새로운 세계적 기술혁명, 서방국가들의 고도성장 및 중국의 경제와 대외무역의 중심이 되고 있는 환태평양 지역을 잘 이용하면, 중국의 연안경제지역에 상해를 중심으로 하고 大蓮과 廣州를 남북의 양날개를 하는 고도경제성장대를 형성하여 중국의 경제도약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對中經濟政策에 있어서, 미국의 경우와 비교할 때, 투자보다는 무역을 중시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도 주로 大蓮을 중시하고 있다. 이들 학자의 견해에 의하면 미국은 한국과 대만을 중시하여

이들 양국에 활발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전략적 의도는 이들 두나라와 일본과의 경제관계를 수직분업에서 수평분업으로 전환시켜 일본의 경제적 영향력이 증가하는 것을 견제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은 외국의 對中國 투자에 있어서, 홍콩을 제외하면, 수위를 점하고 있다. 또한 일본이 上海를 중요시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상해와 홍콩을 주요 공격거점으로 하고 황해와 남지나해의 진출로써 對中日政策의 골간을 형성하고 있다.

한편 소련은 제 2차 시베리아 철도의 조기 준공,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의 제 3기 확장공사 및 일본등과의 資本・技術協力을 바탕으로 시베리아와 극동에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國民經濟體系를 건설하여 소련경제의 중심을 東方으로 이전시키기 위한 계기로 삼고자 한다.

이상의 상황으로 미루어 90년대에는

- ① 中國의 동부 연안개방지역에 上海를 축으로 하는 별도의 고도 경제발전 지역,
- ② 남으로 홍콩, 북으로 블라디보스토크 그리고 上海, 大蓮, 釜山, 東京을 축으로 하는 또 하나의 고도 경제발전지역,
- ③ 大蓮과 블라디보스토크를 東西로 하고 東京과 釜山을 중심으로 하는 고도 경제발전지역 등 3개의 經濟發展帶가 출현할 수 있다.

이상의 몇가지 經協可能性 중에서 제 2와 제 3의 구상은 東北亞 經濟協力에 있어서 韓國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 들어서면서 중국은 大蓮을 開放區로 하여 제 2의 홍콩으로 발전시킬 장기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중국이 國際大循環論에 입각한 東北亞經濟圈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韓-中經濟關係를 중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反證하고 있다. 地政學的으로 볼 때 大蓮을 黃海를 사이에 두고 韓國의 西海岸과 마주하고 있으며 동시에 東北3省의 海洋進出에 대한 중요한 관문의 하나가 되고 있다. 또한 동북3성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소련 극동지역의 개발거점과 연결되어 있으며 北韓과 이웃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이 大蓮에 대하여 커다란 관심을 보이고 중국시장 개척의 교두보로 활용하고 있는 것 역시 우연이 아닐 것이다. 여러가지 이유에서 南北韓間의 경제적 직접교류가 당분간 어려운 상황에서 東北3省地域에서의 南北韓-中國간의 3者經濟合作 역시 새로운 대안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中國 開放型 開發戰略의 이론적 배경이 되고 있는 國際大循環論은 연안지역의 개발·개방전략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韓國의 對中進出 뿐만 아니라 對北韓, 對蘇聯 經濟協力を 유기적으로 연계시킨다는 시각에서 볼 때 中國의 東北3省과 특히 遼東半島의 大蓮 그리고 山東은 전략적 거점으로써 재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V. 東北亞經濟圈과 南北韓間的 經濟交流

이상에서 우리는 亞太地域에 대한 소련의 經濟的 進出戰略과 南·北韓間的 對蘇經濟交流의 가능성을 점검해 보고, 日本, 특히 中國의 東(北)亞細亞 經濟協力에 관한 여러 구상들을 자세하게 다루어 보았다. 이러한 구상들은 그 내용이 어떠한건 相關국가들의 經濟的 開放政策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물론 北韓이 여타 社會主義國家들과는 달리 改革·開放을 유보하는 한 域內交易에 대한 北韓의 참여가능성은 일정한 한계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中國과 소련이 社會主義經濟圈에 속해 있으며 이들 두 국가가 경제개방을 촉진시키는 지역들이 韓半島와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제한된 범위내에서나마 北韓의 참여는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對北韓關係는 개선시키기 위하여 이른바 機能的 接近方法을 취하고 있는 韓國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러한 “多者間 經濟交流”은 남·북한 직접경제교류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점을 배경으로 하여 주로 中國의 東北3省地域을 연결고리로 하는 3개 相關국간의 경제교류 가능성과 방안을 개관해 보기로 한다. 北韓의 개방정책 및 무역구조에 관하여는 第2部에서 상세하게 다루어 질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중복을 피하면서 우선 北韓의 교역이 갖는 특징을 간단히 언급하기로 한다.

북한경제는 통상 閉鎖的인 것으로 간주되지만 실제로 國民經濟의 海外依存度를 살펴보면, 최소한 여타 社會主義 국가들과 비교할 때, 그렇게 낮은 것은 아니다.

〈表 4〉

南・北韓의 貿易依存度

(단위: %)

區 分	1977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남 한	56.8	66.0	71.4	66.5	66.6	72.5	73.3	69.8
북 한	17.7	25.2	20.8	23.7	19.6	18.6	-	20.7

자료: 이태욱, “북한은 바뀌고 있는가? : 경제”,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1989.

〈表 4〉에서 보는바와 같이 물론 한국의 경우와 비교하면 북한경제의 무역의존도 내지는 해외개방도는 현저하게 낮은 것이 사실이다. 1989년 현재 무역의존도는 한국의 경우 69.8%, 북한은 20.7%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중국이나 유고, 폴란드 및 헝가리 보다는 약간 낮으나 불가리아, 루마니아, 알바니아 등 보다는 북한의 경제적 개방도가 높은 것이다. 북한의 교역액은 1985년의 26억 달러에서 1986년에는 30억 달러로 15.5%의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일본의 對外貿易關係機關에서 파악한 이 자료에는 동독, 아프리카, 중동과는 무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교역규모는 이 수치보다는 높은 것이 확실하다. 〈表 5〉와 〈表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의 무역에서는 소련과 중국이 주종을 차지하고 있다. 북한 총수출에서 소련과 중국이 주종을 차지하고 있다. 북한 총수출에서 소련과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51.4%, 22.0%로 73%를 점하고 있으며, 총수입에서는 60.5%, 13.5%를 차지하여 74%를 점유하고 있다.

〈表 5〉

北韓의 國家別 輸出構造 (%, 1985)

국 가	비 중 (%)
소 련	51.4
중 국	22.0
일 본	13.2
서 독	4.8
여타 공산권국가	3.7
홍 콩	1.9
총계 (여타지역포함)	100.0

출처: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China, North Korea", Country Report, No3.1988.9.3.

〈表 6〉

北韓의 國家別 輸入構造 (%, 1986)

국 가	비 중 (%)
소 련	60.5
중 국	13.5
일 본	10.8
홍 콩	4.4
서 독	2.5
여타공산국가	2.3
총계 (여타지역포함)	100.0

출처: 上揭書

한편 非共產圈國家들 중에서는 일본과 서독이 북한의 주요 수출시장이 되고 있으며, 수입에 있어서는 일본과 홍콩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 있다. 북한의 貿易收支에는 1985년의 4억 6천만 달러에서 1986년에는 5억 3천 1백만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적자의 대부분은 소련과의 무역에서 발생한 것이다. 對蘇貿易에서 발생한 북한의 적자는 1985년 3억 달러에서 1986년에는 4억 3천 7백만 달러로 무역적자의 대부분이 소련과의 교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소련 이외에 북한의 무역적자가 크게 나타난 국가는 일본이다. 그러나 對日貿易에서 발생한 적자규모는 소련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이며 그 규모 역시 1985년의 8천 9백만 달러에서 1986년에는 2천 9백만 달러로 크게 감소하였다. 북한의 國家別 貿易에서 나타난 貿易收支의 변화는 〈表 7〉에 표시된 바와 같다.

소련은 과거 북한으로부터 광물과 금속제품을 수입했으나 근년에는 생필품, 기계류, 압연금속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특히 괄목할 만한 사실은 北韓이 소련의 원료를 사용하여 연간 5천만점 이상의 다양한 봉제품을 소련에 공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북한은 전력, 철금속, 기계제작 분야에서 소련으로부터 70개소, 이상의 설비를 제공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전력 생산시설의 60% 이상, 석유가공시설의 50%, 화학비료생산시설의 약 14%가 소련의 기술협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외에도 서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한은 소련의 極東地域開發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北韓의 참여하에 多者間의 經濟交流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은 앞 章에서 다룬 바와 같이 중국동

〈表7〉 北韓의 國家別 貿易規模와 貿易收支 (백만달러)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1985	1986	변화율%	1985	1986	변화율%	1985	1986
일 본	170.3	164.3	-3.4	259.42	193.16	-25.5	-89.10	-28.60
유 럽	61.75	72.31	17.1	62.06	79.56	28.2	-0.31	-7.25
그중:								
서 독	52.51	59.76	13.8	28.08	44.67	59.1	24.43	15.09
아 시 아	42.62	46.11	8.1	103.55	124.02	19.8	-60.93	-77.91
그중:								
홍 콩	21.16	23.50	11.1	53.05	78.47	47.9	-31.89	-54.97
싱 가 폴	6.63	8.43	27.2	24.81	27.41	10.5	-18.18	-18.98
타 일 란 드	10.83	7.59	-29.9	9.32	13.57	45.6	1.51	-5.98
사회주의국가	805.84	963.37	19.5	1,082.18	1,356.57	25.4	-276.34	-393.20
그중:								
소 련	485.12	642.02	32.3	785.50	1,078.63	37.3	-300.38	-436.61
중 국	242.00	274.73	6.9	231.00	239.54	3.5	11.00	35.19
총 계	1,081.82	1,249.75	15.5	1,541.99	1,781.09	15.6	-460.17	-531.34

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黑龍江, 吉林 및 遼寧 등 3개 省이다. 특히 黑龍江을 사이에 두고 소련과 마주하고 있는 黑河市는 건너편 블라고베시첸스크市와 국경무역을 추진하는 최고의 거점이다. 중국은 최근 하얼빈으로부터 黑河를 연결하는 철도를 신설, 소련의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접속시켰다. 이 철도는 중국의 7次 5個年計劃의 일환으로 약 3년간의 공사끝에 마무리된 것이다. 黑河는 이제 중국과 소련 뿐만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육상교통의 요충지가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역은 주로 바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규모를 확대시키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黑龍江省 당국은 이같은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중인데 제 3국인 한국이나 일본 또는 동유럽제국을 포함한 다각적인 貿易시스템의 도입이 그것이다.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에는 북한을 여기에 참여시키는 방안 역시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중국의 개방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大蓮港이 위치하고 있는 遼東반도이다. 北京의 발표에 의하면 대련 근교의 大弧山반도를 기계공업·하이테크산업을 유치, 과학기술정보센터의 기능을 갖춘 종합수출시장으로 육성, 새로운 자유항구로 만들 계획이다. 大蓮·大弧山의 자유항을 동북지역의 3개省과 내몽고 동부를 연결하는 「제2의 홍콩」으로 만든다는 계획이 그것이다.

大蓮市는 면적 64 ㎞²의 大弧山半島를 金融, 製造加工工業, 貿易分野를 망라한 大型 自由港으로 開發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開發計劃은 현재 中央에 제출되어 審査·批准을 기다리고 있는데, 自由

港의 정식명칭은 大孤山半島 經濟特區 自由港으로 하고 기존의 大蓮經濟技術開發區도 여기에 포함시켜 장차는 “第2의 홍콩”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한다. 中國 당국의 관계자에 의하면 앞으로 5年內에 開發區 면적을 10여㎞ 더 확장해서 그중 3㎞는 다양한 공업기지로 사용하고 5㎞는 外商에게 임대하며 나머지는 石油化學工業區 건설에 사용할 것이라는데, 금세기 말까지는 경제특구를 조성하여 선진기술형 외자기업을 유치할 예정이다. 또한 구내에는 科學研究機關, 情報센터 및 輸入商品市場을 설치할 것이라고 한다. 이 自由港은 東北3省 및 內蒙古自治區의 동쪽 창구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궁극적으로는 大孤山半島經濟特區 속에 포함될 기존의 大蓮經濟技術開發區에는 현재 160여개의 合資, 合作 등 외자기업이 사업을 추진중이고 총투자계약액은 4억3천만불에 이르고 있는데 그중 60%가 外資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러한 遼東반도의 개발·개방계획을 고려할때 경공업과 기계, 화학, 전자 부문에서 남북한과 중국간의 합작교류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大蓮은 중요한 거점의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소련 및 남·북한 간의 多者間 經濟交流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또한 다음과 같은 중국의 개발계획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中國은 두만강 하구의 琿春市를 經濟特區로 개발할 계획을 추진중이다.⁷⁾ 홍콩의 大公報에 의하면 琿春市는 장차 東北아시아

7) 國際民間經濟協議會, 北方經濟소식, 1989.10-16, 제21호, p.9.

의 經濟力을 흡수하여 이 지역의 貿易・輸出加工中心地로 발전시킬 것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중국정부의 계획은 최근 소련이 한국, 대만, 일본 등 태평양국가들의 企業을 유치하기 위하여 나훗카 및 블라디보스톡을 경제특구로 지정할 것에 자극받은 것으로 추측된다. 지리적으로 훈춘시는 중국, 북한, 소련과의 국경지대이면서 동시에 延邊朝鮮族自治州內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을 포함한 다자간의 경제교류를 활성화시키는데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한국기업의 입장에서는 연변 조선족 근로자들의 勞動生産性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收益性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琿春이 위치하고 있는 吉林省은 黑龍江省과 마찬가지로 소련과 활발한 무역관계를 맺고 있다. 吉林省 政府의 統計에 의하면 1988년 길림성의 對蘇貿易은 1천 2백만 스위스프랑에서 금년 상반기에는 3천 6백만 프랑으로 급신장하였다. 길림성의 東端인 琿春縣은 소련의 沿海地域과 접해 있으며 접경선은 232.7 km에 이른다. 현재 쌍방간의 교역은 주로 바터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길림성은 소련측에 옥수수, 땅콩, 과일, 통조림, 의류, 신발, 복사기, 계산기 등을 수출하고 소련으로부터는 목재, 철동재, 시멘트, 화학비료, 피아노, 냉장고 등을 수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쌍방교역의 중・장기적 확대가능성은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호보완적인 상품이 제한되어 있는데다 교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수송망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흑룡강성과 길

림성은 남·북한-중-소 간의 4角貿易關係를 연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 언급한 방안이외에도 이들 국가들은 輕工業 및 知識集約的 産業에서 상호협력이 가능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瀋陽과 天津의 立地나 開發計劃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최근에 瀋陽市는 國家科學技術委員會의 최종승인을 거쳐 하이테크 産業開發計劃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 따르면 우선 中央政府가 심양시에 건설하는 로봇트 파이러트 프로젝트, 大規模集積回路 (LSI) 기술개발센터, 감광재료기술개발 및 감응기 (Sensor) 용 전자기술개발센터 등 5개 기술개발기지를 건설하여 매년 規模經濟를 위한 대량생산이 가능하고 시장성이 높은 첨단제품을 1~2개 품목씩을 생산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심양시 과학기술위원회의 계획에 의하면 심양시는 1995년까지 50개 품목의 첨단산업제품을 개발할 계획이며 이 제품의 생산액은 약 20億元으로 예정되어 있다. 개발예정인 제품은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와 컴퓨터, 메가트로닉스, 정보기술과 동제품, 정제약품, 신소재, 레이저광선 등으로 되어 있다.

또한 경공업, 특히 방직산업이 주력산업을 이루고 있는 天津市에 최근 자동차, 전자 및 해양석유화학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어 산업구조가 지속적으로 근대화되고 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이들 새로운 3대 기간산업의 연간 생산량은 천진시 공업생산총액의 20%를 점하고 있으며, 금세기 말에는 35%에 달할 전망이다. 80년대 초부터 시작된 자동차공업은 최근 수년간 외국으로 부터 선진기술과 설비를 도입, 현재 승용차와 경자동차를 중심으로 83개사에서 연간 45,000대 (15억

7천만원)를 생산하고 있다. 자동차공업의 발전과 함께 기계가공, 전자기계부품, 플라스틱 등 업종이 발전되고 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第8次 5個年 計劃期間(1991~1995)중 전자산업의 생산액은 경공업생산액을 상회하여 천진시 최대의 산업으로 성장하여 천진시는 경공업과 중공업의 綜合工業都市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VI. 結 論

근년에 들어서면서 국내적으로는 민주화의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새로운 데탕트의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냉전적인 역학관계가 「혁명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韓半島와 같이 분단되어 있는 東西獨의 관계에 있어서 東獨이 일련의 改革・開放 그리고 자유선거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함으로써 統獨의 가능성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역시 최근에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 및 통일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정책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제영역에 걸쳐 機能的 接近을 통한 同質化를 도모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南北韓間의 經濟交流를 활성화시키는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방안이 있을 것이다. 그 하나는 두나라가 경제적인 直接交流를 통하여 貿易, 直接投資 및 資本과 技術去來를 추진하는 방안이며, 그 다른 하나는 주로 소련과 중국에서 해당국가와 南北韓이 참여하는 多者間經協方案이다. 筆者의 판단으로는 현 단계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前者보다는 後者가 상대적으로 그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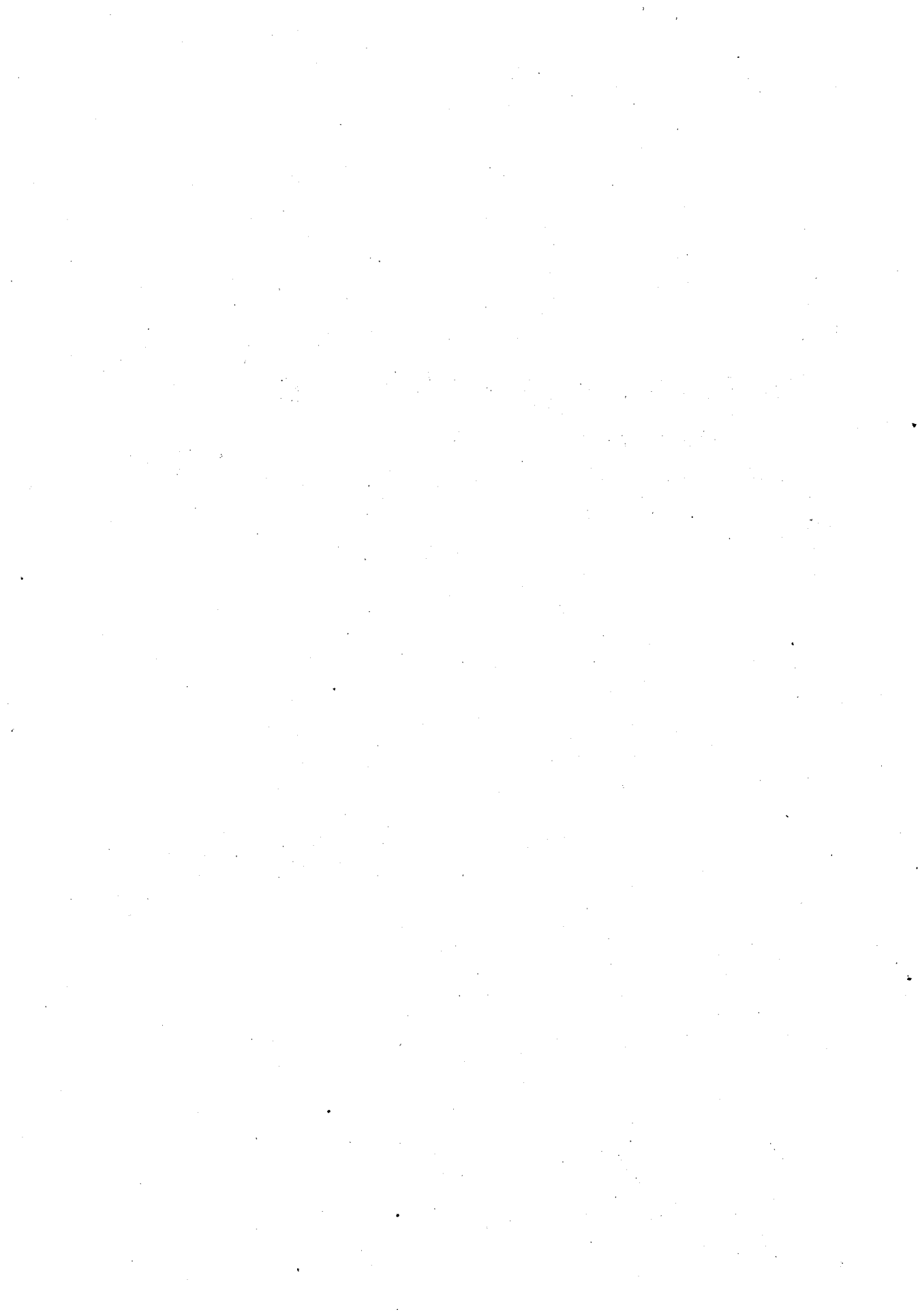
이러한 배경하에서 우리는 소련의 遼東地域과 시베리아 그리고 중국의 東北3省과 遼東半島의 地政學的 意味에 보다 높은 관심과 연구를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第 2 部〉

南北韓間의 經濟交流의 協力 推進의 基本方向

- 北韓의 改革과 開放의 可能性分析을 中心으로 -

研 究 責 任
辛 昇 哲
(漢陽大 教授)



目 次

I. 序：共產圈 社會主義의 進路	55
II. 北韓의 經濟政策方向	63
III. 轉換期的 過渡期的 「디립마」	74
IV. 政策轉換의 有限性과 段階	86
V. 政策轉換의 二重性과 特性	96
VI. 東西間 協力の 本質과 段階	108
VII. 經濟的 接近方式과 그 段階	119
VIII. 南北韓間 交流의 協力の 可能性	130
IX. 結：交流의 協力 推進方案	144



I. 共產圈 社會主義의 進路

社會主義는 세 가지 類型으로 分類된다. 그 하나는 「막스」의 社會主義로서 資本主義가 高度로 發展한 後期段階에서 出現하는 資本主義 다음 단계의 社會主義이다. 그러나 「막스」가 豫言했던 社會主義의는 資本主義를 顛覆하고 이를 繼承하는 것이었으나 現實化하지 못하고 虛構的인 것으로 끝나고 말았다. 다른 하나는 蘇聯이나 中國의 社會主義로서 經濟적으로 발전하지 못한 封建的 後進社會에서 나타난 자본주의 以前 단계의 社會主義이다. 즉 자본주의를 代身해서 經濟發展을 推進하고자 했던 第2의 經濟開發體制이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先進工業國에서 現實적으로 胎動하고 있는 社會主義로서 자본주의를 전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본주의의 矛盾을 修正하고 補完하면서 繼續 發展시켜 나가는 創造的인 社會主義이다.

長期停滯的인 封建社會를 打破하고 急速한 經濟發展을 試圖한 經濟體制에도 역시 세 가지 類型이 存在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混合經濟體制가 그 것이다. 第1의 經濟開發體制인 자본주의는 「私有財産制度에 의한 營利追求를 市場機構下에서 自由競爭의으로 遂行할 수 있는 制度를 채택해 왔다.」 그러나 뒤 늦게 經濟發展競爭에 뛰어들 사회주의는 「앞서 가는 자본주의를 追跡하기 위해서 보다 強力한 開發戰略이 要求되었다. 그리하여 國有財産制度에 의한 計劃生産을 中央集權的 計劃機構下에서 命令과 指令에 따라 수행하는 制度를 採擇하였다. 바꾸어 말하면 자본주의에 대하여 反對되거나 逆行되는 諸制度를 채택하였다.¹⁾」 그리고 第3의 形態인 混合經濟는

註 1) 辛昇哲, “社會主義 國家에서의 經濟改革”, 中蘇研究, 漢陽大學校, 1982. p.129.

兩體制를 超克한 折衷型으로 짧은 期間에 高度成長을 達成함으로써 급기야는 社會주의를 追越하여 新興工業國 (NICs)으로 進入하게 되었다. 資本主義體制를 採擇한 先進工業國은 持續的인 經濟發展을 하는 가운데, 無政府的 過當競爭으로 인한 過剩生産과 分配上的 歪曲으로 인한 過小消費 현상이 誘發됨으로써 週期的인 經濟恐慌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市場의 失敗 (Market failure)를 克服하기 위하여 公共部門 (Public Sector)을 擴大하거나 經濟計劃 (Economic Planning)을 하는 등 政府干涉을 增大시키는 體制改革을 斷行하게 되었다. 말하자면 자본주의의 모순을 사회주의적인 要素를 導入하여 克服함으로써 보다 加速的인 高度成長을 이룩하게 되었다.

社會主義體制를 채택한 소련, 중국 및 東歐諸國은 初期에는 比較的 높은 성장을 順調롭게 達成하였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成長은 鈍化하고 또 다른 형태의 長期停滯 또는 貧困의 惡循環에 빠져들게 되었다. 말하자면 誘因不在 (Non-incentive)로 인한 硬直性 (Rigidity)과 非效率性 (Inefficiency)이 蔓延하게 됨으로써 計劃의 失敗 (Plan failure)를 맞게 되었다.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기 위하여 制限的이고 部分的인 對內的 經濟改革을 단행하는 하였으나, 이러한 對症療法的인 改革은 오히려 또 다른 副作用만을 誘發시킴으로써 兩體制間의 經濟力 隔差는 더욱 더 擴大되었다. 그리하여 社會主義제국은 體制競爭에서의 敗北를 認定하면서, 對內的으로는 자본주의적 要素를 도입하는 經濟改革을 단행하고, 對外的으로는 西方世界의 資本과 技術을 도입하는 開放政策을 推進하게 되었다. 말하자면 자본주의로 收斂化하는 過程을 밟기에 이르렀고 이를 통하여 經濟發展의 再起를 圖謀하고자 하는 것이다.

體制改革도 일반적으로 體制內的 同質變化, 體制內的 異質變化, 그리고 體制外的 異質變化라는 3段階 過程을 밟는다.²⁾ 體制內的 同質變化란 「테크노크라트」型 改革 (Technocratic Reform)으로서 體制的 基本理念과 基本原理를 그대로 維持하면서 그 矛盾點만을 修正補完하는 改革을 말하며, 體制內的 異質變化란 체제의 基本理念은 그대로 固守하면서 基本原理의 一部分을 다른 體制的 원리를 도입하여 變質시킴으로써 다른 體制와 더불어 收斂化되어 가는 改革을 말한다. 그리고 體制外的 異質變化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基本構造的 바탕 그 자체가 改變되면서 체제의 基本理念과 基本原理 모두가 變革되는 현상을 말한다.

先進工業國家에서 1930年代 大恐慌 以後에 나타난 현상 즉 自由放任이 政府干涉으로, 市場의 失敗가 經濟計劃의 導入으로 그리고 供給側 重視의 原理가 需要側 重視의 原理로 補完되는 등 經濟運營의 원리나 經濟哲學의 力點이 轉換된 현상은 第2段階의 改革過程인 것이다.

第3段階의 改革過程은 産業革命이라는 近代化過程을 통하여 第1次産業社會인 農業社會가 第2次産業社會인 工業社會로 轉換되었거나, 技術革命이라는 情報化過程을 통하여 高度産業社會가 第3次産業社會인 用役社會 (Service Society)로 發展하면서 新體制가 形成되어 가는 過程을 말한다. 사회주의국가 특히 中國과 蘇聯은 종전까지는 제 1 단계의 改革만을 단행했었으나 1980年代에 들어오면서 제 2 단

註 2) 辛昇哲, “比較經濟體制面에서 본 制度變動의 推移”, 經濟研究, 漢陽大學校, 1988, p.92.

계의 改革을 실시하고 있다. 즉 重工業優先體制에서 輕工業生產重視로, 國公有制를 民有民營制로, 中央集權的 計劃經濟를 地方分權이나 市場機構의 導入으로, 命令에 의한 管理制度를 獨立採算制에 의한 自律管理로, 平等分配制度를 成果主義分配制度로, 그리고 自給自足的 閉鎖經濟를 對外協力的 開放經濟로 移行시키는 등 多角的인 改編이 進行되고 있다. 그러나 北韓에서는 아직도 第1段階의 改革만을 실시할뿐 第2段階의 改革에 대해서는 忌避하는 態度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북한은 가장 教條的이며, 閉鎖的인 計劃經濟體制를 維持하고 있는 落後된 社會主義가 되고 말았다.

人間社會 전체를 規制하는 하나의 틀 (Framework)인 總體的 體制 (Total System)도 政治體制, 經濟體制 및 社會體制 등 3元的 下部體制 (Sub-system)의 總和로서 이루어지고 있다.³⁾ 이것은 인간의 行爲가 政治, 經濟 및 社會行爲 등 3元的 樣相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하부체제가 相互間에 緊密한 相關關係를 가지면서 均衡調和的인 發展을 할 때, 한 國家나 社會는 安定的인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소련에 있어서 從前까지의 第1段階의 改革은 政治나 社會的 改革은 손도 대지 않은 채 經濟的 改革만을 斷行한 것이었으며, 그것도 需要側面을 渡外視한 供給側面에 局限된 斷片的인 改革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러나 最近에 進行되고 있는 第2段階의 改革인 「 페레스트로이카 」 (Perestroika)나 「 그라스노스트 」 (Glasnost)는 政治, 經濟 및 社會的 改革을 同時에 進行시키고 있는 총체적 變革 (To-

註 3) 辛昇哲, 上揭書, pp.78-81.

tal Transformation)의 性格을 띠고 있다. 이와같이 下部體制가 同時的으로 改革될 경우 相反된 두가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 하나는 改革의 肯定的 效果가 補完的 相乘作用을 함으로써 安定的 바탕위에서 改革過程이 加速化되는 현상이다. 다른 하나는 反對로 否定的 效果가 補完的 相乘作用을 함으로써 오히려 改革의 進行을 가로막는 현상이다. 따라서 下部體制間에는 一定한 時差를 두고 改革을 함으로써 相互補完的 調和를 期하는 것이 理想的이며 특히 先經濟改革 後政治改革이 所望스럽다. 經濟改革의 進行은 經濟成長의 促進과 生活水準의 向上이라는 肯定的 效果를 가져 왔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財政赤字, 物資不足, 物價上昇 및 失業增大라는 각종 「버틀네크」는 물론 私有概念 擴充에 따른 不正腐敗라는 각종 病理的 현상까지도 誘發되어 왔다. 이로 인하여 改革이 進行되면 될 수록 從前까지 經驗하지 못하였던 新種 難題들이 果積되었고, 그 결과 改革派의 弱勢와 保守派의 強勢라는 逆轉現象이 일어남으로써 改革에 대한 制動作用이 걸리게 되었다.

이러한 逆境을 克服하자면 보다 果敢한 改革의 基盤을 造成할 수 있는 政治的 改革이 斷行되어야만 한다. 만일 政治改革을 기피하거나 抑壓한다면 經濟改革은 逆流過程을 밟게 된다. 政治改革의 重要性은 選舉制度의 改革과 같은 外形的 變化에 있는 것이 아니라 民主化의 進行과 一黨獨裁體制의 崩壞라는 內面的 變化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政治改革이 實行된다면 또 다른 새로운 政治的 難題들이 突發하게 된다. 이러한 後續的인 障礙物을 除去하자면 보다 과감한 次元높은 體制改革, 특히 對外開放擴大政策이 이루어져야 한다.

改革政策을 일찍부터 추진해 온 東歐 특히 헝가리와 폴란드 그

리고 유고 등에 있어서는 第2段階의 對內的 經濟改革이 順調롭게 進行되고 있고, 政治改革에 있어서는 多黨制에 의한 議會政治가 出現하면서 共産黨一黨獨裁體制가 서서히 무너져 가고 있으며, 앞으로는 그 後續措置로서 擴大開放政策이 적극적으로 實施될 것이다. 經濟改革과 政治改革을 併行的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련에 있어서 經濟的으로는 對內的 改革은 不振狀態에 있음에도 不拘하고 「시베리아」開發을 위한 對外開放政策만이 表面에 浮上하고 있으며, 政治的으로는 保守派의 抵抗과 더불어 強硬改革派의 攻勢로 苦戰하는 가운데 民族的 自治와 民主化를 要求하는 소리만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先經濟改革 後政治改革을 標榜하고 있는 中國에 있어서 經濟改革과 開放의 성과는 어느정도 거두고 있으나, 政治改革의 기피로 인하여 社會的 混亂이 加重되고 있고 內部的 緊張이 高潮되는 가운데 逆流現象의 기미마저 보이고 있다.

북한은 金日成 執權以來 40여년 동안 줄곳 教條的 「스타린 모델」만을 固守해 왔고, 一黨獨裁 또는 父子世襲制를 正當化하기 위한 一家獨裁體制만을 強化해 왔다. 그리고 金日成의 통치기반인 主體思想은 北韓經濟가 韓國에 比하여 相對적으로 落後되면 될 수록 또는 國際舞台에서 韓國의 地位가 상대적으로 格上되면 될 수록 더욱더 強化되어 왔다. 換言하면 북한은 아직도 南侵赤化野慾을 버리지 않은채 국제무대에서의 解氷「무드」와 共産圈社會에서의 改革과 開放政策에 대하여 外面하면서 時代的 潮流에 逆行하고 있다.

共産圈 社會主義諸國의 體制改革의 先例에 있어서 對內的 改革은 必然的으로 對外的 開放을 수반하였으며, 經濟改革은 必然的으로 政治改革을 同伴하였다. 그리고 政治改革은 곧 共産黨一黨獨裁體制的 崩

壤의 多黨制議會政治를 통한 民主化와 脈을 같이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諸要因이 金日成父子로 하여금 現狀變化를 忌避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改革과 開放을 推進하지 않을 수 없게끔 外部로부터의 壓力이 계속되고 있으며, 內部的으로도 現狀打破를 바라는 階層의 목소리가 점차 고개를 들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皮相적으로 消極적인 改革과 開放의 흉내만을 내어 왔으나 앞으로는 서서히 그리고 慎重하게 政策的 轉換을 試圖하게 될 것으로 展望된다.

이와같이 볼 때 南北韓間의 接觸이 비록 同民族異體制間의 經濟交流와 協力일지라도 그것이 가장 教條적이고 閉鎖적인 社會主義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重要的 것은 먼저 北韓을 올바르게 認識하는 것이다. 그래서 本 論文에 있어서는 먼저 前半部에서 北韓의 現實을 分析하고 다음 後半部에서 南北韓間의 協力方案을 檢討하고자 한다.

北韓을 認識하기 위한 先行的 分析은 다음과 같은 네 부분으로 區分된다.

첫째, 經濟計劃의 進行過程과 더불어 開發戰略을 살펴보고, 基本政策路線에 따른 여러가지 問題點을 分析하면서 앞으로의 政策方向을 把握하고 豫示하려 한다.

둘째, 經濟基盤으로 삼고있는 主體思想 또는 主體經濟의 非現實性을 導出하여 現狀打破의 不可避性을 여러 角度에서 分析하고자 한다.

셋째, 政策轉換이나 體制改革에 대하여 다른 社會主義의 先例와 比較하면서 北韓의 特殊性으로 인한 政策轉換의 有限성과 改革과 開放의 段階化를 具體적으로 提示하고자 한다.

넷째, 北韓社會에서 은밀히 進行되고 있는 政策方向의 轉換을 위

한 論爭과 갈등관계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改革과 開放政策의 特性을 分析하고자 한다.

南北韓間의 경제교류와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檢討는 다음과 같은 세 부분으로 分類된다.

첫째, 異民族異體制와 同民族異體制間의 交流와 協力에 있어서 그 本質과 視角差 그리고 그 段階와 形態에 관하여 研究分析한다.

둘째, 經濟的 接近에 그 方式과 段階를 一般的 類型과 分斷國 類型으로 區分하여 分析하되 특히 獨逸型을 重點적으로 分析하여 南北間에 利用可能한 方案을 導出하고자 한다.

셋째, 南北韓間의 交流와 協力の 可能性을 産業構造, 資源構造 및 貿易構造 등 構造的 條件과 周邊情勢의 變化, 北韓의 當面課題 및 對南協力の 姿勢 등 政策的 條件을 中心으로 分析한다.

이러한 分析을 土台로하여 南北韓間의 利用可能한 協力方案을 導出하고자 한다.

II. 北韓의 經濟政策方向

가. 計劃段階와 基本戰略

北韓은 半封建的이며 식민지적인 跛行的 經濟構造로부터 社會主義的 經濟體制로의 直接的인 전환을 단행하였으며, 自立的 民族經濟 基盤을 구축하기 위하여 自力更生原則을 基本政策路線으로 채택하여 왔다. 그리고 이를 보다 效果的으로 遂行하기 위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圖表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5段階에 걸친 經濟計劃을 실시하여 왔다.

<圖表 1> 北韓의 經濟計劃段階

段 階	計 劃 期 間	特 性	備 考
1 (45-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第 1 次 1 個年計劃 (47) ○ 第 2 次 " (48) ○ 第 1 次 2 個年計劃 (49-50) 	社會主義體制 形成期	'45~'46 年은 조정기간
2 (54-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第 1 次 3 個年計劃 (54-56) ○ 第 1 次 5 個年計劃 (57-60) 	戰災復舊와 社會主義 移行完成期	5 個年計劃을 앞당겨 '60 年에 完成
3 (61-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第 1 次 7 個年計劃 (61-70) 	社會主義體制 確立期	3 년간 연장, '70 年에 完成
4 (71-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第 1 次 6 個年計劃 (71-76) ○ 第 2 次 7 個年計劃 (78-84) 	停滯期進入과 政策轉換의 起點化 (社會 的緊張의 高潮)	계속되는 失敗로 '76-77 과 '85-86 두번의 조정기간
5 (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第 3 次 7 個年計劃 (87-93) 	新政策의 方向 모색	過渡期的 「디렉 마」

第1段階('45~'50) : 이 期間에 土地改革과 主要産業國有化를 斷行하여 대부분의 生産手段을 國家手中으로 集中시켰으며, 세번에 걸친 年次計劃을 實施하여 基本生産手段의 所有制를 全面的으로 改編함으로써 社會主義體制를 形成하였다. 그리고 韓國에 對比한 經濟力의 優位를 背景으로 하여 韓國戰爭을 準備하고 實行에 옮겼다.

第2段階('54~'60) : 共產圈諸國의 支援으로 戰災를 復舊하는 한편, 1958 年末까지 社會主義的 改造를 완료하였다. 즉 産業施設의 全面的 國有化, 農業의 協同化를 통한 集團化, 그리고 商業流通部門의 社會主義的 集團化 등으로 社會主義的 移行을 완료함으로써 自立的 民族經濟의 토대를 축성하였다.

특히 이 期間에 北韓內部에서 「스타린」格下運動의 影響으로 重大한 路線對立이 惹起되었다. 金日成은 嚴格한 思想的 統制와 政治的 肅清 그리고 극단적인 社會改造 및 大衆動員運動 등의 多角的인 抑壓策으로 이 難局을 克服하였다. 그러나 資金과 原資材의 不足으로 經濟建設은 어려웠고, 궁핍한 生活苦로 大衆들의 不滿은 높아졌고, 中·蘇間의 紛爭으로 援助가 減少되고 있었다. 이러한 狀況에 대처하기 위하여 金日成은 勤勞大衆들의 自覺的 熱意와 創造力을 發揮시켜 生産과 建設을 促進시킨다는 美名下에 「천리마運動」을 전개하였다. 이에 힘입어 第1次 5 個年計劃을 1年 앞당겨 1960 年에 完成되었고 그 결과 계속해서 한국보다 優位의 經濟的 地位를 유지할 수 있었다.

第3段階('61~'70) : 第1次 7 個年計劃은 사실상 최초의 本格的인 經濟計劃이며, 이 기간의 主目的은 經濟建設에 注力하여 社會主義工業國으로 成長함으로써 社會主義體制를 確立하는 것이었다. 그리

하여 重工業優先의 發展戰略이 強力하게 추진되었으며, 새로운 經濟管理制度로서 農村에서의 「청산리방식」과 公업에서의 「대안체계」 등이 채택되었다.

특히 이 기간에 있어서는 韓國의 軍事革命, 쿠바사태, 中·蘇理念紛爭, 월남戰爭, 韓·日協約締結, 中國의 文化大革命 등 國際的 긴장상태가 고조되었다. 그리하여 북한은 經濟建設과 國防建設의 併進路線을 채택하고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四大軍事路線에 따라 國防費를 大幅 증액하는 등 政治·軍事優位型 經濟建設體制로 移行하게 되었다.

第1次 7個年計劃은 이러한 國際的 環境惡化나 國防費增額 이외에도 社會主義的 改造가 빚어낸 體制的 矛盾이나 또는 自然災害로 인한 農業不振 등으로 失敗하게 되었다. 計劃의 失敗를 극복하기 위하여 計劃期間을 3年間 延長하면서 이 期間에 「一國共產主義理論」 「加速度經濟成長理論」 그리고 「唯一主體思想」 등을 새로운 基本理念으로 구축하였다.

그러나 같은 期間에 韓國은 第1次 및 第2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을 成功的으로 수행하고 自生的인 成長의 原動力을 갖추게 되었다. 그 결과 60年代 후반을 轉換點으로 하여 南北韓間的 經濟的 優劣關係가 逆轉되었으며, 그 이후 이러한 간격은 더욱 더 加速的으로 擴大되어 왔다.

第4段階('71~'86) : 70年代에 시작된 第1次 6個年計劃에 있어서는 經濟成長의 지속적 鈍化와 南北韓間的 經濟的 격차를 認識하면서 더욱더 強壓的인 방법으로 대규모사업을 展開하기에 이른다.

金正日 主導下에 思想·技術·文化의 3大革命運動을 전개하고 「速

度戰」「電擊戰」「織滅戰」 등을 배경으로 하여 計劃의 도중변경을 하게 된다. 환언하면 「10大展望目標」를 設定하고 勞動을 強制動員하는 속도전을 전개하였다.⁴⁾

이와같이 主體思想에 의한 「全社會의 一色化」라는 총돌격전을 強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次期計劃을 發足시킬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副作用만을 誘發하고 第1次 6個年計劃은 失敗로 끝나고 말았다.

經濟 各部門間的 不均衡, 모든 資源의 歪曲된 配分, 物資와 生産要素의 絶對不足, 그리고 膨脹된 輸入代金の 支拂遲延 등 여러가지 不調和 現象이 表出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内部的 矛盾이 金正日의 세습 후계화과정과 더불어 더욱더 深化됨으로써 北韓經濟는 70年代 중반부터 停滯狀態에 進入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70年代 中반이 事實상의 政策轉換의 基點이 되어왔다.

그러나 70年代 후반에 시작된 第2次 7個年計劃에 있어서도 經濟의 「主體化」「現代化」 및 「科學化」에 基本目標을 두고 오히려 社會主義的 經濟土台를 더욱 強化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輕工業 育成과 消費財生産의 增大로 大衆生活의 向上을 도모하겠다고 主張함으로써 政策路線의 表裏가 不同한 二重性은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특히 80年代에 들어서 金正日是 大記念碑的 建造物의 건조 운동을 추진하는 한편 「10대 전망목표」중의 일부만을 優先課題로 選定하고 그 早期達成을 위한 速度戰型의 勞動動員을 더욱 強行하였다. 이와같은 党的 지나친 干涉과 甘言利說的 欺瞞으로 당초부터

註 4) 10大展望目標란 計劃經濟에서의 主要事業目標을 말하는 것으로써, 動力, 石炭, 鐵綱, 非鐵金屬, 시멘트, 化學肥料, 織物, 水産物, 穀物 및 干拓地 개간 등을 말함

많은 問題點을 안고 출발하였던 第2次7個年計劃도 결국은 失敗로 끝나고 또 다시 2年間の 調整期間을 갖게 되었다.

특히 80年代 중반에 있어서는 中國의 改革과 開放政策의 成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소련도 「고르바초프」의 執權으로 改革과 開放政策이 本格的으로 着手되었으며, 東歐에서도 소련의 懲憑과 自主路線에 대한 寬容으로 改革과 開放政策이 急進展하게 되었다.⁵⁾ 바꾸어 말하면 80年代 중반부터 改革과 開放政策이 社會主義國家의 새로운 基本政策路線으로 채택되었다. 그리고 韓國은 3低現象으로 인한 高度成長으로 貿易收支 赤字國에서 黑字國으로 전환되었으며, '86 「아시안게임」의 成功的 完遂 등으로 國際的 地位가 크게 向上되었다.

이러한 社會주의진영의 動靜과 韓國의 位相格上은 北韓을 초조하게 하였고, 그결과 現狀維持派와 現狀打破派間的 대립이 야기되는 등 社會的 緊張이 高潮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北韓은 社會주의진영의 基本路線과 副應하면서 韓國의 優位를 牽制할 목적으로 合營法을 제정하고 대의개방정책을 標榜하게 된다. 그러나 開放政策은 對內的 改革을 同伴하지 않는 것으로서 처음부터 많은 問題點을 안고 시작되었다.

第5段階(87~현재) : 第3次7個年計劃은 社會주의의 完전 勝利를 위한 物理的 技術的 토대구축이라는 「테마」의 선정으로 출발되었다. 그러나 이를 實現하기 위한 基本課業으로서는 (1) 技術改造로 現代的 工場을 건설하여 生産能力을 제고시키고 (2) 衣食住의 圓만한

註5) 「고르바초프」는 Breznev Doctrine (主權制限措置)을 緩和.

解決으로써 物質文化生活의 轉機를 마련하며 (3)年平均 10%의 工業成長으로 國民所得을 1.7倍 증대시키고 (4)對外貿易規模를 3.2倍 擴大시킨다는 등의 改革과 開放의 意志를 表明한 과업을 선정하고 있다.

80年代 후반 특히 最近에 와서는 서울 올림픽을 契機로 하여 한국의 北方政策이 積極적으로 추진되면서 공산권과의 關係가 개선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中國과 소련의 한국에 대한 經濟的 接近이 두드러지게 強化되고 있다. 美國과 소련의 「데탕트」가 加速化되어 軍備縮小會談이 順調롭게 進行되고 있고, 中國과 소련간의 和解로 兩國關係가 正常化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周邊情勢變化에 자극을 받은 北韓은 그 劣等意識의 發露로서 오히려 逆理的 反作用現象마저 나타내고 있다. 말하자면 「수도 대건설사업」의 展開라든가 「200일 戰開」라는 속도전을 등장시킴으로써 現象變化 보다는 現象固守 쪽으로 偏向하는 인상을 풍기고 있다. 이와같이 北韓은 進退兩難이라는 過渡期的 「디렘마」상태에 놓여 있으며, 앞으로의 새로운 政策의 方向을 모색하고는 있으나 아직도 五理霧中 속에서 方向을 設定하지 못하고 있다.

나. 政策路線과 運營原理

北韓이 채택해 온 經濟開發路線은 自立的 民族經濟論으로 總稱할 수 있으며 이의 4대원칙은 「主體思想解說」에서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1)自力更生の 原則 (2)自己完結型 綜合的 發展 (3)技

術的 自立 (4)原料 및 燃料基地 形成 등으로 되어 있다.⁶⁾

自力更生の 原則은 反帝國主義를 주장하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不可避한 선택이겠으나, 對外依存的 開放政策에 입각하여 外資導入과 輸出主導型 戰略으로 경제개발에 성공한 新興工業國들의 事例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閉鎖的 政策路線은 엄청난 犧牲의 強요인 것이며 또한 國際的 相互依存性的 深化라는 時代的 潮流에도 逆行되는 處事인 것이다.

經濟를 多面的이며 綜合的으로 發展시켜 自己完結型 自立經濟를 達成한다는 것은 매우 所望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自給自足型의 經濟는 美國과 같은 經濟大國이며 동시에 經濟當國에 있어서나 可能한 것이며,⁷⁾ 資源이 貧弱하고 資本이 不足하며 技術水準이 낮고 市場이 狹小한 國家에 있어서는 非現實的 路線으로써, 오히려 浪費와 非能率만을 誘發하며 終局에 가서는 停滯現象을 招來하게 되는 것이다.

技術的 自立이 經濟的 自立에 있어서 不可缺한 要素이며, 技術의 革新이 經濟의 安定的 發展에 있어서 關鍵이라는 것은 正論이다. 그러나 先進工業國과 後進開發途上國間의 技術隔差가 날로 커져가는 오늘날의 추세에 비추어 볼 때, 開發國이 先進技術을 導入하여 이를 蓄積하고 土着化하면서 自力에 의한 技術開發能力을 培養하는 先行的 準備過程이 없이 技術的 自立을 達成한다는 것은 不可能한

註 6) “主體思想解說”, 平壤外國文出版社, 「조선자료」 1984年 8月號

7) 經濟大國이란 地大, 人多, 物博의 資源이 많고 市場이 큰 경우를 말하고 經濟富國이란 經濟가 高度로 發展하여 資本과 技術이 풍부한 國家를 말한다.

일이다.

持續적이고 安定的인 經濟成長을 하자면 「에너지」 및 原資材의 安定的인 確保가 絶對的인 要素이다. 그러나 資源貧國으로서 國際分業에 따른 協力を 의면하면서 工業化를 추진하거나 또는 不足한 資本을 多部門에 고루 配分한다는 것은 「規模의 經濟」實現을 어렵게 하고 國際競爭力만을 弱化시키는 결과를 招來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같이 北韓의 開發戰略은 현실적 여건을 度外視한 채 理想型만을 追求하고자 하는 政治的 幻想에 立脚한 것이었다. 물론 이러한 政策路線이 궁극적으로 追求되어야 할 正道인 것은 사실이나 問題는 이것에 지나치게 執着하고 無理하게 強行하는데에 있다. 말하자면 自己中心的인 主體만을 앞세우면서 國際的인 協力を 度外視하는 閉鎖的 「엔크루저」(Enclosure)를 指向하는 것이었다. 그러기 때문에 北韓의 計劃經濟는 처음부터 잘못된 軌道위에서 출발한 것이었으며, 따라서 이로 인하여 誘發된 副作用을 物理的 抑壓으로 抑制하면서 開發戰略을 強行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 결과 하나의 不條理가 또 다른 不條理를 낳는 非理의 연속이 不可避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理想과 現實의 乖理가 더욱 더 擴大되면서 (1) 思想과 政治의 優先主義 (2) 大規模 新規建設事業의 重視 (3) 速度戰型의 大衆勞力動員 (4) 獨善的 自己本位 (5) 對南赤化戰略을 위한 군사력 증강 등의 北韓 特有的 經濟運營原理가 나오게 되었다.

첫째, 思想과 政治의 우선주의.

經濟計劃이 黨에 의한 介入으로 途中變更되는 현상이 하나의 常例로 되어 왔다. 이것은 곧 黨의 絶對적 優位에 입각하여 經濟的

原理를 무시하는 처사였던 것이다. 즉 計劃經濟의 共通되는 硬直性
과 非能率性 그리고 沈滯性이라는 矛盾을 思想과 政治的인 物理的
強制로써 克服하려는 北韓 특유의 방식이었다. 그러나 党的 恣意的
인 統制와 動員方式은 오히려 計劃經濟의 一定한 최소한의 合理性
마저 破壞하는 결과를 招來하고 말았다.

둘째, 大規模 新規 建設事業의 重視.

計劃의 不振이나 失敗를 僞裝하거나 挽回하기 위하여 거창한 「10
大 展望目標」를 設定하였고, 父子世襲體制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
여 大記念碑的 建造物 造成事業을 着手하였고, 韓國에 대한 열등의식
을 拂拭하고 優位를 誇示하기 위하여 「수도 大건설사업」을 전개하
였다. 이러한 突發的인 사업의 전개로 計劃事業의 蹉跌은 물론 既
存施設의 老朽化와 技術의 落後化는 면키 어려웠다. 특히 非生産的
建設事業의 전개로 인한 生産不振現象은 不足의 經濟(Economy of
Shortage)를 惡化시켜 物價上昇을 誘發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經濟全體가 沈滯되었음은 물론 일반대중의 生活水準이 低下되는 貧
困의 惡循環을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셋째, 速度戰型의 大衆勞力動員.

속도전 방식은 50년대 후반의 「천리마운동」으로부터 시작하여 80
년대의 「200일戰鬪」에 이르기까지 강제노동 동원의 手段으로서 定
着되어 왔다. 그러나 大衆勞動을 강제동원하면 할 수록 製品의 品
質은 低下되고 物量的 數量만이 중시되어 製品의 高級化나 多樣化
는 기대할 수 없게 되었으며, 經濟의 內包的 成長(Intensive
growth)은 도외시된 채 오로지 外延的 成長(Extensive growth) 方
法만이 追求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大衆들의 勤勞意慾喪失(Work

disincentive)만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말하자면 自家撞着的인 自己矛盾으로 인하여 成長의 原動力마저 減退되기에 이르렀다.

넷째, 獨善的 自己本位.

「공장 하나를 세우더라도 우리들의 방식으로 건설하고, 과학기술도 우리들의 방식으로 발전시키고, 경제관리문제도 우리들의 방식으로 해결한다」라는 表現에 있어서 「우리들의 방식」이란 곧 獨善的 自己本位를 強調하는 단적인 實例이다. 이러한 獨善的 자기본위는 思想的 主體, 政治的 自主, 經濟的 自立 그리고 軍事的 自衛라는 主體思想으로 直結되며, 특히 主體經濟는 海外資本과 技術에의 最小依存, 生産不可한 機械와 原資材에 局限된 輸入, 最低水準으로의 民間消費抑制, 軍事的 要求(Military Requirement)에의 優先的 資源配分 등으로 特徵지워 진다. 그리고 이러한 主體思想은 金正日의 權力承繼가 絕對的이라는 「主體의 血統理論」으로 연결됨으로써 經濟改革과 開放政策에 대한 絕對拒否的 態度를 誘發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獨善的 自己本位는 党的 絕對性과 無條件性에 대한 강요된 服從을 요구하는 手段으로써, 創意性과 批判力 그리고 改革意志를 鈍化시키는 根幹이 되고 있다.

다섯째, 對南赤化戰略을 위한 軍事力增強.

北韓은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對南赤化統一의 野慾을 버린적이 없으며, 大衆生活의 犧牲을 강요하면서까지 軍事的 優位를 계속 維持하여 왔다. 그러기 위해서는 엄청난 군사비의 支出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로 인하여 經濟發展의 低調現象은 免할 수 없었다.

특히 北韓은 正統的이고 極左的인 教條的 社會主義路線을 固執하

면서 革命戰爭의 輸出이나 「테러」行爲만을 恣行함으로써, 社會主義 諸國의 脫「이데올로기」와 和解「무드」에 입각한 平和共存 즉 新 路線에도 逆行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好戰的 「이미지」때문에 北 韓은 스스로가 국제무대에서 孤立을 自招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北韓은 矛盾이 無理를 낳고, 無理가 矛盾을 낳는 惡循環만을 되풀이 하면서 「強行과 後退」라는 混迷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말하자면 順理와 時流에 逆行하는 政策을 強行함으로써 스스로 後退하게 되는 自己崩壞의 危機局面을 造成하여 왔다.

Ⅲ. 轉換期的 過渡期的 「디렘마」

가. 主體經濟의 非現實性

北韓에 있어서의 計劃經濟의 基本原理는 慾求充足 보다는 軍事力強化를 위한 自給自足體制 (Autarky)의 實現을 目的으로 한 것이었다. 그것도 中·蘇間의 對立 渦中에서 生存하기 위한 政治的 動機에서의 自主路線의 채택임과 동시에, 外部의 支援없이 自力으로 建設하기 위한 經濟的 動機에서의 自力更生路線의 채택이었던 것이다. 換言하면 計劃의 原理를 內向的이며 閉鎖的인 自己保存성에 두고 있었고, 이러한 自己保存性向이 主體思想으로 發展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前述한 바와 같이 自立的 民族經濟論에 입각한 開發戰略은 現實的 與件을 無視한 理想的 幻想을 追求하려는 것에 不過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생겨난 北韓特有的 經濟運營原理는 矛盾과 無視 또는 強行과 後退라는 惡循環만을 되풀이 시켰으며, 그리고 그 原理 自體가 順理와 時流에 逆行하는 것이어서 自己崩壞의 危機局面만을 造成하여 왔다. 이러한 發展의 限界性이 露出된 것은 主體經濟의 非現實性으로 인한 缺陷은 물론, 보다 根本的으로는 소련형 經濟 (Soviet Type Economies = STEs)가 本質적으로 갖고 있는 결함에 의한 것이었다. 즉 意思決定權의 過度한 中央集權化, 私有가 認定되지 않는 「인센티브」결여와 創意性不在, 지나치게 강요되는 過重한 目標量設定, 垂直的 命令體系와 水平的 協力の 결여, 稀少性を 反映하지 못하는 價格과 非現實的 物價體系, 計劃樹立의 政治性化와 複雜한 行政體系 등이 바로 그것이다.

北韓經濟는 이러한 발전의 限界性으로 인하여 對內外的으로 새로운 問題點에 直面하게 되었다. 대내적으로는 經濟構造의 再調整과 經濟管理體制의 現實化, 大衆生活의 向上을 통한 落後된 生産性의 提高, 그리고 各種 병목현상(Bottleneck)의 解消와 經濟運用의 伸縮性提高 등을 위한 改革이 要求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經濟의 活性化를 위한 資本과 技術을 導入하고, 不足의 經濟를 謀免하기 위한 經濟交流를 擴大하고, 孤立化에서 벗어나 相互利益을 增進하기 위한 經濟協力の 擴大 등이 要求되고 있다.

改革과 開放에 대한 要求는 韓國의 北方政策推進이나 中國과 소련의 새로운 政策路線으로부터 커다란 影響과 刺戟을 받으면서 더욱더 增幅되어 가고 있다. 이로 인하여 强壓的이고 閉鎖的인 開發戰略에 대한 認識의 變化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現狀을 打破하려는 새로운 氣運이 胎動하고 있는것 같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改革派의 勢力은 微塵하며 經濟가 막다른 危機局面까지 도달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政策轉換은 遲延되고 있다. 그러나 北韓 經濟가 계속 惡化되어 가는 過程에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의 對策이 强究되지 않으면 안될 轉換期的 過渡期에 直面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와같이 北韓이 전환기적 과도기에 처하여 있으면서도 現狀固守를 고집함으로써 惹起되는 沈滯와 混亂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韓國에서 制度改革이나 政策轉換過程에서 惹起되는 混迷와 漂流狀態가 成長을 鈍化시키고 있다는 사실과 좋은 對照를 이룬다.

北韓의 計劃經濟는 政治가 經濟를 一方的으로 規制하고 있기 때문에 經濟 그 自體의 自律性이나 合理性은 매우 낮다. 더우기 主

體思想體系가 철저하게 固守되고 있기 때문에 體制修正에 대해서는 極히 外面的이며, 비록 體制變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獨裁型的 強制的 社會主義體制가 갖는 限界性으로 인하여 그 隔이 좁고 制限的이며 體制內的이고 低速한 變動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北韓에 있어서 政治的 變革이 없는 經濟的 改革은 期待할 수 없으며, 經濟的 改革이 없는 對外開放도 期待하기 어렵다. 이렇게 볼 때 北韓에서의 모든 變革이나 改革은 政治에서부터 始作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近間에 進行되고 있는 事態進展은 主體思想體制가 더욱 더 鞏固하게 強化되는 逆現象으로 나타나고 있다. 환언하면 政治的 變革이 最後의 「마지노線」(Maginot Line)과 같은 難攻不落의 牙城으로 변모하여 가고 있다. 이와같이 改革과 開放을 遲延시키는 根源은 主體思想 強化에 있으며, 이는 곧 時流에 逆行하는 非現實的인 處事인 것이다.

經濟開發에 있어서의 「스타린 모델」은 본래 소련에 있어서 社會主義革命을 資本主義國家로부터의 侵略에서 保獲하기 위한 動機에서 채택된 것이었다. 그러나 北韓에 있어서는 韓半島의 赤化統一을 위한 攻擊手段으로서 채택되었으며, 最近에 와서는 金日成父子의 세습체제를 강화하고 正統性を 賦與하기 위한 手段으로 援用되고 있다.⁸⁾ 말하자면 金日成父子 세습체제에 의하여 韓半島의 共產化를 圖謀하는 것이 北韓當局의 二大存立基盤인 것이다. 그런데 대내적 改

註 8) Oh, Kwan-Chi, "Chuche vs. Economic Interdependence : Impact of Socialist Economic Reforms on North Korea", 韓國共產圈研究協議會 주최 第4次 韓·美 北韓會議 資料集, 1989. 8.

革政策은 自律性を 강화시켜 政治的 統制力の 弱화를 招來하게 될 것이며, 對外的 開放政策은 外部世界的 높은 發展相과 生活相을 公開하여 變化에의 衝動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基本路線의 變化는 곧 金日成一家 獨裁體制의 自滅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現狀變化의 必要性이 漸增함에도 不拘하고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政策路線의 變化는 期待하기 어려울 것이다.

북한이 改革과 開放을 忌避하거나 遲延시키고 있는 것은 改革과 開放으로부터 오는 經濟的 利益을 評價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① 經濟的 成長을 犧牲시켜서라도 政治的 團合 (Political Integrity) 을 保存하려는 意慾이 더욱 강하며 ② 改革과 開放이 閉鎖社會에 대하여 끼칠 엄청난 衝動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며 ③ 아직까지 對南赤化라는 至上目標을 포기해야 할 정도로 工業化의 強行과 軍備擴充이 危機局面에 이르지 않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북한당국은 經濟發展과 政權維持라는 兩者擇一的인 關係에서 後者を 택하고 있다.

나. 現狀打破의 不可避性

北韓經濟는 構造上으로 볼 때 <圖表2>에서 보는 바와 같이 社會主義中進國圈에 속해 있다. 越南이나 中國에 비하여 工業化와 都市化가 크게 進展되었으며, 雇傭構造나 產業構造面에 있어서도 工業化의 높은 현상이 잘 나타나고 있다.⁹⁾

註 9) 金達中·스칼라피노共編, “第13章, 中國·北韓·베트남 經濟의 比較”, pp.418~419.

< 圖表 2 >

北韓經濟의 位相

區 分	單 位	北 韓	越 南	中 國
都市人口	%	60	19.0	20.3
農業勞動力	"	43	71.8	62.5
工業勞動力	"	30	14.3	16.7
서비스 "	"	27	13.9	20.8
GNP에서 農·工比率		1:3	2:1	1:1
對外貿易依存度	%	22.5	24.8	30.0
G N P	10 億 \$	16.2	?	268.3
1 人當 GNP	\$	862	152	222
人 口	100 萬名	20.6	61.2	1,045.3
兵 力	1000 名	1,560	840	2,930
對外貿易(수입 + 수출)	10 億 \$	3.7	2.1	69.6

資料 : 金達中·스칼라피노 共編, "아시아 共產主義의 持續과 變化"
 法文社, 1989. pp. 418 ~ 419.

註 : 統計數値는 最近 資料를 利用하여 1980 年代 中盤에 대한 가
 장 신빙할 만한 平均値를 도출하여 作成한 것임 .

그리고 1人當 GNP面에서도 1000弗水準에 이르러 中國이나 越南을 훨씬 앞서고 있다. 그러나 過多한 兵力의 保有로 軍事費의 負擔率이 상대적으로 크게 높으며, 반면에 對外貿易依存度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크게 낮은 상태를 보여 주고 있다.

社會主義中進國이란 概念은 ① 一定한 技術水準에 도달하여 基本的 工產品을 自力으로 生産할 수 있으며 ② 生産擴大에 있어서 勞動力 보다는 技術의 役割이 重要視되며 ③ 製品의 多樣化와 高級化를 위하여 國際分業의 必要性이 높아지고 對外協力이 絶실히 要望되며 ④ 1人當 GNP의 增加로 인하여 慾求水準이 提高되며 ⑤ 輕工業의 育成과 消費財生産의 增大를 통한 生活水準의 向上이 要求되는 經濟發展段階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¹⁰⁾ 北韓은 이제 社會主義中進國의 初期段階에 進入하였다. 따라서 主體經濟의 非現實性 때문만이 아니라 經濟與件의 變化로 인해서도 政策轉換의 必要性이 提起되고 있다.

經濟小國이라는 特性을 지니고 있는 北韓에 있어서 經濟發展의 二大制約要因은 바로 過重한 軍事費負擔과 閉鎖的 自給自足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統計上의 對比에서도 잘 立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中進國의 位相을 維持하거나 發展시키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더욱 困難한 것은 韓國과의 經濟力格差가 나날이 擴大되어 간다는 것이다.

註 10) 小牧輝夫, “北韓鮮의 經濟의 現況と展望”, 國土統一院, 「岐路에 선 北韓經濟」, 1988. p. 7에서 再引用.

〈圖表 3〉 南北韓 主要經濟指標 比較 (1988 年末 基準)

區 分	單 位	韓 國	北 韓	韓國 / 北韓(倍)
人 口	萬 名	4,197	2,103	2.0
G N P	億 \$	1,692	206	8.2
1 人 當 G N P	\$	4,040	980	4.1
經濟成長率	%	12.2	3.0	-
軍 事 費	億 \$	78.4	44.2	1.8
수 출	"	607	19.9	30.5
수 입	"	518.1	31.6	16.4
貿易規模	"	1,125.1	51.5	21.8
外 債	"	312.0	52.0	6.0
貿易依存度	%	66.5	25.0	-

〈圖表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北韓은 國力の 表象인 GNP 면에서 韓國의 1/8 에 不過하며, 生活水準의 指標인 1 人當 GNP 에 있어서도 韓國의 1/4 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北韓의 産業構造가 軍需産業을 위시한 重工業이 큰 比重을 占하고 있다는 사실을 勘案한다면 비록 北韓住民의 生活이 生存線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軍事力面에서는 優位를 占하고 있다는 畸現象이 存在할 수도 있다는 것을 認定하게 된다.

軍事費가 韓國의 57%에 不過한 것으로 나타나 있기는 하나 他項目에 隱匿된 것을 勘案한다면 적어도 韓國水準은 維持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自力에 의한 軍事力 增強能力만을 고려한다

면 南北韓間의 軍事力 隔差는 좁혀질 것이나, 中·蘇에 의한 支援이 美·日에 의한 支援보다 越等하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좀처럼 軍事力의 격차는 좁혀지지 못할 것이다.

總貿易現況面에서 볼 때 輸出은 韓國의 1/30이며 輸入은 1/16에 不過하면서도, 外債는 輸出總額 19.9 億弗보다도 많은 52 億弗에 達하고 있다. 이것은 韓國의 外債가 輸出總額의 1/2에 不過하다는 사실과 좋은 對照를 이룬다. 이와같이 外債償還能力이 不實하기 때문에 經濟交流와 協力 또한 不實하며 그 결과 貿易收支赤字는 날로 擴大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北韓의 年平均 成長率이 韓國의 10% 前後한 높은 水準에 比하여 3%라는 아주 낮은 水準이어서, 南北韓間의 經濟隔差가 더욱 더 擴大될 것이라는 것은 必至의 既定事實인 것이다.

이와같이 北韓은 主體經濟의 非現實性, 經濟的 與件의 變化, 그리고 南北韓間의 經濟隔差의 擴大라는 多元的 要因에 의하여 改革과 開放을 實施하지 않을 수 없는 重壓下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政策轉換을 遲延시키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입게될 經濟的 損失은 대단할 것으로 評價되고 있다.

經濟的 損失을 經濟成長의 鈍化라는 經濟的 機會費用 (Opportunity Cost)으로 測定한다면 <圖表 4>에서 보는 바와 같다.¹¹⁾ 즉 1989년부터 2000년까지의 年平均 經濟成長率이 改革을 할 경우에는 7.2%에 달할 것이나 改革을 하지 않는다면 그 절반도 안되는 3%에 不過할 것이다. 즉 年平均 4.2%라는 엄청난 經濟成

註 11) Oh, Kwan-Chi, “前揭論文”

<圖表 4 >

主體經濟의 費用

區 分 年 度	主 體 經 濟		改 革 經 濟	
	GNP (100萬弗)	成 長 率 (%)	GNP (100萬弗)	成 長 率 (%)
1989	17,186	3.2	22,479	10.2
1990	17,764	3.4	24,496	9.0
1991	18,328	3.2	26,676	8.9
1992	18,901	3.1	28,936	8.5
1993	19,492	3.1	31,247	8.0
1994	20,076	3.0	33,575	7.4
1995	20,679	3.0	35,923	7.0
1996	21,299	3.0	38,289	6.6
1997	21,917	2.9	40,707	6.3
1998	22,553	2.9	43,183	6.1
1999	23,184	2.8	45,719	5.9
2000	23,833	2.8	48,319	5.7
89 - 2000		3.0		7.2

<資料> Oh, Kwan-Chi, "Chuche vs. Economic Interdependence : Impact of Socialist Economic Reforms on North Korea", 1989.8. 第4次 韓·美 北韓會議 資料集에서

長率의 減少라는 機會費用을 支拂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GNP 面에서 본다면 2000 年の GNP 가 改革을 하였을 경우 483 億弗이 될 것이나, 改革을 안 하였을 경우에는 1/2 도 안되는 238 億弗로서 엄청난 損失을 입게 된다.

이러한 莫大한 經濟的 損失을 外面한채 과연 언제까지 現狀維持를 지탱시킬 수 있을 것인가는 오직 現狀打破를 試圖하는 새로운 분위기 조성과 이를 主導하는 改革派의 대두 여하에 달려있다. 北韓에도 이미 毛澤東과 周恩來 死後인 1970年代 中盤의 中國과 같은 過渡期的 現象이 나타나고 있으며, 改革과 開放을 바라는 새로운 바람이 일고 있다.

指導階層間에도 現狀을 維持하려는 教條的 強硬路線과 現狀을 打破하려는 穩健한 改革路線이 對立하는 가운데 상당수의 中道的 寬容主義路線을 追求하려는 階層도 存在하고 있다. 그리고 被支配階層인 一般住民들도 25% 정도는 黨에 대한 忠誠을 하나 25% 정도는 黨의 政策路線에 대하여 不滿을 表示하며, 나머지 50% 정도는 中道的 立場을 취하면서도 무엇인가의 變化를 希求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아직은 小數의 教條的 強硬階層이 多數의 穩健的 改革階層을 威壓하고는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暫定的인 不安한 優勢에 不過한 것이다. 왜냐하면 多數의 實用主義的이고 中道的인 穩健派 세력이 時間이 흐를수록 새로운 求心點을 形成해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改革과 開放政策을 推進하게 된다면 短期的으로는 中國에서 보는 바와 같은 高度經濟成長과 勤勞者들의 所得上昇에 따른 生活水準의 向上이라는 肯定的 效果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中期的으로는 公職者들의 不正腐敗, 一般住民들의 資本主義的 病理現象, 그리고 知識人들의 民主化要求 등 여러가지 否定的 效果가 誘發될 것이다. 經濟的으로 所得이 向上되고 生活水準이 높아지면 耐久消費財에 대한 慾求增大와 이로인한 輕工業製品의 不足現象이 加速化된다. 이러한 相

對的 貧困現象으로 인한 不平不滿은 政治的인 壓力行爲로 분출되며, 이를 撫摩하기 위해서는 經濟的 資源을 重工業으로부터 輕工業으로 移轉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長期的으로는 資源의 再分配가 對南赤化 戰略에 蹉跌을 惹起시키고 現狀維持的 강경과를 後退시키게 됨으로써 平和共存的인 南北韓 協力の 門戶가 開放되는 肯定的 效果를 또 다시 가져오게 된다.

改革以前에 있어서는 中央集權的 計劃은 微視的인 意思決定 (Decision-Making)에 관련되는 것을 巨視的으로 中央集中的 管理(Centralized Management)라는 형태로 다루는 것이었다. 그러나 改革을 斷行한 以後에 있어서는 物價上昇과 失業增大 또는 貿易赤字와 外債累增 등 對內外的인 巨視的 部門의 生소한 問題에 直面하게 된다. 따라서 計劃의 焦點은 微視的인 것으로 부터 巨視的인 것으로 移行하게 된다.

이러한 諸問題들을 經濟的 自律性이나 合理性의 回復을 통하여 成功的으로 잘 克服한다면 또 다른 第2의 跳躍으로 보다 높은 高度成長이 可能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高度成長이 實現되면 될 수록 또 다른 副作用이 誘發되며, 이를 克服하자면 더 幅이 넓고 더 速度가 빠른 改革과 開放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같이 改革과 開放이 進行됨에 따라 高度成長과 肯定的 效果 그리고 否定的 效果와 成長停滯라는 一種의 改革「사이클」(Reform Cycle)이 存在하게 된다.

이와같이 經濟成長過程에 있어서 恐慌과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등이 必然的으로 出現하여 「必要惡」의 存在가 되듯이 改革過程에 있어서는 混亂과 政權崩壞가 必然的인 副產物로 뒤

따르게 된다. 그리고 景氣變動에 있어서 通貨量과 投資가 觸媒作用을 하듯이 改革에 있어서는 開放과 政治改革이 그것을 代行하게 된다. 그리하여 改革「사이클」이 反復되면서 體制外的 異質變化라는 第3段階 改革으로 移行되어 가는 것이다.

IV. 政策轉換의 有限성과 段階

가. 政策轉換의 有限성

北韓은 國家建設 (Nation-Building) 過程에서 理念 (Ideology) 에 忠實한 社會를 건설한 결과 政治的으로는 一黨獨裁의 長期化나 父子世襲體制의 實現 등으로 比較的 성공한 편이나, 經濟的으로는 自生的 發展의 原動力 喪失과 貧困의 惡循環 등으로 오히려 失敗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經濟的으로는 크게 發展하였으나 政治的으로는 民主化가 後進狀態에 머물러 있는 한국의 경우와 좋은 대조를 이룬다. 이러한 經濟的 落後를 克服하기 위하여 有形 無形의 改革과 開放政策을 試圖하여 왔으나, 이런 모든 조치들이 內的 同質變化的 範疇를 벗어나지 못한 消極的인 것들이어서 오히려 더 많은 副作用만을 誘發하게 되었다.

北韓은 아직도 外部世界에서 느끼고 있는 만큼 그렇게 深刻한 經濟危機意識을 갖고 있지 않으며, 主體經濟에 의한 發展의 可能性을 過信하고 있는 것 같다. 1960年代까지는 韓國보다 優位에 있었고, 1970年代까지만 하여도 社會主義國家중에서 가장 높은 經濟成長率을 記錄하였었다. 1970年代 後半부터 비록 成長速度가 鈍化되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韓國보다 優勢한 軍事力을 背景으로 對南赤化力量도 充分히 保有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物價가 比較的 安定되어 있고, 비록 貧困의 平等化이기는 하나 所得分配가 상대적으로 均一한 상태에 있다. 더우기 外部世界와의 높은 遮斷壁 때문에 一般住民들의 不平不滿도 적고 物質的 慾求도 그리 크지 않다. 즉,

情報의 장벽 때문에 그 만큼 內部로부터의 政策轉換에 대한 壓力이 적다.¹²⁾

政策轉換이란 對內적인 經濟改革과 對外적인 經濟開放을 뜻하는 것이다. 改革政策은 中央集權的 計劃經濟에 市場經濟的 要素를 일부 도입하여 分權化시키는 作用 또는 物質的 動機 (Material Incentives)를 賦與하여 個別 經濟主體에 刺戟을 줌으로써 效率性과 生産性を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經濟發展을 促進시키기 위한 手段을 강구하는 것이다. 開放政策은 自給自足的 閉鎖經濟를 경제 교류와 協력을 통하여 外部經濟에 대하여 노출시키는 作用 또는 國際分業과 協力으로 不足한 資本과 낮은 技術 그리고 狹小한 市場問題를 克服함으로써 相互利益을 享有하기 위한 것이다.

第2段階改革의 雙壁을 이루는 改革과 開放은 經濟的 合理性을 되찾기 위한 것이며, 黨과 政을 分離시키고 政과 經을 分離시키는 것이며, 동시에 「이데올로기」적이고 政治優先的인 經濟政策의 포기를 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政策轉換에 있어서는 改革이 開放을 誘發하거나 開放이 改革을 刺戟하는 相互間的 同伴作用과 經濟改革이 政治改革을 誘導하고 政治改革이 經濟改革을 促進하는 相互間的 補完作用이 있어야 한다.

閉鎖적이고 強制的인 計劃經濟의 限界性を 克服하기 위해서는 外延的 成長戰略을 內包的 成長戰略으로 전환시켜야 하며, 借款型 外資導入 보다는 投資型 經濟協力を 追求해야 하며, 共產圈과의 協力

註 12) 李泰旭, “북한의 經濟開放政策과 그 展望”, 國土統一院 主催 “南北韓 經濟交流協力에 관한 國際 심포지움”, 1989.8. 資料集. pp. 27 ~ 28.

보다는 西方世界와의 協力을 強化해야 한다. 對西方接近을 促進시키기 위해서는 南北韓間的 關係改善을 통하여 非好戰的임을 反證해야 하며, 外國人投資를 促進하기 위해서는 改革政策을 통하여 投資與件을 造成해야 하며, 經濟改革을 保證하기 위해서는 政治改革이 先行되어야 한다. 換言하면 開放의 先行要件은 改革이며 經濟改革의 先行要件은 政治改革이다. 그러나 北韓은 常例화된 方式 보다는 逆行的인 方式 즉 政治改革을 忌避한 經濟改革과 改革意志가 缺如된 開放이라는 方式을 擇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對南赤化의 策動이나 국제적 「테러」의 煽動을 늦추지 않고 있으며, 金日成父子의 偶像的인 神格化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는 逆進現象도 나타나고 있다.

北韓의 立場에서 볼 때 改革과 開放政策의 先行者인 東歐, 中國 및 소련에 있어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否定的 副作用이 表出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民主化나 自由化가 連鎖的인 力動作用에 의하여 順次的으로 實現될 것이며, 이로 인하여 結局은 共產政權이 崩壞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推斷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諸要因이 政治的 세습체제와 經濟的 虛弱體質이라는 脆弱성을 갖고 있는 北韓에 있어서는 政策轉換에 대한 恐怖症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社會主義國家들은 일반적으로 「正反合」의 原則을 充實히 追從하면서 先行者에 대하여 「이데올로기」는 물론 政策에 있어서도 反對概念이나 또는 逆行概念을 채택하고 있다. 이것은 사회주의 그 자체가 後行者로서의 屬性을 띠고 出現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습의 概念을 選擇함에 있어서 대단히 인색한 性向을 띠고 있는데, 이것은 自己路線을 固守하려는 강한 保守性向이나 또는

弱者의 強辯으로 인한 補償原理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傾向은 北韓에 있어서 더욱 심한것 같다.

일반적으로 小國經濟가 先進經濟로 移行함에 있어서는 ① 天然資源 또는 特産物에 기반을 둔 特化 ② 輕工業化와 이의 多角的인 發展 ③ 重化學工業化와 그 研究開發事業 ④ 電子工業化와 尖端産業에의 着手 順으로 發展하는 過程을 밟게 된다.¹³⁾ 그리고 後進開途國이 開放化를 추진하는 過程에 있어서도 ① 多國籍企業으로부터 資本과 技術을 導入하여 輸入代替産業을 育成 ② 勞動集約的 産業에 기반을 둔 輸出主導型 開放化 ③ 研究開發 集約産業을 중심으로 한 比較優位産業의 特化 또는 海外進出 ④ 貿易, 投資 및 外換 등 對外關係에 있어서의 自由化와 國際化를 追求하는 一定한 過程을 밟게 된다.¹⁴⁾

그런데 北韓은 小國經濟로서 後進開途國의 位置에서 開放的 小國經濟 (Small Open Economy) 方式이 아닌 閉鎖的 大國經濟 (large closed Economy) 方式을 擇하여 왔다. 換言하면 이러한 모든 段階的 過程을 外面한 채 重工業優先이라는 發展戰略을 채택하여 왔고, 開放化過程에서도 一方通行的인 投資誘致만을 追求하고자 한다. 政策轉換過程에 있어서도 改革과 開放 그리고 政治改革과 經濟改革間에 同伴作用과 相補作用이 결여된 一方通行的인 逆理現象이 나타나고 있다. 그것도 對內外的인 壓力에 의하여 마지못해 推進하는 소극적이고 制限的인 것이면서도, 既存路線을 더욱더 強化하려는 徹底한 保

註 13) 李泰旭, “上揭論文”, p. 17.

14) 李泰旭, “上揭論文”, p. 18.

守性向을 堅持함으로써, 政策轉換에 있어서의 二重性を 노출시키고 있다.

이와같이 北韓은 逆行的이며 一方通行的인 方法을 擇하고 있고 그리고 소극적인 추진과 保守性向이라는 二重性を 보이므로써, 二重 또는 三重的인 源泉的 誤謬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政策轉換에 있어서의 有限性を 갖고 있다.

나. 改革과 開放의 段階化

社會主義諸國 특히 東歐의 先行的 改革과 開放政策의 進行段階를 보면 <圖表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몇 段階를 거치게 된다. 各 段階에서는 改革과 開放 또는 開放과 改革이라는 두개의 政策이 一定한 時差를 두고 併行的으로 實施되어 왔다. 그리고 第1段階에 있어서는 經濟改革이 先行的으로 實施되지만, 第2段階에서는 政治改革이 必然적으로 뒤 따라야 하며, 第3段階에서는 政治改革이 主導하여 經濟改革의 結實을 맺게 되는 것이다.

社會主義의 모든 改革은 위로부터의 改革이라는 特性을 갖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執權改革派가 主導하게 되며, 이들은 反對保守派나 強硬改革派 등을 牽制하거나 吸收시킬 수 있는 政治的 党内改革을 스스로 斷行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第2段階의 內的異質變化가 상당정도 進展된 이후에는 밑으로부터의 改革에 대한 加速化 要求나 政治的 民主化 促求示威가 분출하게 된다.¹⁵⁾

註 15) 最近 東歐圈 保守派 國家에서 일어나고 있는 民衆示威는 곧 밑으로부터의 改革이며 改革派 國家에서의 政治的 改革도 一種의 밑으로부터의 改革이다.

〈圖表 5〉 改革과 開放의 進行段階 (先行的東歐의 경우)

段 階	時 期	進 行 過 程	
第 1 段階	60 年代 후반 ↓ 70 年代 초반	經濟沈滯持續 ↓ 體制內作同質變化	借款導入型開放 ↓ 貿易赤字와 外債
第 2 段階	70 年代 후반 ↓ 80 年代 초반	投資誘致型開放 ↓ 成果不振	體制內的異質變化 ↓ 政治體制的 限界
第 3 段階	80 年代 후반 ↓ 90 年代	政治改革 ↓ 非共產政權	經濟改革 ↓ 市場社會主義

일반적으로 經濟成長鈍化가 비교적 장기간 지속됨으로써 經濟的 危機意識을 느끼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經濟改革이 試圖되어 왔다. 대부분의 社會主義國家는 1950 年代 후반에 進入하면서 經濟的 成長이 鈍化되는 危機를 經驗하게 되었고, 1960 年代 후반부터 經濟改革을 着手하였다. 그러나 對症療法的인 改革으로서는 多元的인 源泉的 誤謬를 根本的으로 治癒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經濟沈滯는 解消될 수가 없었다. 따라서 內的同質變化에 뒤이어 西方世界的 資本과 技術을 도입하기 위한 開放政策이 實行되기에 이른다. 왜냐하면 借款導入型 開放政策은 任意대로의 活用이 가능하며 동시에 外部世界와의 遮斷의 壁을 그대로 保存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初步的인 外資導入方式이 輸出增大政策과 聯關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貿易赤字와 外債의 累增現象만을 招來하게 되었다. 이를 克服하기 위하여 西方으로부터 資本과 技術을 導入하되 元利金償還의 負擔이 없는 合作投資나 또는 直接投資라는 보다 積極的인 經濟協力方式을 選好하게 되었다. 政治的 未修交로 인한 政經分離方式에 의한 接近上의 어려움이나, 經濟體制上의 相異性으로 인한 企業運營의 難易性 그리고 經濟與件이나 政策上의 差異로 인한 投資環境의 未備 등이 山積하고 있었기 때문에, 投資誘致型 開放政策도 그 實効性이 별로 없었다. 이와같이 第2 段階改革은 投資開放政策으로부터 始作되었으나 그 成果가 不振하자 有利한 投資環境을 造成하기 위한 內的異質變化가 뒤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體制內的 異質變化라는 經濟改革이 外國人投資라는 開放政策과 더불어 本格化되면서 政治的 改革이 必然的으로 뒤 따르게 되었다. 하나의 總體的 體制는 政治, 經濟, 社會라는 세 개의 下部體制가 均衡的 調和를 이룰 때 圓滿한 발전을 하게 된다. 따라서 그 어느 하나의 下部體制가 주어진 一定한 限界를 벗어나서 발전하게 되면 나머지 두개의 下部體제도 이와 步調를 맞추는 後行的 變革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한 마디로 經濟面에서의 運營權의 分權化나 民間部門의 出現과 보조를 맞추어 政治面에 있어서도 多黨制에 의한 政治運營의 分權化나 民主化의 출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現時點에 와서는 政治改革이 進行되면서 公産黨 일당독재 체제가 崩壞되는 危機까지 맞게 되었다. 그리고 새로 登場하게 될 非共産黨 新政府는 앞으로 對西方 開放과 協力을 積極化하면서 市場社會主義 (Market Socialism) 라는 收斂體制로의 變革을 위한 第

3 段階의 體制外的 異質變化를 追求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中國은 政治改革의 後遺症이 두려워 民主化要求를 武力으로 鎮壓하였으며 強硬改革派를 肅清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소련은 強硬 保守派와 急進改革派의 相反된 主張의 交叉속에서 점진적 方法으로 經濟改革과 더불어 政治改革을 처음부터 併行하여 實施하여 왔다. 그러나 中國이나 소련에 있어서도 終局的으로는 스스로 變身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北韓에 있어서는 第1次 7 個年計劃의 失敗로 南北韓 經濟力の 逆轉 現象이 表面化되면서 1970 年代에 들어오면서 서서히 第1 段階의 改革이 着手되기 始作하였다. 그러나 外貨不足과 外債累增 또는 成長 鈍化와 軍事力強化라는 難題를 안은 채 이제는 不完全하나마 第1 段階 改革을 종결짓고 第2 段階 改革에 進入하지 않으면 안될 局面에 놓여있다. 그러나 그 時期는 어느 누구도 豫測할 수 없으며, 앞으로 당분간 아니 상당기간 동안은 第1 段階의 內的同質變化를 進行시키면서 第2 段階의 投資誘致型 開放政策의 追求라는 變則의 方法을 擇하게 될 것이다.

북한이 改革을 遲延시키고 있고 또 慎重을 기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그 肯定的 效果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 否定的 效果를 두려워하는 데에 있다. 더우기 國際社會에서의 孤立을 自招하면서까지 改革을 外面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社會主義陣營의 改革과 開放으로 인한 後遺症 즉 必然的인 副產物에 대하여 너무나 精通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 지도부는 改革과 開放에 아직 成功한 나라는 없으며, 改革과 開放이 問題를 해결하였다기 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惹起시켰다고 믿고 있다.¹⁶⁾ 그리고 아직도 革命 1世代이며 建國 當事者인 金日成이가 強硬保守派와 더불어 執權하고 있다는 事實이 自主的인 改革動因의 誘發을 가로막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內部로부터 보다는 外部로부터의 壓力이나 刺戟에 의하여 改革動因이 觸發되어야 할 것이다.

소련과 중국이 改革과 開放을 본격적으로 推進하면서 內的異質變化를 基本路線으로 採擇하고 있음을 勘案할 때, 北韓도 결국은 同一路線을 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그 時點에 대해서는 金日成 死亡의 前과 後라는 두가지 見解가 있다. 그 하나인 金日成 死後說은 改革派가 權力鬭爭을 통하여 金正日을 물리치고 執權하면서부터 改革이 本格的으로 着手될 것이라는 見解이며, 다른 하나인 死前說은 金正日이 金日成을 등에 업고 改革을 斷行 함으로써 自己自身の 確固한 統治基盤을 構築한다는 見解이다.

金正日이 政策轉換을 試圖할 可能性도 排除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政策轉換은 住民들의 生活水準을 向上시킬 것이고, 이러한 生活의 向上은 金日成과 區別되는 또 다른 統治理念으로서 住民들의 信任을 獲得할 수 있는 唯一한 手段이 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는 美國과 日本과의 關係改善을 통하여 韓國의 北方政策에 對應하는 劃期的 조치를 강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러한 和解的 接近을 통하여 資本不足과 勞動不足이라는 二重的 壓迫을 가하고 있는 過重한 軍事費를 相對的으로 緩和시키는 한편, 政

註 16) John, Merrill, "North Korea's Economy Today : The Limit of Juche", 韓國共產圈研究協議會 主催 第4次 韓·美 北韓會議 資料集, 1989. 8.

治安保的 接近을 통하여 오히려 對南赤化에 有利한 분위기를 造成하려고 할지도 모른다.

改革에 있어서는 改革의 水準, 改革의 幅, 改革의 方向 그리고 改革의 速度가 重視된다. 이러한 觀點에서 볼 때, 앞으로 豫想되는 改革의 水準은 既存體制를 補完하는 범주를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지만 運營原理의 일부를 修正하는 정도의 初步的인 內的異質 變化는 있을 것이다. 改革의 幅에 있어서는 生産性 向上과 効率性 提高라는 供給側面에 局限될 것이나 점차 消費財 生産이나 輕工業 重視라는 需要側面에 대한 分配改善이나 生活水準 向上에도 意慾을 보일 것이다. 그러나 政治的 또는 社會的 改革을 철저하게 外面할 것으로 豫想된다. 改革의 方向에 있어서는 中央集權的 管理를 分權化하여 自律性を 提高시켜 나가는 한편, 中央集權的 計劃은 오히려 더욱 강화해 나가는 이른바 中國型 計劃商品經濟 (Planned Commodity Economy)를 長期的으로 追求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民有民營을 認定하거나 市場經濟的 要素를 導入하는, 즉 民間部門에 의한 市場機能의 活性化와 같은 市場社會主義로의 進展은 期待할 수 없을 것이다. 改革의 速度는 일반적으로 經濟的 事情이나 國際的 環境이 다소 좋아지면 鈍化되고, 反對로 與件이 惡化되면 오히려 促進되어 왔다. 따라서 北韓經濟가 危機局面에 이를 것으로 豫想되는 第3次7 個年計劃 末期나 그 이후에 다소 달라질 것으로 展望된다.

V. 政策轉換의 二重성과 特性

가. 基本路線의 二元的 分化

북한 내부에는 主體思想과 對外協力, 重工業優先과 輕工業, 過重한 軍事費와 經濟發展, 集中화와 分權化 등 四大基本路線에 대한 理念的 保守派 (Ideological conservatives)와 實用主義的 接近派 (Pragmatic approaches)間에 贊反의 論爭으로 새로운 緊張이 조성되고 있다.¹⁷⁾

主體思想은 獨自路線을 堅持하기 위한 정치적 요건 (Political Requirement), 즉 理念的 體系로써 엄밀한 의미에서는 自給自足的 폐쇄경제를 뜻하는 것으로써 경제발전에 障碍要因이 되는 것이다. 主體經濟는 不足, 失敗 그리고 「보틀네크」 (Bottleneck)라는 逆境下에서 形成되었고, 自力에 의한 克服 즉 勤勞意慾과 創意力の 鼓吹를 主眼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巨視的이며 동시에 微視的인 兩面性을 갖고 있다. 또는 經濟自立面에서는 閉鎖的이며 經濟力強化面에서는 對外開放的이라는 二元性도 갖고 있다.

그리하여 自力更生の 原則이 그 概念에 있어서 修正이 가하여지고 있다. 즉 主體經濟는 閉鎖經濟를 追求하는 것이 아니라 經濟的 支配와 隸屬을 反對하는 것이며, 國際的인 協力을 否認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조하는 것이라고 伸縮性있는 해석을 하고 있다.

註 17) John, Merrill, “上揭論文”

이러한 개념 수정에 따라 1980年代에 와서는 輸出擴大策을 마련하거나 對外協力對象을 社會主義國家에서 開途國으로, 그리고 또 다시 友好的 선진 자본주의 국가로 擴大시켜 왔다. 또는 合營法을 制定하고 合營工業部를 新設하여 外國人投資를 관리하거나 觀光總局을 新設하고 관광객유치를 통한 外貨獲得에 관심을 높여 왔다. 그러나 外面的으로는 對外開放으로의 方向轉換을 斷行한 인상을 풍기면서도 아직도 대의협력에는 소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內面的으로는 더욱더 폐쇄성을 강화해 가는 表裏不同의 두 얼굴을 보이고 있다.

重工業優先政策을 自立的 경제개발의 추구하고 自衛的 軍수산업의 육성이라는 두가지 動機에서 不可避하게 채택된 것이었다. 따라서 重工業과 輕工業間의 論爭은 經濟的인 것이라기 보다는 恒常 國際的 周邊環境이나 國內政治的 要件에 의하여 存在되어 왔다. 그러기 때문에 重工業 優先政策이 長期間 지속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결과 國民經濟의 跛行性은 深化되었고, 國民의 勤勞意慾은 低下되었으며, 發展의 原動도 減退되었다.

새로운 活力素를 注入하기 위해서는 理念的 動機(Ideological motivation) 보다는 物質的 動機(Material motivation)라는 有形的 補償(Tangible Rewards)이 要求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輕工業을 育成하고 소비재를 생산하여 즐라 맨 허리띠를 느슨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無言의 要求에 副應하여 새로운 地方豫算制度를 채택하여 소비재 생산의 促進을 試圖하는 한편, 第2次 7個年計劃에서는 重工業 優先政策을 稀釋시키는 決定을 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機會있을때 마다 輕工業 育成과 소비재 증산을 강조하는 발언이 있어 왔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소비재 생산은 踏步狀態에 머물렀으며 生活水準은 오히려 惡化되었다. 이것은 政策의 失敗이거나 經濟가 危機局面으로 進入하고 있다는 하나의 徵候이며, 또한 이러한 모든 強調가 單純한 口頭禪에 불과한 것이며 「헝가리」에서와 같은 소비자사회 (Consumer Society)를 위한 어떠한 努力도 하지 않고 있다는 단적인 反證인 것이다.

그러나 금년초에 黨現論誌인 “근로자”에서 북한경제는 벌써 資本蓄積만을 追求할 段階를 지났으므로 이제부터는 소비재 생산을 증진해야 한다고 主張함으로써 重工業과 輕工業間의 經濟的 論爭은 한 次元 높은 새로운 局面에 접어들게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서서히 輕工業 重視 見解가 상대적인 優勢傾向을 보일 것으로 豫想된다.

북한은 對南 赤化統一에 대하여 過度한 執念을 가져왔기 때문에 政策의 最優先 課題를 항상 對南 軍事力の 優位를 維持하는데에 두어왔다. 그리고 軍事費 負擔의 加重性이 深刻하게 노출되기 시작한 것은 1970年代 후반 韓國의 重化學工業化가 進行되면서 南北韓間의 經濟力 隔差가 擴大되고 韓國의 防衛産業 育成이 강화되면서 부터였다. 이때부터 稀少資源을 더 많이 軍事부문에 擴大配分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결과 資本과 勞動의 不足이라는 二重苦 現象이 經濟發展을 鈍化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軍事비 부담 증가와 經濟發展 鈍化라는 惡循環 過程은 앞으로 南北間의 經濟力 差가 擴大되면 될수록 더욱 擴大深化될 것이다.

최근 북한 내부에는 軍事력 증강 優先主義에서 經濟發展 우선주의로의 方向旋回를 主張하는 징후가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思考方式의 전환은 重工業 優先政策에서 輕工業 重視 政策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

는 것과 一脈相通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再平價 問題가 대두되는 것은 美·蘇間의 軍備縮小會談의 성공적 진행과 中·蘇間의 和解的 正常關係의 再開 그리고 韓國의 北方政策과도 直接 또는 間接으로 關聯이 있다.

북한은 지금까지 經濟發展을 희생시켜 가면서 過大한 軍事化(over militarized)를 유지하여 왔으나 이제는 더 이상 이를 支撐하기 어려운 局面에 이르렀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북한이 駐韓美軍의 撤收를 진정 원하는가 라는 疑問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들은 겉과 속, 즉 입으로 하는 말과 속으로 생각하는 意圖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들이 撤收를 主張하는 것은 南北間의 군사력 균형에서 美軍의 철수는 북한의 壓倒的 優勢를 가져 오므로써 武力南侵의 가능성이 그만큼 더 容易해지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美軍의 撤收를 願치 않는다는 說도 있다. 그것은 駐韓美軍의 存在가 主體思想의 基調가 되며, 內部的 統合이나 統制의 手段으로 活用된다는 것이다. 두 見解를 綜合해 볼 때 美軍이 撤收하게 되면 좋은 싫든간에 武力南侵을 斷行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럴 能力은 점차 상대적으로 弱化되어 가고 있으며, 만약 南侵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內部的 統制手段의 弱化로 理念의 混亂이 惹起될 것이다. 따라서 종전까지는 철저한 革命的 原則(Revolutionary Principle)에 입각하여 贊成論이 優勢하였으나 요즘에 와서는 오히려 反對論이 強勢인것 같다.

이와같이 북한은 겉으로는 軍事力 競爭을 늦추는 듯한 인상을 풍기면서도 소련으로부터 最新 武器를 導入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核武

器 製造能力까지도 갖추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북한은 아직까지 赤化統一 野慾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북한으로 하여금 대남 적화전략을 포기하고 改革과 開放政策을 實施하면서 南北協商 테이블에 나올 수 있게 하는 唯一한 方法은 오직 한국이 經濟力뿐만이 아니라 軍事力에 있어서도 絕對優位를 確保하는것 뿐이다.

일반적으로 初期의 革命的 過程 (Revolutionary Procedure)에 있어서는 大衆의 革命的 熱情을 動員하는 方法 즉 集中化하고 統制하는 方法으로 경제발전을 促進시킬 수 있으나, 經濟가 發展하고 構造가 複雜해지면서 점차 後期の 保守的 過程 (Conservative Procedure)으로 進入하게 되면 自律性を 賦與하는 分權化의 方法이 채택되기에 이른다.

이러한 慣例에 따라 북한에서도 微視的 企業經營에 있어서는 制限된 自律化가 許容되었고, 巨視的 經濟計劃에 있어서는 全般的인 計劃과 技術指導, 그리고 戰略的 重要部門에 대해서는 中央의 集中統制가 오히려 強化되었으며 其他部門에 대한 企業감독이나 割當目標達成의 責任을 地方當局에 移讓하는 分權化도 이루어졌다. 經濟的 分權化가 政治的 分權化라는 民主化現象을 隨伴하게 되는 것도 일반적인 傾向이나, 북한은 反對로 黨의 統制를 더욱 強化하고 있다. 그리하여 經濟的 現實과 政治的 意圖間에 不協和音이 造成되고, 이러한 갈등과 마찰은 政治的 優勢에 의하여 改革政策을 지연시키는 要因으로 作用하게 된다. 換言하면 經濟的 分權化와 政治的 集中化間의 葛藤과 緊張은 좀처럼 解消되기 어려운 것이며, 이러한 未決狀態가 長期化되면 될수록 또 다른 새로운 難題들이 表出하게 될

것이다.

나. 改革과 開放의 特性

북한이 앞으로 당분간 아니 상당기간 동안 採擇할 政策路線은 改革에 있어서는 第1段階의 內的同質變化를 進行시키면서, 開放에 있어서는 第2段階의 投資誘致型的 統制된 選別的 개방을 추진하는 變則的 방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政治優先型 開發戰略을 철저하게 고수하면서도 現政權이 안전하게 지탱유지되는 限度內에서의 改革을 단행한다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까지도 自力更生의 原則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도 外國과의 遮斷의 障壁을 유지할 수 있는 限度內에서의 開放을 許容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開放政策 路線은 外貨獲得에 總力을 기울이는 쪽으로 編向될 것이며, 그것은 곧 元利金 償還의 負擔이 없는 外國人 投資誘致와 손쉽게 外貨를 획득할 수 있는 觀光客 誘致라는 두가지 支柱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社會主義 經濟開發戰略의 特性은 총체적 供給이 총체적 需要보다 絶對적으로 不足한 不均衡狀態에서 출발하는 것이며, 需要의 均衡狀態를 誘導하면서 經濟開發을 促進하기 위하여, 공급측을 計劃的인 政策的 增加變數로 하고, 수요측을 強制的인 生存線上的 抑制變數로 하는 것이다. 經濟發展이 進行될수록 계획의 복잡성이나 「인센티브」의 缺如로 인하여 成長이 鈍化되면서 공급측에서 먼저 第1次的 矛盾이 발생하게 된다. 成長의 鈍化를 克服하기 위하여 勞動의 強要는 더욱 가혹하게 되고 消費抑制 또한 더욱 強化된다. 이로 인하여 이번에는 長期化되어 가는 自由抑壓과 生活궁핍화의 限界性이

라는 수요측에서 第2次的 矛盾이 발생하게 된다.¹⁸⁾

供給側의 第1次的 矛盾을 克服하기 위한 것이 第1段階의 內的 同質變化이며, 需要側의 第2次的 矛盾을 克服하기 위한 것이 第2 段階의 內的異質變化이다. 오늘날 社會主義에 있어서는 공급측 모순 과 수요측 모순을 동시에 해결하려는 改革과 開放이 進行되고 있 다. 그러나 북한에 있어서는 아직도 공급측 모순만을 해결하려는 第1段階改革에 머물러 있다. 물론 이들도 第2段階改革에 대한 必 要성과 當爲性을 認識은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行動으로의 移行 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즉 知覺(Perception)은 하고 있 으면서도 行動(behavior)으로의 表出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第1段階인 內的同質變化는 計劃의 效率性を 提高시키기 위하여 計劃機構나 政治部署를 改編調整하면서 또는 各種規制의 幅을 축소 시키면서 計劃樹立의 단순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즉 經濟管理의 分 權化를 圖謀하는 巨視的인 改革을 主로 하고, 企業次元의 微視的인 改革을 從으로 한다. 말하자면 企業運營의 效率性を 높이고 근로자 들의 意慾을 부추기기 위한 自律性を 賦與하거나 各種 物質的 誘 因을 提供하는 등의 조치는 부수적인 것이다. 第2段階인 內的異質 變化는 輕工業을 育成하고 소비재생산을 장려하여 生活水準의 向上 을 도모하면서 巨視的으로 計劃統制의 범위를 축소시켜 나가는 것 이다. 즉 公共部門(public sector)을 축소하고 民間部門(private sector)을 許容하면서 市場機構를 導入한다. 그리고 微視的으로 는 企業의 自律性を 擴大하여 自主管理制度를 定着시키면서 競爭

註 18) 辛昇哲,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경제개혁” 上同 p.122.

의 原理와 利潤의 概念을 채택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북한이 실시해 온 改革은 計劃方法의 改善과 企業에 대한 自律性 賦與라는 두 부분으로 大別할 수 있다.

計劃方法의 改善에 있어서는 (1) 地方經濟機關의 役割을 강조하는 分權化를 실시하기 위하여 道 經濟指導委員會를 설치하였으며 (2) 企業水準에서 工業團地 (Industrial complex)를 建立하여 企業運營에서의 分權化를 擴大시키고 있다. 企業에 대한 自律性 賦與에 있어서는 (1) 企業의 效率性を 增進하기 위하여 獨立採算制 (Independent accounting system)를 導入하였고 (2) 個人的 근로의욕을 提高시키기 위하여 能率賃金制度 등 각종 物質的 誘因制度 (Material incentive system)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改革政策은 다른 社會主義國家의 改革政策과 다른 몇가지 特性을 갖고 있다. 이러한 改革政策이 基本的인 開發戰略을 修正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強化하면서 併行하여 實施되어 왔다. 그리고 改革이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一回用으로 단편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改革에도 不拘하고 아직도 農業에 있어서는 「청산리사업체계」가, 그리고 工業에 있어서는 「대안사업체계」가 압도적으로 支配的인 位置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이러한 內部的 改革이 극히 部分的으로 施行되었고 그것도 하나의 示範的 事業으로 展開된 아주 소극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反面에 對外的 開放에 있어서는 다소 적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는데, 合營法 및 合營工業部를 設置하여 外國人 投資를 장려하고, 觀光總局을 설치하여 觀光客 誘致運動을 展開하는 것이 그 좋은 實例

이다.

북한은 貿易政策의 基調를 「先輸入・後輸出」이라는 自立經濟路線에 두어 왔다.¹⁹⁾ 그리고 대외협력관계도 주로 中國이나 소련 등 社會主義陣營의 國家만을 상대로 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閉鎖的 體制가 限界點에 이르자 1970年代 初期에는 은밀하게 對外貿易과 借款에 의한 「플랜트」導入의 擴大를 試圖하면서 對外開放的인 協力を 推進하게 되었다. 그러나 石油波動의 餘波로 1次產品의 交易條件이 惡化되는 不運이 겹쳐 外債負擔만 畢積된 채 所期の 成果를 거두지 못하였다.

70年代 後期에는 交易擴大策으로서 社會主義陣營의 領域을 벗어나서 開途國이나 西方先進工業國과의 交易多邊化를 公開的으로 強調하게 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好戰性이나 極左路線 또는 體制上的 異質感이나 交易可能品目の 制限性 등으로 역시 별다른 成果가 없었다.

그 결과 1970年代의 貿易과 借款에 의한 은밀하거나 또는 公開的인 對外開放이라는 第1幕은 내리게 되었고, 1980年代에는 貿易과 投資에 의한 公開的이고 公式的인 對外開放이라는 第2幕이 오르게 되었다.

1984年 1月 最高人民會議 第7期 3次會議에서 향후 5年 내지 6年內에 社會主義國家와의 交易을 10倍로 增大하고 外交關係가 없는 西方과의 交易까지도 擴大하겠다고 公式的으로 강조하게 되었다.

註 19) 林陽澤, “南北韓產業 및 技術協力の 推進方案에 관한 研究”
韓國經濟研究院, 1989.4. pp. 162 - 168.

그리고 1984年 9月에는 合營法을 制定하였고 85년에는 合營法施行細則, 合營會社 所得稅法 및 同細則, 그리고 外國人 所得稅法 및 同細則 등을 制定 公布함으로써 外國人投資를 적극적으로 誘致하려는 法的 裝置를 마련하였다. 더 나아가서는 제 3차 7개년계획 (1987 ~ 93)에 있어서는 期間中에 對外貿易規模를 3.2倍로 증가시켜 年間 100억불 水準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目標을 設定하였다. 그리고 1988年 12月에는 合營工業部를 新設하여 外國人投資 專擔機構까지 마련하였다. 말하자면 貿易政策의 基調가 「先輸出·後輸入」이라는 輸出重視政策으로 方向을 전환하게 되었으며, 對外協力에 있어서도 借款 보다는 投資에 重點을 두게 되었다.

그러나 80年代의 第2幕인 貿易과 投資에 의한 對外開放도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單純히 合營法の 內容 그 自體가 갖고 있는 意味보다는 북한이 취하고 있는 政策路線의 特性 때문인 것이다. 지금까지 北한이 實施해온 開放政策은 문을 약간 열고 눈앞에 實利만을 취하려는 것이었다. 그것도 대문 하나를 점점 넓게 열어 안밖으로 왕래가 이루어지면서 여러가지가 뒤섞이는 것이 아니라 몇개의 들창문만을 약간씩 열고 똑같은 것만을 여기저기 틈으로 날아 들어오게 하는 것이었다. 더우기 밖으로 나가 보는 식구는 거의 없고 資本과 技術 두가지만 들어오게 하되 여기에 겹쳐서 들어오는 사람이나 사물을 제멋대로 섞이지 못하게 철저히 統制하되 可及的 思想汚染을 最小化하는 方式의 개방이었다.²⁰⁾

註 20) 이희상, “북한의 경제개방 노력과 전망”, 國土統一院 主催 국제심포지움 자료집, 1989. 8.

이와같이 消極的이고 統制的인 開放政策을 취하지 않을 수 없는 理由는 북한만이 갖고 있는 特殊한 環境에 있다. 社會主義國家에 있어서 指導者의 交替와 더불어 改革과 開放政策이 추진되어 왔다. 새로운 지도자는 自身の 「이미지」를 刷新시키고 새로운 統治基盤을 構築하기 위하여 政策路線의 變更을 試圖하게 되고, 이를 強力히 추진하기 위하여 前任者에 대한 批判이나 格下運動을 展開하여 前임자를 追從하던 勢力들을 숙청하게 된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金日成이 生存해 있고 그 後繼者인 金正日에 의하여 政策轉換이 着手되어야 하기 때문에 즉 새로운 政策路線이 아닌 既存의 政策路線下에서 變化를 企圖하여야 하는 상당한 制約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

80年代의 開放政策은 合營法 以後의 外國人投資 實績과 對外交易 規模 등으로 評價할 수 있다. 1989年 3月까지의 外國人投資 實績은 그 期待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었다. 成事된 投資件數는 모두 26件에 不過하였으며, 그나마 朝總聯系와 中國 및 소련이 大部分이었고 西方世界는 불란서의 단 1件이었다. 投資의 重點分野로서는 工業, 運輸, 建設, 科學技術 및 觀光事業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으나 그 대부분이 소규모 「서비스」업종에만 편중된 投資였었다.

交易의 多邊化와 擴大政策에 力點을 두어 왔음에도 不拘하고 國民總生産 對比 交易規模는 늘어나지 않고 있으며, 西方과의 교역규모는 오히려 상대적인 減少傾向마저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1次產品의 輸出과 2次產品의 輸入이라는 垂直的 貿易構造에도 별다른 向上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輸入의 增加率이 輸出의 增加率

을 앞서므로써 貿易收支는 계속 惡化되고 있다.

그리하여 북한은 모든 手段과 方法을 다 動員하여 必死的으로 外貨獲得에 血眼이 되고 있다. 또한 韓國의 成功的인 올림픽開催에 대응이라도 하듯 평양축전을 開催하여 수십억달러의 外貨를 浪費하고 萬餘名의 外國人을 불러 들였다. 그러나 그 결과는 북한의 恥部만을 드러냈으며, 外部世界の 높은 發展相과 自由로운 行動에 대한 憧憬心만을 심어주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최근에는 觀光客數도 줄어들었고, 思想汚染에 대한 새로운 鬪爭運動까지도 展開되고 있다.

이와같이 1980年代의 貿易과 投資에 의한 公開的이고 公式的인 第2幕의 對外開放도 退場하게 되었으며, 1990年代의 第3幕인 對外開放은 投資와 觀光이 主流를 이루게 될 것이나 南北韓間의 經濟協力도 커다란 支流로서 登場하게 될 것으로 展望되고 있다.

Ⅵ. 東西間 協力の 本質과 段階

가. 協力の 本質과 視角差

資本主義國家에서는 經濟가 發展하면서 過剩生産과 過小消費의 不均衡으로 인한 矛盾이 經濟恐慌으로 表出되었다. 그리고 過小市場, 資源不足 및 高賃金이라는 難題를 克服하기 위하여 그 突破口를 海外에서 찾으려 했다. 마찬가지로 社會主義國家에서도 經濟가 一定한 段階까지 發展하면 過小生産과 過小消費라는 矛盾이 長期停滯現象으로 表出된다. 그리고 資本不足, 技術落後 및 經營未熟의 難題를 克服하기 위한 突破口를 역시 海外에서 찾는다. 환언하면 資本主義社會는 利潤의 極大化를 實現하기 위하여 最適生産體制를 擇하며, 이는 規模經濟(Economies of scale)의 實現을 통하여 企業의 大型化를 가져온다. 그 결과 豐饒속의 貧困이라는 過剩(Surplns)의 矛盾을 招來한다. 社會主義社會는 最大生産을 實現하기 위하여 最大의 強制動員體制가 採擇되며, 이는 勤勞大衆들의 動機와 誘因을 減退시키는 原因이 되어 貧困의 惡循環이라는 過小(Shortage)의 矛盾을 惹起시킨다.

資本主義社會는 初期에는 過剩生産과 資源不足이라는 供給側의 矛盾을 克服하기 위하여 植民地를 획득하고 이들을 收奪한다. 그러나 後期에는 有效需要不足과 高賃金이라는 需要側의 矛盾을 克服하기 위하여 生産設備를 移轉시키는 海外投資를 하고 여기에서 生産된 製品을 逆輸入하는 形式을 取하게 된다. 즉 對內的 矛盾을 海外로 進出하는, 말하자면 남에게 주는 投資를 통하여 克服하여 왔다. 이

에 反하여 社會主義社會는 自力更生과 閉鎖社會로 인한 過小生産이라는 供給側矛盾이나 또는 過小消費라는 需要側矛盾을 모두 資本과 技術 그리고 經營術의 導入으로 克服하러 한다. 換言하면 東西協力の 本質은 過剩과 過小를 連結하는 補完關係를 통하여 相互間의 矛盾을 最小化하자는 것이며, 資本主義 쪽이 주는 立場이고 社會主義 쪽이 받는 立場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²¹⁾

그러나 經濟協力에 對해서는 상당한 視角의 差異를 보이고 있다. 資本主義側은 微視的 民間企業次元의 利潤追求가 主目的이지만, 社會主義側은 巨視的 政府次元에서의 經濟發展이 主目的이 된다. 따라서 社會主義쪽은 對西方 開放政策을 當事者의 共同利益보다는 巨視的 政治次元에서의 經濟開發手段으로서 擇하고 있다. 그러므로 貿易 보다는 借款을, 借款 보다는 投資를, 合作投資 보다는 直接投資를 希求하면서 경제적 從屬化나 隸屬化를 警戒한다. 資本主義 쪽은 對共產圈 經濟進出政策을 巨視的 經濟次元에서의 市場擴大手段으로서 擇하고 있다. 그러므로 直接投資 보다는 合作投資를, 投資 보다는 借款을 借款 보다는 貿易을 選好하면서 經濟的 依存關係의 從屬化를 企圖하게 된다.

이러한 視角差로 인하여 對共產圈 投資에 대해서도 當事者間에 상당한 見解差가 存在하게 된다. 投資國은 市場擴大, 資源獲得, 廉價勞動利用 및 利潤追求 등을 期待하고 있으나, 被投資國은 資本取得, 技

註 21) 辛昇哲, “東西間 體制收斂화와 經濟交流 및 協力” 中蘇研究 漢陽大學校, 1985. p.153.

術習得, 經營術利用 및 輸出增大 등을 期待하고 있다.²²⁾ <도표 6>에서 보는바와 같이 이상과 같은 反對概念의 體制的인 視角差나 見解差로 인하여 東西間의 交流와 協力은 相互補完性을 갖고 있으면서도 많은 摩擦과 葛藤을 일으키게 된다. 따라서 東西間의 交流와 協力에는 몇가지 前提條件이 充足되어야 한다.

가장 重要한 첫번째 前提條件은 體制上의 反對概念의 解消이다. 다시 말하면 體制改革을 통한 收斂化가 이루어져야 한다. 經濟政策이나 運營原理의 類似性이 存在해야만 相互間의 交流를 통한 共存關係가 成立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收斂化 現象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後行者인 社會主義體制가 先行者인 資本主義體制의 要素를 導入하기 시작함으로써 浮上되기에 이르렀다.

두번째 前提條件은 서로가 交流와 協力を 하고자 하는 意向의 與否이다. 서로가 信賴하고 依存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造成되어야 한다.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먼저 敵對關係가 解消되어야 한다. 말하자면 脫「이데오로기」現象과 더불어 軍備縮小를 통한 和解「무드」가 造成됨으로써 共存共榮이 可能하게 되어야 한다. 이미 이러한 與件도 소련의 「브레즈네프 닥트린」(Breznev Doctrine)의 緩和와 軍縮協商의 順調로운 進行 그리고 新思考(New thinking) 外交路線에 따른 開放政策 등으로 크게 무르익어 가고 있다.

세번째 要件은 相互間에 補完關係가 成立됨으로써 授受(Give &

註22) 劉承民, “亞太地域 經濟共同體 구현을 위한 韓·日·中國의 位相과 役割”, 세계평화교수협의회 주최 학술세미나, 1988. 10. p. 22.

區 分	西方世界 (資本主義陣營)	東方世界 (社會主義陣營)
運營實態 와 그 結果 (矛盾)	利潤極大化를 위한 最適生 產規模 經濟實現을 통한 大型化 ↓ 過剩生産 > 過小消費 → 恐慌 공요속의 빈곤 (過剩의 모순)	最大生産을 위한 最大強制 動員, 「인센티브」不在와 動機상실 ↓ 過小生産 > 過小消費 → 停滯 빈곤의 악순환 (不足의 모순)
協力實相 과 그 手段 (協力の本質)	海外에의 突破口 (投資進出) 設備移轉 = 주는 立場 ↓ 微視的 民間企業次元의 利 潤追求 投資 (直接 → 合作) → 借款 → 貿易 (經濟的, 相補 的 依存性 심화)	海外에의 突破口 (投資受容) 技術과 資本導入 = 받는 立場 ↓ 巨視的 政府次元의 經濟開 發, 貿易 → 借款 → 投資 (合作 → 直營) (경제적 예측과 종속적 경제)
同床異夢 의 視角差 (投資期 待效果)	市場 擴大 ↓ 資源 獲得 ↓ 廉價勞動利用 ↓ 利 潤 追 求	資 本 取 得 ↓ 技 術 習 得 ↓ 經 營 術 利 用 ↓ 輸 出 增 大

take) 關係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바탕이 있어야 한다. 西方世界
는 供給過剩과 需要不足의 矛盾을 갖고 東方世界는 供給不足과 需

要過剩의 矛盾을 갖고 있다. 中國과 소련은 地大·人多·物博이라는 經濟大國으로서 資源과 市場을 갖고 있고, 美國과 日本은 高度産業 社會로부터 第3次産業社會로 移行되어 가는 經濟富國으로서 資本과 技術을 갖고 있다. 말하자면 經濟構造面이나 發展段階面에서 볼 때 垂直分業體系는 물론 水平分業關係도 形成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 되어 있다.

네번째 要件은 資本主義쪽이 주는 位置에 있기 때문에 經濟力面에서 크게 앞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社會主義와의 交流와 協力에 있어서는 그들의 經濟發展을 支援해줌으로써 生活水準의 向上을 통한 共產圈 社會主義理念의 稀釋을 促進시키고자 하는 底意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즉 經濟的 優位の 立場에서 먼저 주고 나중에 받을 수 있는 餘裕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말하자면 短期的이고 可視的인 經濟的 損失을 長期的이고 不可視的인 政治的 利益으로 補償받을 수 있을 때까지 甘受할 수 있는 未來指向的 投資를 忍耐性있게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餘力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東西間의 交流와 協力は 國交가 없는 狀態에서 政經分離下에 推進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더우기 國交가 있다하더라도 不便한 關係下에서 和解를 促求할 目的으로 추진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따라서 上述한 諸要件을 具備하였다 하더라도 一定한 段階的 過程을 밟아야만 順調롭게 進行될 수 있는 것이다.

나. 協力の 段階와 形態

東西間 協力の 類型은 크게 두가지로 나눈다. 그 하나는 異民族異體制間의 協力이며, 다른 하나는 同民族異體制間의 協力이다. 前者에 있어서는 西方世界側을 ① 美國과 日本, ② 西歐, ③ 新興工業國과 開發途上國을 한 쪽으로 하고 東方世界側을 ① 소련과 中國, ② 東歐, ③ 기타 群小共產圈을 다른 쪽으로 하는 相互間의 組合的 結合關係에 의하여 여러가지 「모델」이 形成될 수 있다. 그 중에서 西方世界가 社會主義에 進出하는 代表的 「케이스」는 東歐型과 中國型이다. 그리고 後者에 있어서는 獨逸型과 中國型 그리고 韓國型을 들 수 있으나, 韓國型은 아직 形成되지도 못하고 있다.

東歐型은 소련의 赤色帝國主義下에 政治, 經濟 및 軍事的으로 완전히 隸屬되어 있는 東歐를 그 쇠사슬에서 풀어주기 위한 것이었다. 換言하면 經濟發展을 支援해줌으로써 1次的으로 經濟的 從屬性을 離脫시켜 政治的 自主性を 回復시키기 위한 政治的 目的이 主가 되었다. 그 결과 東歐諸國은 오늘날 經濟的으로 소련에 대한 資源과 原資材에의 隸屬性和 西方에 대한 資本과 技術에의 隸屬性이라는 二重的 從屬關係로 分離되었으며, 政治的으로도 상당한 정도의 自決權을 認定받게 되었다.²³⁾

東歐國家들은 改革派 國家群과 保守派 國家群으로 二分化되고 있고, 前者는 소련의 默認下에 또는 容용하에 改革과 開放政策을 獨自的으로

註 23) 辛昇哲, “開放政策面에서 본 蘇聯의 東歐政策”, 한국공산권연구협회의회 연구논총 第7輯, p.172.

로 斷行하면서 소련으로부터의 遠心作用에 의하여 分離되면서 西歐로의 求心作用으로 近接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後者에 있어서도 內部的으로 밑으로부터의 改革要求로 인하여 改革의 바람이 불어닥치고 있다. 이와같이 東歐圈內에는 民族主義의 高昂과 「막스·레닌」主義의 退色 그리고 經濟的인 對西方開放과 政治的인 民主化의 熱風이 불어닥쳐 소련의 衛星國體制가 붕괴되어 가고 있다.

中國型은 中·소間의 霸權鬭爭關係에서 弱者인 中國을 支援함으로써 勢力均衡關係를 形成하자는 것이었다. 中國을 經濟的으로 支援하여 經濟力을 強化시킴으로써 政治的으로는 對蘇牽制力을 強化하는 한편, 經濟的으로는 방대한 市場과 資源에의 接近을 企圖하는 二重目的을 가진 接近이었다. 그 결과 中國은 오늘날 社會主義陣營內에서의 改革과 開放政策의 先頭走者가 되었으며, 東北亞에서의 地政學的인 힘의 求心點으로서 地域安定化의 가장 큰 變數로 浮上되었다. 뿐만 아니라 全 海岸都市의 開放으로 黃海經濟圈을 構想하면서, 東北 3省이 位置한 舊滿洲地域을 亞太經濟協力圈의 中心部로 開發하여 21世紀의 太平洋時代에 있어서 그 主役을 擔當하고자 한다.²⁴⁾

同民族異體制間의 協力「모델」인 中國型은 두 개의 中國을 是認하면서 1國2體制의 統合을 前提로 하는 中國主導型的 相補的 協力型이다. 中國과 대만간에는 현재 第3國 특히 홍콩을 經유하는 間接貿易이 大部分을 차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直接交易의 比重이 크게 增大될 것으로 展望되고 있다. 왜냐하면 中國側의 3通政策 또

註 24) 辛昇哲, “太平洋時代와 黃海經濟協力圈 構想”, 經濟研究, 漢陽大學校, 1988, pp.127-133.

는 統一戰略 次元의 直接交易政策이 대만측의 3不政策 또는 安保次元의 間接交易政策을 壓倒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97年의 홍콩 반환이나 中國의 華人系 經濟協力圈 構想이 直接交易을 不可避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대만은 中國으로부터 石炭이나 棉花 등 工業과 農業의 主要 原資材를 輸入하고, 機械, 電子製品, 運輸裝備 및 각종 工產品을 輸出하는 相補的 貿易去來를 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投資를 통한 經濟協力の 比重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豫想되고 있다. 왜냐하면 대만내의 企業環境은 勞使紛糾나 高賃金 등으로 惡化되고 있으며 中國은 대만인의 自由로운 本土往來와 人的交流을 許容하며 대만 企業人들의 本土에의 投資를 獎勵하고 있기 때문이다.

獨逸型은 위대한 獨일을 再建하기 위한 統一을 前提로 하는 독일정책 (Deutschland Politik)의 一環으로써 西獨이 主導하는 對東獨支援協力型이다. 東西獨間의 貿易은 內獨去來로 취급되어 無關稅이며, 政府間 貿易協定에 의한 協定貿易으로써 求償貿易 혹은 對應貿易의 形態을 띤다. 특히 1972年 基本條約締結 이후에는 民間交流가 활발히 되고 貿易爲主의 協力은 물론 새로운 角度의 協력이 등장하였다. 첫째는 長期借款提供으로써 여러가지 형태의 合作事業이 展開되는 産業分野에서의 協力이다. 즉 「플랜트」수출, 國際下請, 部品調達, 委託生産 및 合作投資 등의 형태로써 앞으로 이 분야의 協力は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豫상되고 있다. 둘째는 東獨의 外貨獲得을 支援해주는 것으로써 西獨人이 東獨을 訪問하였을때 “強制的

東獨貨 兌換制”가 그 代表的인 것이다.²⁵⁾

東方政策은 對決構造를 平和構造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먼저 民族的 統合意識을 갖기 위한 民族共同體를 形成하고 나중에 政治的 統一을 實現하는 政治共同體를 이룩하자는 것이었다. 따라서 「스포츠」, 文化, 科學, 技術, 環境, 觀光, 通信, 交通 및 人的交流 등 民族共同體 形成을 위한 광범위한 모든 分野에서의 모든 형태의 접촉을 同時에 다 實施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交流는 西獨이 優位의 立場에서 東獨을 支援하는 것이었으나 支援內容에 대한 秘密保障이나 體制不干涉原則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遂行되어 왔다. 특히 東獨을 支援하는 主要한 形態는 貿易去來上의 諸用役費를 廉價로 提供하며, 一定限度까지의 貿易代金을 無利子로 信用供與하며 對西歐 輸出의 代行役을 맡는 등 가능한 한 모든 便宜를 提供하여 주고 있다. 그리하여 東獨을 歐洲共同體의 準會員國 또는 第13번째의 會員國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最近 東獨內에서는 改革과 開放의 바람이 불고 있고 東獨人들의 西獨으로의 脫出이 대규모적으로 進行되고 있다. 그리하여 歐洲 한 半島에 人口 8,000 萬名, GDP 1兆 4,000 億달러, 兵力 66 萬名의 大國을 등장시키려는 독일인의 꿈이 또 다시 되 살아나고 있다. 東歐에서 가장 保守이었던 東獨이 改革과 開放을 斷行하게 된다면 東西獨間에는 第4段階의 새로운 協力方案이 등장할 것이며, 그것은

註25) 朴聖祚, “東西獨間의 交流 및 協力形態와 南北韓 交流에 주는 示唆點”, 國土統一院 “南北韓經濟交流協力에 관한 國際심포지움” 자료집, 1989.8. p. 5.

곧 自由去來와 自由往來라는 形式을 통하여 東獨人的 生活水準을 크게 向上시키는 方式이 될 것이다. 이와같이 生活水準이 平準化되어 事實상의 經濟的 單一化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政治的으로도 西方式의 價値 즉 自由化와 民主化를 認定하게 되어 一國二行政體制라는 聯合體方式을 통한 自然스러운 統一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異質體制間에 그것도 國交가 없는 가운데서 接近하자면 一定한 過程을 밟으면서 段階的으로 進行되어야 한다. 가장 重要하고 源初的인 접촉은 災難時의 人道的인 援助나 離散家族에 대한 書信往來 및 相互訪問의 許容이다. 이와같은 同族間的 人道的 友愛와 接觸의 바탕 위에서 體育, 文化, 學術 및 藝術 등 非政治的이고 非經濟的인 交流와 協力이 뒤 따르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일반적인 接觸이 어느정도 成熟한 다음에 經濟的인 交流와 協力を 통하여 相互補完的인 協力關係를 形成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本格的인 政治的 接近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²⁶⁾

물론 이러한 4段階의 過程이 반드시 一定한 時差를 두고 順序대로 일어나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過程이 短縮되거나 또는 한 두 過程이 同時에 推進될 수도 있다. 韓國의 對共產圈 接近過程은 中國의 民航機事件, 86 아시안게임 및 88 올림픽개최를 통하여 第1 및 第2段階 接觸을 本格化하였고, 現時點에 있어서는 經濟的 接觸이 着手되는 第3段階 進入期에 들어 선 것이다. 그러나 一部國家와는 이미 政治的 修交까지도 同時的으로 맺게 되었다.

註 26) 辛昇哲, “東西間 體制收斂化와 經濟交流 및 協力” 上同 p.157.

北韓과의 關係에 있어서는 停戰軍事會談, 南北赤十字會談, 體育會談, 經濟會談 및 國會議員間的 政治會談까지도 거의 同時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全過程 各段階의 該當되는 各種形態의 接近이 同時多發的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赤十字會談을 제외하고는 그 어느 하나도 제대로의 成果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곧 接觸不在 또는 協力不在를 뜻하는 것이며, 아직도 南北間에는 第1段階인 人道的 接觸過程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VII. 經濟的 接近方式과 그 段階

가. 一般的 類型

經濟的 接近方式은 民間「베이스」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政府 「베이스」로 移行되어야 한다. 그리고 民間「베이스」의 接近은 政府의 不承認下에 秘密裡에 進行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政府의 默認下에 이루어지는 것과 더 나아가서 政府의 承認과 態蘊은 물론 그 支援下에서 推進되는 것으로 區分된다.

政府「베이스」에 의한 經濟的 접근은 政治的 「쇼」나 「제스츄어」를 위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단순한 實利的인 相互補完關係의 協力과 더 나아가서 政治的 目的達成이나 또는 經濟的 統合을 前提로 하는 一方的인 支援的 性格의 協力 등으로 分類된다. 現在까지의 進行過程으로 보아 韓半島에서는 單純한 誇示性 接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中國에 있어서는 相互實利的 補完型이 그리고 獨逸에 있어서는 一方的 支援型이 展開되고 있다.

그리고 <도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經濟交流와 協力の 形態는 初期段階와 中期段階 그리고 後期段階로 區分되며 그 內容 또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初期인 交流段階에서는 商品이라는 物資交流와 「플랜트」借款供與 및 最小限의 技術人力交流 등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交流는 可及的 이면 서로 交流는 하되 必要에 따라 언제든지 中斷할 수 있는 것으로서 말하자면 서로 뒤섞이지 않는, 相互依存性을 最小化하는 性格을 띠고 있다. 그러나 中間段階인 協力過程에 접어들게 되면 서

<도표 7>

交流와 協力の 段階 및 方式

區 分	前 期 (初 期)		後 期 (成 熟)
相互接觸 段 階	基本段階 (기반조성) ① 人道的 支援 ② 學術, 文化, 藝術, 體 育 (非經濟的, 非政治 的)		本格段階 (活性化) ① 經濟的 接觸 ② 政治的 接觸
主體와 方 式	民間「베이스」단계 • 政府의 不承認下 • 政府默認下 • 政府承認 (支援) 下		政府「베이스」단계 • 政治的 展示性 • 單純한 實利的 相補性 • 統合前提의 一方的 支援性
經濟的 交流와 協力形態	初期段階 (交流) • 商品 (物資) 交流 • 「플랜트」 借款 • 技術人力交流	中期段階 (協力) • 生産要素의 移動 • 産業間協力 (分業) • 共同開發事業	後期段階 (統合) • 社會間接資本 形成 • 生活水準의 平準化 • 政策의 單一化

로 뒤섞이면서 相互補完的이고 依存的인 關係가 深化되는, 즉 깊은 聯關性을 맺게 되는 交流보다는 協力の 形態를 취하게 된다.

産業間分業, 製品差別化分業 및 工程間分業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國際下請, 部品調達, 委託生産 등 産業間 또는 産業內 緊密한 聯關關係가 이루어지게 되며, 이러한 依存性的 增大와 더불어 資本과 技術 및 人力 등 各種 生産要素의 移動은 물론 地下資源, 林山資源, 水産資源 및 觀光資源 등을 共同開發하게 된다. 그리고 後期 統合段階에 進入하게 되면 그야말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보다 깊숙한 單一經濟圈을 形成하게 된다.

電子, 通信, 交通 등 社會間接資本 形成에도 參與하여 經濟活動을 위한 共同的 廣場을 넓히고, 生活水準의 平準化를 위한 諸般의 交流와 協力을 적극 支援하기에 이른다. 이와같이 産業構造의 同質性이나 生活水準의 平準化라는 過程을 통하여 經濟政策의 收斂化라는 單一化 過程이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經濟的 同質性 回復은 물론 單一經濟圈으로의 統合過程이 進行되면서 政治的 接觸 또는 統合으로의 作業도 併行하게 될 것이다.

가장 最初로 接觸되는 商品交易에 있어서도 初期에는 第3國을 통하여 間接적으로 이루어지는 間接貿易이 主流를 형성한다. 그리고 直接貿易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可及的이면 硬貨를 使用하지 않고 貿易收支의 隔差를 發生시키지 않는 求償貿易이나 對應貿易의 方法이 채택된다. 그리고 비록 有換去來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輸入代金を 自國産 製品の 輸出로 辨濟하는 補償協定(Compensation Agreements), 對應購買(Counter-Purchase), 「스위치」去來(Switch-trading) 및 製品再購買(Product buy-back) 방식 등이 利用된다.

이러한 方式이 채택되는 것은 社會主義國家에 있어서 外貨不足을

감안한 不可避한 조치이다. 따라서 共產圈과의 貿易을 市場 擴大策으로 利用하기에는 상당한 制約性을 갖게 된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의 脆弱性을 補完해주면서 經濟開發이라는 循環過程에 參與하여 友好關係를 回復하는 것을 第1次的 目標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必要로 하는 商品의 輸出潛在力을 開發하는 데에 重點的으로 支援하여 이를 輸入함으로써 補償받을 수 있는 實利的 接近關係는 第2次的인 目標가 되어야 할 것이다. 換言하면 初期의 讓步와 損失을 낚시할 때에 밀박주는 것과 같은 基礎的인 基本投資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商品貿易이 進行되면서 후속적으로 「플랜트」借款이나 技術人力的 移動이 뒤 따른다. 그러나 「플랜트」種類도 初期에는 社會主義陣營의 「보틀네크」를 해소하는 開發戰略의 一翼을 담당하는 것에 局限되어 왔으나, 改革과 開放政策 이후에 있어서는 점차 輕工業 및 電子工業 등 多元化되면서 生活水準向上의 一翼을 담당하는 樣相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改革과 開放政策을 成功시키려는 그들의 意慾과 이를 支援하여 加速化시킴으로써 共存 共榮하려는 西方世界の 意圖가 默示的으로 迎合한 結果의 產物인 것이다.

社會主義國家의 經濟的 矛盾은 단순한 商品交易이나 「플랜트」導入만으로써 解消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더우기 外貨를 獲得하기 위해서, 그것도 外貨稼得率을 높이기 위해서는 國際競爭力 있는 多品種 商品을 生産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자면 西方世界の 資本과 技術을 導入하고 經營術마저도 支援을 받으면서 自國의 人力과 原資材를 結合시키는 형태의 投資協力이 要求된다. 따라서 中期段階에

접어들게 되면 東西間의 經濟交流와 協力이 政治性 보다는 經濟性 原理에 의하여 움직이게 된다. 말하자면 比較優位原理에 따른 水平 分業이나 國民經濟의 構造的 特性에 따른 垂直分業 형태의 產業間 또는 產業內의 工程間 協力이 本格化된다.

그러나 短時日內에 國際競爭에 있는 製品을 生産하고 輸出한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다. 따라서 活用可能한 모든 可用資源을 西方의 資本과 技術로 共同開發하는 一石二鳥 또는 三鳥格의 次元 높은 協力方法을 채택하게 된다. 이와같이 產業協力이나 共同開發事業 등이 추진됨으로써 經濟的인 相互依存性이 더욱 深化되게 되면 그 다음 段階로서 經濟協力體를 結成하고자 한다. 勿論 地域經濟協力國을 事前的으로 結成하여 經濟協力を 推進하려는 逆進的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움직임이 黃海經濟協力圈이니 또는 東北亞經濟協力圈이니 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經濟的 統合 (Economic integration) 은 여러 段階의 過程을 거 치면서 이루어 지는데 이러한 一連의 諸過程을 總稱하여 經濟協力 體라 한다. 自由貿易地域 (Free trade area), 關稅同盟 (Customs union), 共同市場 (Common Market) 및 經濟同盟 (Economic union) 등의 過程이 그것이다. 즉 國家間에 關稅를 引下하거나 撤廢하고 貿易의 數量的 制限조치를 除去하는 自由貿易의 實現으로부터 始作하여 域外에 대한 共同關稅政策을 채택하고 域內國家間에 勞動, 用役, 資本, 技術 및 資源 등의 諸生産 要素의 自由로운 移動을 保障하게 되고 終局的으로는 經濟政策이나 運營面에서의 統一化를 追求하는 單一經濟圈으로 統合되기에 이른다. 더우기 單一經濟圈이 되 기 위한 先行的 前提條件을 社會間接資本은 共同으로 形成하고 共

同利用하거나 또는 生活水準의 平準化를 기함으로써 同質의 經濟與件을 갖추는 것이다.

나. 分斷國 類型

前述한 바와 같이 同民族 異體制間 接近「모델」로서는 中國型과 獨逸型이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독일형을 中心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中國型은 經濟規模上的 엄청난 格差가 있고, 대만이 아닌 中國의 主導로 進行되고 있어, 우리의 與件과 크게 다르며 뿐만 아니라 이제 막 着手되기 시작한 不定型的 類型이다. 그러나 獨逸型에 있어서는 國土의 크기, 人口의 規模 및 GNP 크기에 있어서 東西獨間的 격차와 南北韓間的 격차에 있어서 비슷한 對照가 되고 있으며, 西獨이 主導하는 一方的 支援樣相도 우리의 경우와 잘 어울린다. 그리고 獨逸型은 40餘年間に 걸쳐서 定型化되어 있고, 일반적인 接進形態와 段階를 比較的 잘 따르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南北韓間的 交流와 協力方案을 講究함에 있어 많은 示唆點을 提供할 수 있다.

東西獨間的 交流와 協力에 있어서는 두개의 轉換點을 起點으로 하여 커다란 變化樣相이 나타나고 있다. 첫번째의 轉換點은 1972年의 兩獨間的 基本條約의 締結이었고, 두번째의 轉換點은 1989年의 東獨의 「호네커」退陣과 共產體制의 大變革이 그 것이다. <도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基本條約締結 이전인 第1段階(1950~1971)에 있어서는 政府의 默認이나 또는 承認下에 進行된 內獨 貿易去來가 주로 行하여 졌으나, 활발하지 못한 小康狀態를 지속하

段 階	摘 要	備 考
1 段 階 (1950 - 1971) 小 康 期	內獨貿易去來 (政府默認 또는 承認下에 進行)	지속적인 伸張勢
2 段 階 (1972 - 1986) 安 定 期	多方面에 걸친 各種交流: 두가지 重點的 協力分野 ① 産業分野에서의 協力 ② 外貨獲得에 대한 協力	政府支援下에 民間主導
3 段 階 (1987 - 1989) 促 進 期	科學技術協力 環境保護協力 文化交流協力 放射線保護協力	公式的 次元의 協力 協定締結
4 段 階 (1990 -) 成 熟 期	生産要素의 交叉的 移動 } 自由往 可用資源 共同開發 } 來와 生活水準의 平準化 } 去來 下部構造의 共同形成과 利用	東獨의 改革政策 雙方的 協力 經濟單一化 試圖

하면서 比較的 꾸준한 伸張勢를 보여왔다. 그리고 이러한 貿易去來는 그 이후 지금까지도 꾸준한 伸張勢를 보이면서 西獨側의 貿易黑字로 나타나고 있다.

基本條約締結 이후 오늘날까지의 期間(1972 ~ 1989)은 또 다시

두 段階로 區分된다. 第2 段階(1972 ~ 1986)는 政府의 支援下에 民間主導로 多方面에 걸친 각종 交流가 활발하게 展開되던 비교적 安定을 유지하던 기간이었다. 특히 이 期間에 이루어진 두가지 重點的 協力分野는 東獨의 經濟發展에 적극적으로 參與하고 支援해주는 產業分野에 대한 集中的 協力과, 東獨으로 하여금 外貨獲得을 손쉽게 하도록 西獨人들의 東獨訪問時 強制的 東獨貨 交換制를 비롯한 外國人專用 免稅店, 호텔 및 住油所 등에서의 外貨使用은 勿論 東獨製品에 대한 代理輸出까지도 擔當하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第3 段階(1987 ~ 1989) 期間은 짧은 3年에 不過하게 되었지만, 이 기간에 西獨은 公式的인 次元에서 東獨과 科學技術協力, 環境保護協力, 文化交流協力 및 放射線保護協力 協定 등을 締結하였다. 이 기간은 政府主導下에 兩獨間의 協力を 本格化한 促進期에 該當하며, 西獨의 絶對的 優位性이 實證되는 時期였었다. 이러한 東獨人들의 對西獨 衝擊效果와 憧憬心이 東歐改革國家들의 急進的 改革에 刺戟되어 그것이 한편으로는 改革要求의 示威로 또 다른 한편으로는 西獨行 脫出로 表出되고 있는것 같다.

1990 年代는 東獨共產黨의 大變革으로 改革과 開放政策이 斷行됨은 물론, 이에 便乘하여 雙方的인 相補的 協력이 本格的으로 추진되는 成熟期에 進入할 것으로 豫想된다. 그리하여 生産要素의 大規模的인 交叉的 移動과 可用資源의 共同開發事業이 擴充되어 갈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前述한 바와 같이 自由往來와 自由去來 그리고 下部構造(Infrastructure)의 共同形成과 共同利用 또는 生活水準의 平準化 등 單一經濟圈의 形成이라는 經濟統合化에 注力할 것으로 豫想된다.

東西獨間에는 40餘年 동안 交流와 協力이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고 擴大되어 왔고 또 深化되어 왔다. 그것은 兩獨間에 內部的 協力意志가 民族的 次元에서 強烈하게 作用하였기 때문이다. 더우기 西獨은 統一이라는 政治性 用語를 使用하지 않으므로써 統一理念을 拋棄라도 한듯이 보여 왔다. 그러나 실은 一方的 支援 또는 援助는 곧 統一을 위한 가장 確實한 接近戰略이라고 생각하여 왔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兩獨間의 協力에 있어서는 항상 政治的 目的이 比重을 나추면서 學問的 次元 또는 民族的 同質性回復의 次元만을 浮刻시켜 왔다.²⁷⁾ 그러나 東獨은 이러한 西獨의 接近에 대하여 懷疑를 품고 주저하여 왔으며, 交流와 協力으로부터 誘發될 수 있는 政治的 結束의 瓦解를 우려하여 왔다. 그렇지만 이것은 名分을 앞세운 것이 아니라 實利的 次元에서의 打算에 의한 것이었다.

이와같이 같은 民族일지라도 理念과 體制가 다르고 더우기 敵對關係에 있다면 상당한 忍耐心과 끈기를 가지고 接近해야 한다. 따라서 經濟的 交流와 協力에 있어서도 長期的 眼目を 가지고 段階的으로 接近해야 할 것이다. 初期에는 物資나 資本 또는 技術과 그 人力등 서로 뒤 섞이지 않고 獨自性을 維持할 수 있는 方法이 要求된다. 그리고 점차 서로가 서로를 理解하고, 必要로 하고 同族愛를 느끼게 될 때 產業間 또는 工程間 協力이라는 投資와 資源의 共同開發事業과 같은 서로 어울려서 和合性을 提高시킬 수 있는 方法이 講究되어야 할 것이다. 後期에 이르면서는 同質性 回復이라는

註 27) 林陽澤, “前揭書”, pp. 245 - 246.

民族共同體 즉 單一經濟圈形成을 指向하는 生活水準의 平準化나 國民經濟의 構造的인 相互依存性を 深化시켜 나가는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獨自性, 和合性 그리고 同質性이라는 段階를 追求하는 過程에 있어서도 現狀維持를 固守하고자 하는 非彈力的이고 硬直的인 社會 그것도 發展段階나 經濟力面에서 상당한 格差를 보이고 있는 社會를 대상으로 함에 있어서는 <도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은 몇 가지 準則이 要求된다.²⁸⁾

첫째 政治的 目的과 經濟的 目的이라는 二重的 目的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民族再統合인 統一은 長期目標이어야 하고 經濟發展에 대한 支援은 短期目標이 되어야 한다.

둘째 어느 한 쪽이 授惠者의 立場에 서서 主導的으로 特惠를 賦與하는 形式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互惠平等의 原理를 標榜하기 위해서 授受關係에 대한 機密은 保障되어야 한다.

셋째 經濟構造上的 脆弱性を 相互補完的이고 依存的으로 克服시켜 나가야 한다. 그러나 相對方의 國力伸張을 增大시킬 수 있는 協力は 可及的 避하여야 한다.

넷째 民間「베이스」와 政府「베이스」 등 二元的 接近戰略이 多方面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獨自性を 維持하는 初期에 있어서는 民間主導가 바람직하고, 同質化過程에 進入하는 後期에 있어서는 政府主導下에 進行되어야 할 것이다.

註 28) 辛昇哲, “東西間體制 收斂化와 경제교류 및 협력”, 상동 pp. 168 - 169.

<도표 9> 同民族 異體制間의 接近段階와 準則事項

區 分	摘 要
段 階	1 段階 (서로 섞이지 않는) : 獨自性 (物資 · 資本 · 技術) 2 段階 (서로 섞이는) : 和合性 (投資와 共同開發) 3 段階 (서로 하나가 되는) : 同質性 (平準化와 依存性)
準 則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民族再統合은 長期目標, 經濟發展支援은 短期目標 ○ 特惠의 授受關係에 대한 機密保障 ○ 相對方 國力伸張을 支援하는 協力を 回避 ○ 民間은 獨自性 維持協力を, 政府는 同質化過程의 協力 ○ 多角的인 接觸을 하되 體制干涉行爲는 禁物 ○ 可及的, 順次的 段階를 준수하되 손쉬운 것부터 着手

다섯째 相補的 協力意志가 反映되는 基本條約을 締結한 후부터 推進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그 이전이라도 政府의 默認下에 公開 또는 非公開로서도 多角的인 接觸이 要求되나 體制干涉行爲는 絕對禁物이다.

여섯째 一定한 段階的 過程을 밟으면서 順次的으로 進行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손쉽고 가능한 것부터 着手되도 無妨하다.

Ⅷ. 南北韓間 交流와 協力の 可能性

가. 構造的 與件分析

南北韓間의 協力は 構造的 與件이 相互補完的인가 또는 政策的 與件이 協力指向的인가에 따라 크게 左右되는 函數關係를 갖는다. 그리고 構造的 與件 즉 經濟內的 要因은 發展段階的 產業構造, 天賦的 資源構造 및 輸出入貿易構造 등이 競合的인가 또는 相補的인가에 따라 判別되며, 政策的 與件 즉 經濟外的 要因은 周邊情勢의 變化, 當面한 政策的 課題 및 交流와 協力에 대한 姿勢 등이 選好的인가 또는 忌避的인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도표 10〉 南北韓 產業構造 比較 (1956 ~ 1987)
(單位 : %)

區 分	韓 國						北 韓						
	農林· 水産業		鑛工業		社會間接資本 및 기타 서비스		農 業		工 業		其 他 生産部門		非生産 部 門
	人口	GNP	人口	GNP	人口	GNP	人口	GNP	人口	GNP	人口	GNP	人口
1956		47.2		12.5		40.3		26.1		40.1		33.8	
1960		36.8		15.7		47.5		28.9		41.3		29.8	10.1
1965	58.6	38.4	10.4	19.8	31.0	41.8	56.3	24.4	21.1	51.5	10.5	24.1	12.1
1970	50.4	25.8	14.4	22.3	35.2	51.9	51.3	21.5	24.3	57.3	10.5	21.2	13.9
1975		24.9		28.0		47.1		21.8		63.0		15.2	
1980		14.6		30.9		54.5							
1985	24.9	13.9	24.4	30.9	50.6	55.3							
1987	21.9	11.7	28.1	32.2	50.0	56.1	38.0	20.0	37.0	60.0	12.0	20.0	13.0

資料 : 한국, 經濟企劃院, 「主要經濟指標」 各年度
北韓, 國土統一院, 「南·北韓總力趨勢比較」 1970, 1980, 1982.

- 註 : 1. 産業研究院, “南北韓經濟交流促進을 위한 中長期發展計劃(案)”,
p.67에서 재인용
2. 1987年度 北韓 수치는 추정치임.

〈도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韓國은 1975年 이후에 GNP 構成面에서 1次産業(24.9%) < 2次産業(28.0%) < 3次産業(47.1%)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雇傭構造面에 있어서도 1985年 이후에 1次産業(21.9%) < 2次産業(28.1%) < 3次産業(50.0%)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1970年代 후반의 重化學工業의 飛躍的인 發展과 1980年代 후반의 奢侈性 過消費風潮로 인한 流通서비스業의 肥大化現象을 反映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韓國은 名實共히 先進國型 産業構造를 갖추게 되었는데, 이것은 또한 高度한 用役化社會로 서서히 移行하면서 高資金社會로 指向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北韓은 1970年 以後에 와서 전혀 經濟的 總計數值를 發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確實히는 알 수 없으나, 産業構造面에서 1970年代나 10年後인 1980年代나 모두 거의 同一한 樣相을 띠고 있는 것으로 推定된다. GNP面에서의 産業構造에 있어서는 農業(20%) < 工業(60%) > 기타 生産 및 非生産部門(20%)의 形態가 그대로 維持되고 있고, 雇傭人口構造面에서 農業(38%) > 工業(37%) > 기타 生産 및 非生産部門(25%)의 樣相이 同一하게 維持됨으로써 아직도 農業國型 雇傭構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비록 農業人口가 51.3%에서 38%로 크게 줄고 工業人口가 24.3%에서 37%로 크게 늘기는 하였으나 GNP面에서의 構成比가 거의 同一하다는 것은 工業生産性이 엄청나게 減退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것을 좀더 具體的으로 各 部門別로 交流와 協力의 可能性을 分析한다면 다음과 같다.

一次産業인 農·林·水·畜産業 등에 있어서는 南北韓이 거의 同

質的이다. 그러나 氣候와 地域的 特性에 따라 一部 品種의 特產品이 있고 또 生産量에 있어서도 差異가 나타난다. 따라서 이러한 品種에 限하여 水平的 貿易이라는 去來가 可能할 것이나 그 規模는 그리 크지는 못할 것이다. 더구나 그것도 北韓의 外換事情을 감안한다면 韓國側의 一方的인 購買에 그치고 말 것이다.

2次産業인 工業部門에 있어서는 重工業과 輕工業 모두 韓國側이 優位에 있다. 특히 輕工業에 있어서는 品種, 數量, 品質 등 모든 面에서 壓倒的으로 優位에 있다. 따라서 輕工業分野가 對北韓進出에 있어서 그 中核을 이루게 될 것이나, 北韓側은 製品交易 보다는 「플랜트」借款提供이나 合作投資 方法을 希求하거나 固執할 것이다. 消費財生産의 增大를 통한 生活水準의 向上은 한편으로는 改革과 開放을 促進시킬 수 있는 刺戟劑가 될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南北間의 生活水準差를 줄일 수 있는 契機가 될 수 있는 것이다.

重化學工業分野에 있어서는 全般的으로 韓國側이 優位에 있다. 특히 精油産業이나 石油化學工業 또는 家電製品이나 産業用機器에 있어서의 電子工業에 있어서는 韓國側이 많은 短點을 갖고 있다. 그러나 分野別로는 北韓側이 優位를 占하고 있는 部門이 있다. 金屬工業分野에 있어서는 韓國이 鐵鋼業에서, 그리고 北韓이 非鐵金屬業에서 優位를 보이고 있다. 機械工業分野에 있어서는 韓國이 自動車와 造船業에서, 北韓이 工作機械工業에서 優勢하다. 따라서 이러한 優劣의 差等이 存在하는 分野에서는 工程間 또는 製品差別化 分業이 可能할 것이다. 그러나 重化學工業은 資本集約的이고 技術集約的인 製品産業일 뿐만 아니라 防衛産業과 直結되는 國力增進分

野이기 때문에 製品間 交流나 또는 分業的 投資協력이 容易하지는 않을 것이다.

天賦的인 資源構造面에 있어서는 北韓이 壓倒的인 優位를 占하고 있다. 觀光資源에서는 韓國은 이미 相當한 部分을 開發하였으나 그 大部分이 內國人用 觀光에 不過한 것이었다. 앞으로 國際的인 觀光名所를 開發하자면 보다 많은 投資가 要求되나 그 對象이 그리 많지 않다. 이에 반하여 北韓은 國際的 觀光名所로 開發할 수 있는 對象은 많으나 閉鎖社會的 屬성과 外資問題 때문에 아직 별로 開發되지 못한 狀態에 놓여 있다.

地下鑛物資源에 있어서는 〈도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北韓은 鐵 및 非鐵 등 金屬工業의 素材와 有煙 및 無煙炭 등 「에너지」源에서 絶對的 優位를 갖고 있다. 韓國은 다만 기타 몇가지 輕工業의 原資材가 되는 資源에서만 優位를 보이고 있다. 이와같이 豊富한 資源을 保有하고 있으면서도 北韓은 資源需要도 적고 開發도 잘 안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 自給自足狀態를 維持하고 있을 뿐, 이를 外貨獲得用으로는 活用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韓國은 資源貧國으로서 大部分을 輸入에 依存하고 있으나 그것도 遠距離輸送으로 高價로 購入하고 있다. 換言하면 北韓은 豊足한 地下鑛物資源과 화려한 地上觀光資源을 갖고 있으면서도 開發 못하고 있고, 韓國은 資源貧國으로서 高價로 輸入에 依存하면서 資本과 技術을 갖고 開發하려고 해도 開發할 對象을 별로 갖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이 分野가 共同開發事業에 가장 適合하며 雙方利益을 實現시켜 줄 수 있는 典型的인 相補的 協力の 對象이 될 수 있는 分野이다.

< 도표 11 >

南北韓 鑛物資源 埋藏量 比較

單位：1,000 噸

區 分	潛 在 埋 藏 量			賦 存 比 率 (%)	
	韓 國	北 韓	合 計	韓 國	北 韓
輝 水 鉛	32.5	2	34.5	94.2	5.8
망 간	1,250	200	1,450	86.2	13.8
螢 石	2,450	200	2,650	92.5	7.5
燧 石	10,000	125	10,125	98.9	1.1
高 嶺 土	40,000	2,000	42,000	95.2	4.8
硅 紗	31,613	6,600	38,213	82.7	17.3
鐵	200,000	3,000,000	3,200,000	6.2	93.8
鉛	640	12,029	12,669	5.1	94.9
석 회 석	1,490,000	100,000,000	101,490,000	1.5	98.5
마그네사이트	-	6,500,000	6,500,000	0	100.0
무 연 탄	1,450,000	11,740,000	13,190,000	11.0	89.0
유 연 탄	5,000	3,000,000	3,005,000	0.2	99.8
니 켈	217	1,200	1,417	15.3	84.7
금	0.5	1	1.5	33.3	66.7
重 石	185	232	417	44.3	55.7
銅	80	75	155	51.6	48.4
흑 연	1,600	2,000	3,600	44.4	55.6
활 석	600	600	1,200	50.0	50.0
베 리 륨	0.5	0.6	1.1	45.5	54.5

資料：國土統一院 (KIET : 전계서, p.73 에서 재인용)

對外貿易에 있어서는 <도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0年代 후반까지는 南北韓이 다같이 비슷한水準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나 1970年代에 들어서면서부터 韓國은 急伸張勢를 보여 현재는 貿易規模 1,000億弗을 突破하고 있다. 그리고 貿易依存度 역시 75%水準에 이르는 對外依存的 衛星經濟(Satellite Economy)가²⁹⁾

<도표 12> 南北韓의 對外貿易 概況 比較

單位：億달러, %

區 分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86	1987
韓 國	A. 輸 出 額	0.3	1.8	8.4	50.8	175.0	302.8	347.1	472.8
	B. 輸 入 額	3.4	4.6	19.8	72.7	222.9	311.5	315.8	412.0
	C. 貿易規模(A+B)	3.7	6.4	28.2	123.5	397.9	614.2	662.9	883.0
	D. 貿易收支(A-B)	-3.1	-2.8	-11.4	-21.9	-47.9	-8.6	+31.3	+60.8
	E. G N P	20	30	80	209	603	837	951	1,186
	F. 貿易依存度(C/E)	18.5	21.3	35.3	59.1	66.0	73.4	69.7	74.5
北 韓	A. 輸 出 額	1.5	2.1	3.7	8.1	14.4	13.5	14.9	16.7
	B. 輸 入 額	1.7	2.3	4.4	10.9	17.4	17.2	21.1	24.0
	C. 貿易規模	3.2	4.4	8.1	19.0	31.8	30.7	36.0	40.7
	D. 貿易收支	-0.1	-0.2	-0.7	-2.8	-3.0	-3.7	-6.2	-7.3
	E. G N P	15	23	40	94	135	151	174	194
	F. 貿易依存度	21.3	19.1	20.3	20.2	23.6	20.3	20.7	21.0

資料：國稅廳，韓國銀行，國土統一院(KIET：전계서 p.88에서 引用)

註 29) 衛星經濟란 Bert.F.Hoselitz가 自給自足的 發展類型(Dominant growth pattern)에 對應하는 概念으로서 對外依存的 發展類型(Satellitic growth pattern)을 指稱한 것이다.

되었으나 從前과는 달리 赤字依存國에서 黑字依存國으로 자리바꿈을 하였다. 그러나 北韓은 貿易依存도가 20%水準에 不遇한 閉鎖經濟體制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貿易伸張率 또한 대단히 不振하여 貿易規模가 韓國의 1/20 밖에 안되는 小規模이면서도 아직도 赤字만이 지속되고 있어 外債만이 累積되어 가고 있다. 換言하면 北韓은 무엇인가를 더 많이 팔아서 赤字를 벗어나야 하고, 韓國은 무엇인가를 더 많이 사거나 또는 海外에 投資할 수 있는 餘裕가 생기게 된 相反된 位置에 놓이게 된 것이다.

北韓의 對外貿易은 아직도 社會主義國家와의 圈內交易이 70% 이상을 占하는 偏重現象을 보이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소련과의 貿易規模가 55%이고 中國과의 그것이 15%를 占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韓國의 對美依存도가 30%이고 對日依存도가 25%나 되는 偏重的 一邊倒와도 無關하지는 않은 것이다. 말하자면 經濟的 특히 對外交易面에서의 北方三角關係나 南方三角關係는 아직도 여전히 存續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韓國의 北方政策은 政治的 交叉承認만이 아니라 이와같은 經濟的인 二元的 3角關係를 打破할 經濟的 交叉協力까지도 導出해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³⁰⁾

南北韓 輸出入商品構成은 <도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다. 北韓은 아직도 1次產品中心의 輸出과 2次產品中心의 輸入構造를 보이고 있다. 韓國은 이와는 反對로 完製品中心의 工產品을 輸出하고 原資材中心의 1次產品을 輸入하고 있다.

註 30) 北方 3角關係란 北韓, 中國, 蘇聯間의 同盟關係를 말하며, 南方 3角關係란 韓·美·日의 긴밀한 糾帶關係를 말하는 것이다.

韓 國		北 韓	
輸出	① 기계 및 운수장비 (169.0, 35.8) ② 雜製品 (153, 32.5) ③ 材料別 製造製品 (101.9, 21.6)	輸入	① 鑛物性燃料 (5.8, 34.4) ② 기계 및 운수장비 (4.6, 27.2) ③ 材料別 製造製品 (2.6, 15.6)
輸入	① 기계 및 운수장비 (138, 34.0) ② 材料別 製造製品 (62.4, 15.4) ③ 鑛物性燃料 (60.2, 14.8) ④ 非食用原材料 (59.0, 14.5) ⑤ 化學物 및 關聯製品 (45.8, 11.3)	輸出	① 材料別製造製品 (4.0, 34.4) ② 非食用原材料 (2.0, 17.5) ③ 雜製品 (1.8, 15.3) ④ 食品 및 食用 산 동물 (1.6, 13.4) ⑤ 기계 및 운수장비 (1.2, 10.4)

資料 : KIET, 南北韓經濟交流促進을 위한 中長期發展計劃(案), p.94 에서 引用

註 : ① 構成비가 10% 초과되는 部門만 발췌

② ()의 數字는 먼저것이 輸出入額(億弗), 나중것이 構成비(%)를 表示함.

그러면서도 南北韓 공히 機械 및 運輸裝備와 材料別製造製品에 있어서는 輸入도 하고 輸出도 하는 樣相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輸出入 商品構成面에서 南北韓間에는 垂直貿易關係에 있으나 그러면서도 工

產品에 있어서는 水平貿易關係도 形成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나. 政策的 與件分析

最近 韓半島 周邊情勢의 變化와 社會主義陣營內의 情勢變化 등은 北韓으로 하여금 改革과 開放을, 그리고 南北韓間의 交流와 協力을 斷行하지 않을 수 없도록 直接 또는 間接的인 心理的 壓迫을 가하고 있다. 韓半島 周邊情勢에 있어서는 美·蘇間의 和解「무드」, 中·蘇間의 正常關係回復, 美·中間의 不和關係造成, 中·蘇의 二元的 韓半島政策, 美·日의 對北韓 宥和政策, 韓·美間의 通商摩擦 등 여러가지 變化가 複合的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中·蘇間의 和解的 接近과 中·蘇의 對韓半島 二元化政策 특히 對韓國 經濟的 接近이나 더 나아가서는 政治的 修交可能性 示唆 등은 北韓을 크게 當惑시키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韓·美間의 通商摩擦로 인한 不和關係와 美·日의 對北韓 和解的 接近은 北韓으로 하여금 兩端間의 決定을 強要하고 있다. 즉 中·蘇의 對韓國 接近과 併行하여 美·日의 對北韓 接近을 받아들여 對西方 開放과 改革을 斷行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孤立化를 甘受하면서 現狀維持政策을 固守하느냐 하는 兩者擇一의인 選擇의 岐路에 直面하게 될 것이다.

東歐에서의 急變하고 있는 情勢는 아시아共産圈에 대한 危脅的인 要因으로 作用하고 있다. 東歐의 改革派 國家에서는 共産黨體制가 崩壞되고 社會黨體制로 전환되고 있으며, 즉 人民共和國體制가 共和國

足과 資本不足 또는 物資不足 등 不足의 矛盾은 深化되고 있으며, 經濟的 落後性의 加速化로 인하여 南北韓間의 經濟的 隔差는 더욱 더 擴大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經濟的 落後性을 克服하려는 現在까지의 모든 施策도 이미 그 限界點에 이르렀다.

資本과 技術을 導入하려는 開放政策에 있어서 借款導入型은 外債의 累增으로, 投資誘致型은 西方世界의 忌避로 이미 그 限界點에 도달하였다. 더우기 自力으로 外貨를 벌어들이기 위한 貿易政策의 基調變化 즉 「先輸入 後輸出」로부터 「先輸出 後輸入」으로의 政策轉換에 따른 交易擴大 및 多邊化施策도 交易可能 品目 및 數量의 制約으로 成果가 不振한 實情에 있다. 그리고 資本不足을 大衆勞力의 強制動員으로 充當하려는 「200日戰鬥」나 「3大革命小組運動」등의 速度戰도 革命的 熱氣의 衰盡이나 期待感의 좌절로 인하여 오히려 逆效果만 誘發시키고 있다.³²⁾

北韓은 內部的 矛盾을 은폐하기 위하여 情報의 遮斷壁을 더욱더 높이 쌓고 있다. 더우기 韓國의 높은 經濟發展相과 東歐의 改革推進相에 대하여 강한 拒否反應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實相은 多角的 「루트」를 통하여 빠른 速度로 하나 하나씩 紹介될 것이고 은밀히 귀에서 귀로 傳播되면서 住民들의 不滿은 高潮되어 갈 것이다. 共產圈社會主義에서는 資本主義와의 體制

註 32) 모든 것이 激變하는 革命初期나 工業化初期에 있어서는 革命的 節次(Revolutionary procedure)에 의하여 움직일 수 있으나 점차 安定化되면서 保守的 節次(Conservative procedure)가 定着化되면 道德的 誘因(Moral Incentive)보다 物質的 誘因(Material Incentive)을 要求하게 된다.

體制로 變身하고 있다. 保守派國家에서는 밑으로부터의 改革要求에 屈服하여 指導者가 交替되면서 改革과 開放의 물결이 일고 있다. 더우기 가장 強硬한 保守派였던 東獨에서 제일 먼저 改革과 開放의 바람이 불었고, 그것도 베를린障壁을 무너뜨리고 全面的인 自由往來를 約束하는 등 가장 革新的인 改革이 豫見되고 있다.

金日成은 같은 分斷狀態에 있는 東獨에서 만큼은 教條的 強硬路線이 絶對적으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왔고, 이를 背景으로 하여 強硬保守路線을 固守하여 왔다.³¹⁾ 그런데 이제 東獨마저 時流에 휩쓸리고 말았으며, 共產(黨)社會主義의 完全한 敗北를 自認하는 現代版 「엑소더스」(Exodus)가 出現하였고, 이로써 西獨에 대한 東獨의 屈服이라는 形式의 統獨 可能性마저 言及되기에 이르렀다. 더우기 東獨의 崩壞를 소련은 傍觀만 하고 있으며, 東歐에서의 改革의 「도미노」現象에 대하여 束手無策인 상태에 놓여 있다. 소련의 이러한 態度가 北韓에서의 內部蜂起의 可能性을, 즉 改革派의 勢力擴張을 부추길런지도 모른다. 이와같이 北韓은 外部로부터 直接 또는 間接으로 政策轉換에 대한 選擇을 강요하는 壓力을 받고 있고, 그것도 改革과 開放을 하는 쪽으로의 壓力을 共產圈으로부터 강하게 받고 있다.

그리고 北韓의 內部的 現與件도 무엇인가의 變化가 있지 않으면 안될 危機局面으로 접어들고 있다. 軍事費負擔의 加重으로 人力不

註 31) 分斷國中 中國은 改革路線을 擇하였고 東獨은 保守路線을 強力히 固守하여 왔으며, 이것은 金日成이 保守強硬路線을 固執하는 구실로 되어 왔던 것이다.

競爭에서의 敗北를 自認하고 점차 「막스·레닌」思想을 退色시키고 있다.³³⁾ 이러한 現象을 北韓의 一部指導階層도 이미 熟知하고 있을 것이며 점차 主體思想의 時代的 落後性과 逆行性 또는 虛構性까지도 認知하게 될 것이다.

北韓의 相互協力에 대한 基本立場은 그 必要性을 認識하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體制의 優位性을 誇示하려는 政治的 宣傳目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北韓은 계속해서 實利보다는 名分을 앞세우고 있으며, 交流와 協力을 提議하면서도 對南赤化野慾을 버리지 않는 두 얼굴을 하고 있으며, 또한 全部 아니면 全無라는 式의, 段階化보다는 全面的인 同時併行的 推進이라는 實現不可한 主張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러한 政治宣傳的인 一方的 支援型的 協力を 提案하는 態度를 南北韓 모두가 從前까지는 公同적으로 갖고 있었다. 北韓의 經濟力이 優勢했던 1960年代에는 北韓의 攻勢的인 提議가 더 많았고, 韓國의 經濟力이 優勢해진 1970年代에는 韓國의 攻勢的인 提案이 더 많았다.

北韓의 提案內容은 大略 다음과 같다.³⁴⁾ ① 經濟, 文化, 通行 및 書信交流(1954.4.27) ② 政治·經濟·文化的 連繫, 物資交流, 사람들의 往來 및 通信交換(1956.4.28) ③ 非政治分野인 經濟, 文化, 科學, 藝術, 體育의 交流와 經濟發展을 위한 常設委員會 設置(1959.10.26) ④ 經濟, 文化의 發展을 統一的으로 調節하기 위한 南北聯

註 33) 共產圈社會主義가 M-L主義를 포기했는가 라는 問題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 Topic이다. 그러나 退色하고 있는 것만은 分明하다.

34) 林陽澤, 「前揭書」, pp.205~209.

邦制와 物資交易 및 經濟建設의 協調를 위한 經濟委員會 組織
(1960.8.15) ⑤ 南韓에서의 工場改革과 物資援助 및 南韓의 失業者 救濟(1964.3.27) ⑥ 南韓이 聯邦制 受諾이 困難하다면 政治問題와는 關係없는 經濟的 交流와 協調로부터 시작하여 破壞된 南韓 經濟를 復舊하여 民族共同의 繁榮促進(1971.4.12) ⑦ 北韓의 地下資源과 重工業, 南韓의 輕工業과 農業의 綜合的인 經濟協力(1972.4.27) ⑧ 地下資源의 共同開發과 共同漁獲(72.7.4 共同宣布 이후) 그리고 中國이 改革과 開放政策을 實施한 이후에 와서 ⑨ 南北間 經濟, 文化, 保健 등 多方面的 合作(1979.11.9) ⑩ 高麗聯邦 10 大政綱中 第3項에서 經濟合作과 交流實施 및 民族經濟의 自立的 發展保障(1980.10. 6次勞動黨大會) 등이 提案되었다.

韓國의 提議內容은 大略 다음과 같다. ① 南北韓間의 善意的 競爭(1970.8.15) ② 經濟人, 物資交流 및 特定部門의 合同開發과 商社의 交換 및 常駐와 商品交換展示會 開催(1973.3.14) ③ 平和統一의 3大基本原則으로서 平和定着, 相互交流協定 및 南北韓 自由選舉(1974.8.15) ④ 北韓에 대한 食糧援助 用意(1977.1.12) ⑤ 南北韓間의 貿易開始와 資本, 技術協力を 추진하고, 民間經濟界 代表로 構成되는 協議機構의 構成과 關係 閣僚會議 設置(1978.6.23) 그리고 1980年代에 들어와서는 ⑥ 南北經濟會談 提議(1984.10.12) 와 第1次(1984.11.15) 經濟會談으로부터 第5次(1985.11.20) 까지 實施되었고, ⑦ 1988.7.7 大統領의 南北韓交易을 民族內去來로 간주한다는 特別宣言이 있었고 이어서 1988.10.7 副總理의 民間商社의 北韓과 交易許容, 關稅免除, 經濟人 相互訪問 및 北韓船舶의 入港開港 등 政府次元에서의 北韓에 대한 一方的 措置가 發表되었다.

이와같이 60年代와 70年代에 있어서는 兩側이 모두 政治宣傳의 이고 體制優位性을 強調하고, 一方的 支援이라는 實現不可한 提議만 있었다. 즉 모든 提案이 經濟力이 優勢한 쪽의 政治的 「말장난」에 不過한 것이었다. 그러나 1980年代에 들어와서는 經濟會談까지 開催되었다. 그러면서 南北韓間의 經濟交流 및 協力推進과 南北經濟協力 共同委員會 構成에 관한 原則的인 合意만 이루어졌을 뿐 아직까지도 더 이상의 아무런 進展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韓國側은 7·7 宣言과 10·7 經濟開發措置로서 이제 名分보다는 實利를, 北韓의 孤立化 追求보다는 國際舞臺로의 誘引을, 雙方的 相互措置의 要求보다는 一方的 措置의 斷行 등 보다 積極的인 協力으로 方向을 轉換하였다. 그리고 北韓도 앞으로는 中·蘇로부터의 壓力을 回避하기 위해서도 中國과 같이 經濟的 改革과 開放은 하되 政治的 改革을 하지 않는 方法을 택할런지도 모른다. 北韓의 지금까지의 開放政策은 모두 失敗로 끝나고 말았다. 남아있는 唯一한 突破口는 同民族과의 交流와 協力 뿐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北韓은 對南交流와 協力を 對西方接近을 위한 手段으로 活用하려 한다.

IX. 結 : 交流와 協力 推進方案

南北韓間의 交流와 協力を 위한 前提條件에 있어서 體制收斂化라는 改革과 協力意思表示인 開放은 그 要件을 아직 갖추지 못한 狀態이며, 授受關係인 相互補完性和 一方的 支援을 可能케 할 經濟力의 隔差라는 差等性은 제대로 그 要件을 잘 갖추고 있다. 말하자면 雙方의 客觀的 要件은 具備되어 있으나, 北韓의 主觀的 要件만이 未備한 狀態에 있다. 따라서 南北韓間의 交流와 協力は 韓國側이 主導하는 一方的 支援型이 될 수 밖에 없다. 최근에 周邊情勢나 共產圈情勢 또는 韓半島情勢 등은 계속해서 北韓의 改革과 開放을 強要하는 壓力作用 쪽으로 變化되고 있다. 따라서 豫想보다는 빠르게 北韓의 忌避的 態度가 對南協力の 方向으로 轉換될런지도 모른다. 그리고 情勢變化는 이러한 可能性을 더욱더 높이는 方向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展望되고 있다.

北韓은 同民族이지만 異民族 못지않게 思想的으로 異質化되어 있다. 그리고 모든 面에서 韓國과는 反對되는 概念의 思考方式을 갖고 있다. 즉 段階化보다는 同時多發的 併行方法만을 固執하거나 經濟協力보다는 政治協商을 優先視하거나 또는 對南協力を 對西方接近의 手段으로 利用하려는 등의 태도가 그것이다. 오늘날 南北韓間의 經濟力 隔差는 계속 擴大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異質化의 中核이며 統一에의 最大 障礙要因인 것이다. 그러므로 交流와 協力を 통하여 北韓의 經濟發展을 支援하고 生活水準을 向上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支援은 南侵赤化의 力量을 增大시키는 直接的인 動因이 될 수도 있다. 더우기 北韓은 對南協商과 協力を 하

면서도 對南赤化工作을 또는 經濟難克服 次元과 混亂造成 工作次元의 二重的인 協商目的을 동시에 表出하는 表裏不同의 兩面性을 갖고 있다.³⁵⁾ 이러한 二律背反的인 原理와 二重性 때문에 南北韓協力은 무엇보다도 큰 危險이며 忍耐와 勇氣를 必要로 하고 있다.

北韓이 對南協力の 眞意를 갖고 積極的으로 參與한다 하더라도 商品去來, 人的往來 및 資本과 技術交流 등에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특히 北韓은 商品이나 人的交流보다는 投資를 크게 選好하고 있다. 왜냐하면 韓國의 높은 發展相과 生活相을 反映해 주는 優秀한 消費商品의 紹介가 北韓 住民들의 虛脫感과 反政府 輿論을 形成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投資라는 協力方式을 택한다 하더라도 管理制度上의 硬直性, 投資收益性의 不確實性, 技術人力の 不足, 社會間接資本의 不備, 部品 및 原資材調達の 困難 그리고 市場狹小 등 主觀的이거나 客觀的인 投資環境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다.

南北韓 交流와 協力을 위해서 가장 重要한 基本的 要件은 첫째 體制優越性을 誇示하려는 體制論爭이나 體制干涉을 止揚하고, 同族間의 友好的 接近으로서의 政治性이 排除된 經濟協力이 되어야 하며, 둘째 이를 立證하는 形式의 하나로써 獨逸에서와 같은 政治當事者間에 締結되는 基本協定과 이를 具體的으로 施行하기 위한 施行協定이 마련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現時點에서는 現實的으로 不可能하다. 따라서 우선 다음과 같은 兩側의 基本姿勢가 먼저 具

註 35) 共產主義者는 힘이 강할 때는 싸우고 힘이 약해 不利해지면 協商하는, 즉 fighting & negotiating 또는 negotiating & fighting하는 兩面性을 항상 갖고 있다.

備되어야 할 것이다.

北韓에서는 主體思想보다는 對外協力을, 軍備增強보다는 經濟發展을, 重工業優先보다는 輕工業重視를, 그리고 集中化보다는 分權化를 追求하는 改革과 開放에 대한 政策轉換의 姿勢가 갖추어져야 한다. 이러한 基盤위에서 國際的 「테러」行爲나 對南赤化侵透策動 등을 中斷해야 한다. 韓國에서는 可及的 北韓의 自尊心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그들의 底意를 直視하고 讓步를 통한 一方的 支援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支援에 따른 北韓의 經濟發展이 우리에게 주는 어떠한 危險도 감당할 覺悟를 하면서 短期的인 經濟的 損失을 통한 長期的인 政治的 利益 즉 民族의 同質感 回復을 忍耐性있게 追求해 나가야 한다.

北韓의 姿勢轉換을 促求하면서 우리의 姿勢를 定立할 수 있는 要諦는 다음과 같은 多元的 指向性을 追求하는 것이다.³⁶⁾

첫째, 改革과 開放 指向性(Reform & open-oriented) : 北韓으로 하여금 外部世界와의 遮斷의 壁을 허물고 相互協力關係를 가질 수 있도록 中蘇共產圈, 美日西方圈 그리고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NICs 圈 등과 有機的인 協調體制를 維持하면서 對北韓接近攻勢를 迂廻的으로 또는 持續的으로 強化해 나가야 한다.

둘째, 經濟發展 指向性(Economic Development-oriented) : 北韓의 投資環境與件을 造成하거나 「보틀네크」를 解消하는 등의 投資를 支

註 36) 여기서의 指向性이란 先進工業國의 多國籍企業의 海外進出 動機, 즉 資源, 低賃金 및 市場指向性和 같은 經濟的 收益性이 아니라 統一을 窮極的 目的으로 하는 政治·經濟的 統合性을 重視하는 것이다.

援해 줌으로써 經濟的 落後性을 克服시키고, 經濟的 相互依存性을 深化시키며, 同民族의 信賴性을 回復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民族의 紐帶感을 鼓吹시켜 나가야 한다.

세째, 經濟的 合理化 指向性(Rationality-oriented) : 對北韓協力에 있어서 經濟的 收益性보다는 展示性 效果를 重視하는 政治性的 借款이나 投資形式을 擇해야 한다.³⁷⁾ 그리고 이들 合作企業運營에 있어서는 政治性을 排除하고 合理的 經營을 통하여 成功的 運營을 함으로써 資本主義的 企業原理의 優秀性을 立證시켜 黨政分離 또는 政經分離를 誘導해 나가야 한다.

네째, 消費增進 指向性(Consumption-oriented) : 輕工業을 育成하고 消費財生産을 增加시킴에 있어서 合作 또는 直接投資 그리고 플랜트 借款등으로 적극 支援함은 물론 生必需品中心의 各種 消費財를 政府의 特別支援下에 特惠的 去來를 통하여 提供하여야 한다. 이와같이 이들의 生活水準을 向上시켜 줌으로써 南北韓間의 隔差를 縮小시켜 나가야 한다.

다섯째, 硬資獲得 指向性(Hard-currency-oriented) : 貿易赤字와 外債 累增現象을 輕減시켜 주기 위해서 對外去來의 各種 便宜를 提供하거나 輸出入의 仲介役을 맡거나 또는 外資獲得源 分野에 投資 進出해 줌으로써 對外依存關係를 深化시키고 孤立化에서의 脫皮를 도와주어야 한다.

이러한 多元的 指向性을 實現하기 위한 交流와 協力は 一定한 段

註 37) 政治性 借款이나 投資란 經濟的 損失을 적게 하고 政治的 利得을 크게 할 수 있는 政治目的的 支援性格의 借款이나 投資를 말한다.

階를 거치면서 順次的으로 進行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現象이다.

初期段階인 開拓期에 있어서는 서로 섞이지 않고 獨自性を 維持하는 가운데 間接 또는 直接的인 物資貿易이 中心이 되는 交流부터 시작된다. 이 때에 서로 주고 받는 交易이 이루어지기는 하나 優位에 있는 어느 한 쪽이 非公開裡에 政治的인 授受關係로 資金을 提供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勿論 이러한 經濟的 交流는 非經濟的이고 非政治的인 學術, 文化, 科學 및 體育 등과 더불어 併行되는 경우가 大部分이다.

中期段階인 促進期에 있어서는 經濟的 交流가 促進되면서 經濟的 協力이 本格的으로 着手된다. 주로 섞이면서 和合하는 相補的이고 依存的인 有機的 結合關係가 이루어진다. 「플랜트」借款이나 合作 또는 直接投資 등 產業協力이 主流를 形成한다. 그러나 이 때에는 政治性보다는 經濟性이, 非公開보다는 公開가, 物資交流보다는 資本·技術 및 人力 등 生産要素의 交流가 더 큰 比重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와같이 經濟的 相互依存性이 深化되면 政治的인 本格的 接觸을 통하여 經濟統合이 進行된다.

後期段階인 成熟期에 있어서는 서로가 하나가 되는 同質化 또는 民族經濟의 統合이 着手된다. 社會間接資本의 共同建設과 共同利用이나 地下鑛物資源이나 地上觀光資源 또는 水中水產資源 등의 共同開發投資가 本格化된다. 그리고 自由往來나 自由去來가 實現됨으로써 生活水準의 平準化를 期하게 되며 더 나아가서는 經濟政策의 單一化까지도 이루어지게 된다.

南北韓間에는 이러한 原則論的인 順次的 段階化가 適用될 수 없는 어려운 環境이 가로놓여 있다. 따라서 北韓을 孤立化에서 脫

皮시커 國際舞臺에 끌어들이고, 南北韓間의 對話의 廣場으로 끌어내어 歷史的 時流에 同參하게 할 수 있는 方案이라면 무엇이든지 事案別 (case by case)로 採擇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南北韓이 提案한 內容도 大部分이 이러한 原則論的인 段階化와는 無關하게 政治宣傳의 目的에 따라 卽興的으로 提議되었던 것들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또다시 原點에서부터 始作한다는 뜻에서 서로가 섞이지 않는 物資交流, 서로가 어울리는 資本과 技術投資協力 그리고 서로가 하나가 되는 共同開發事業 등으로 區分해서 各部門間의 均衡的 調和를 이루는 方式을 택하는 것이 賢策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後行者는 先行者보다 同一한 過程을 時間的으로 크게 短縮시킬 수 있고, 또한 逆行的으로 推進함으로써 試行錯誤의 損失을 最小化시킬 수 있는 利點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中國과 蘇聯은 開放의 意思를 分明히 밝히고 있다. 中國은 實用主義路線에 立脚한 合營法制定(1979)과 經濟特區 및 開放區 등의 指定으로 全海岸線 都市에 대한 廣域開發을 實施하고 있다. 소련은 平和共存路線에 따라 合營法(1987)을 制定하였고, 몇개의 經濟特區(1989)를 指定하였으며, 「시베리아」資源에 대한 公開的 開放을 公言하고 있다. 東歐의 改革派國家들도 1970年代에 合作法에 의한 開放을 斷行하였고, 政治的 改革이나 또는 對韓國 貿易事務所 開設이나 正式修交 등으로 開放의 意思를 實現시켰으며, 東獨도 뒤늦게 「베를린」障壁의 撤去나 自由往來의 約束 등으로 이를 代身하고 있다.

그러나 北韓에 있어서는 政治改革은 聖域化되어 있고, 經濟改革은 初步的인 內的 同質變化에 그치고 있고, 開放政策은 實効性없는 合

營法制定(1984)에만 의존하고 있다. 자본도 不足하고, 技術水準도 낮으며, 市場도 狹小하고, 資源도 貧弱한 貧國小國經濟이면서도 經濟特區도 設置하지 않고, 南北間 離散家族 再會도 不許하며, 美·日의 微笑的 宥和政策에도 微溫的이며, 觀光客을 誘致하되 철저히 統制된 開放만을 하고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重要的 것은 北韓의 改革과 開放을 또는 對南協力を 確認하거나 强要할 수 있는 時急한 交流와 協力부터 着手하는 것이다.

北韓의 開放과 協力意思를 確認할 수 있는 協力方案은 다음 두 가지 方法이다.

첫째, 韓國內에 中國, 소련 또는 北韓 등 對共產圈 經濟特區를 우리가 먼저 設置指定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이들 共產國家의 資本과 技術을 誘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一種의 自由貿易地域과 같은 것으로서 商品과 각종 「플랜트」를 展示하는 常設展示場의 集會所 성격을 띠는 곳이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이곳이 곧 對共產圈進出의 母體가 되며, 共產圈과의 交流와 協力の 中樞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特區設置는 北韓으로 하여금 對自由陣營 經濟特區의 設置를 强要하는 迂廻的 攻略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둘째, 南北韓이 合同으로 滿洲經濟圈이나 「시베리아」經濟圈에 進出하거나 또는 中國이나 소련과 合作하거나 美國이나 日本과 合作하여 北韓에 進出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南北韓이 合同으로 周邊 4 強國과 韓半島안에서나 또는 밖에서 經濟的 合作投資事業을 展開하여 直接·間接으로 北韓의 經濟發展을 支援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亞太經濟協力機構나 東北亞經濟協力體에 北韓도 함께 參與시킴으로써 그들의 位相을 格上시키는 役割도 必要하다. 이것은 곧

北韓으로 하여금 地域協力과 地域安定에 一翼을 擔當한다는 參與意識을 鼓吹시키는 攻略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北韓을 對南協力 쪽으로 끌어들이 수 있는 方案은 各分野別로 時急한 優先順位에 따라 또는 바람직한 方向으로의 進取의 方法을 推進해 나가는 것이다. 同民族異體制間의 交流와 協力에 있어서 지금까지 學論된 方案이나 또는 獨逸에 있어서 活用된 方案을 大別하면 ① 物資交流, ② 資本과 技術協力 즉 産業協力, ③ 外貨獲得支援協力, ④ 人的交流, ⑤ 資源共同開發投資, ⑥ 下部構造의 共同建設 등 6個分野이다.

物資交易에 있어서는 間接交易과 直接交易, 無換去來와 有換去來, 赤(黑)字貿易과 均衡貿易 그리고 水平貿易과 垂直貿易 등 여러가지 對照的 現象이 있다. 바람직한 態度는 間接보다는 直接交易이, 無換보다는 有換去來가 더 所望스럽고, 收支差보다는 均衡維持가 要求되나 水平貿易에서는 黑字를, 垂直貿易에서는 赤字를 維持할 必要가 있다. 그리고 交易規模가 豫想外로 北韓의 外換事情으로 인하여 年間 10億弗도 안되는 小規模일 것에 對備하여 「先輸入 後輸出」 또는 「스윙」(Swing)制度和 같은 無利子 信用貸出 등을 통하여 外貨支援을 提供해야 할 것이다. 交易品目 選定에 있어서도 特産品이나 不足 또는 過剩의 物資를 交換하는 相互實利的 商品으로부터 消費生活을 向上시키거나 優越性を 誇示할 수 있는 物資도 段階的으로 提供해 나가야 할 것이다.

産業協力 또는 資本과 技術協力에 있어서는 서로 섞이지 않는 長期信用借款이나 서로 섞이는 合作 또는 直接投資등이 있고, 서로 섞일 수도 있고 섞이지 않을 수도 있는 「플랜트」借款, 部品調達,

委託生産 및 國際下請 등의 方法도 있을 수 있다. 가장 바람직한 方法은 서로 섞이지 않는 分業協力이기는 하나 이것은 技術構造의 相異性이나 製品의 質的 差異 등으로 사실상 期待하기 困難하다. 따라서 資本과 技術의 提供이 隨伴되는 工程間 分業이나 製品差別化 分業 등의 產業協력이 實現 가능한 方法인 것이다. 重工業分野와 輕工業分野에 대한 選擇基準에 있어서는 輕工業에 優先順位가 두어져야 할 것이며, 直接投資와 合作投資에 있어서는 合作投資에 選好도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重工業은 體制的 硬直性を 強化하는 쪽으로, 그리고 輕工業은 生活水準을 向上시키는 쪽으로 影響을 끼칠 것이며, 또한 直接投資보다는 合作投資쪽이 서로 理解하고 協力하는 契機를 더 提供할 수 있기 때문이다.

外貨獲得支援協력에 있어서는 獨逸에서와 같은 東獨貨 強制兌換制가 있고 輸出入業務를 代行해 주거나 각종 用役을 廉價로 提供하는 方法 등이 있을 수 있다. 前者의 方法은 現實적으로 不可하며 南北間의 人的往來가 이루어진 다음에나 舉論될 수 있는 方案이다. 後者는 物資交流나 產業協力 등과 더불어 仲介貿易이나 委託加工貿易으로 連結될 수 있는 3元的 協力 方案의 性格을 띠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上述한 多元的 諸指向性を 모두 充足시킬 수 있는 最善의 方案이며 동시에 同民族間의 共同努力으로 第3國人에 對應하는 環境과 能力을 造成하는 좋은 試金石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人的交流에 있어서는 技術者, 實業人, 學者, 藝術人 및 體育人 등의 專門高級 人力的 往來로부터 離散家族이나 失鄉民의 故鄉訪問 그리고 觀光團이나 其他 團體 등의 相互往來가 있을 수 있다. 專

門人力の 交流는 相互接觸의 擴大와 協力の 增進을 위해서는 不可避한 現象이고, 離散家族 및 失鄉民 또는 人道主義的 見地에서 不許하기 어렵고, 觀光團 역시 外貨獲得이라는 점을 勘案한다면 外面 할 수만은 없는 것이다. 物資交流보다 人的交流가 情報의 遮斷壁을 허무는데에 더 有効할 것이며, 改革과 開放을 促進하고 加速化 시킴에 있어서 더 卽効的이다. 그러기 때문에 北韓은 統制된 開放을 계속 持續시키면서 極小數의 制限된 人員以外에는 相互往來를 可及的 不許하려고 할 것이다.

資源의 共同開發事業에 있어서는 地下鑛物資源과 地上觀光資源 및 水中水産資源에 대한 共同投資가 있을 수 있다. 水産資源에 있어서는 오히려 物資交流가 더 바람직하기 때문에 時急한 分野가 될 수 없을 것이다. 觀光資源의 開發은 특히 金剛山 共同開發問題는 이미 提議되었고 또 合意된 바 있으며, 觀光은 外部世界에 대한 開放이며 동시에 外貨獲得에 있어서 가장 쉽고 稼得率이 높은 것이기 때문에, 가장 所望스러운 分野이다. 地下鑛物資源開發도 主要한 外貨獲得源中에 하나이며, 우리의 原資材 供給源이 되기 때문에 相互利益을 保證해 줄 수 있는 有望한 分野이다. 그러나 資源의 共同開發事業은 懷妊期間이 길고 莫大한 資本이 所要되기 때문에 政治的 展示效果가 큰 單一業種으로 局限시켜 集中的으로 攻略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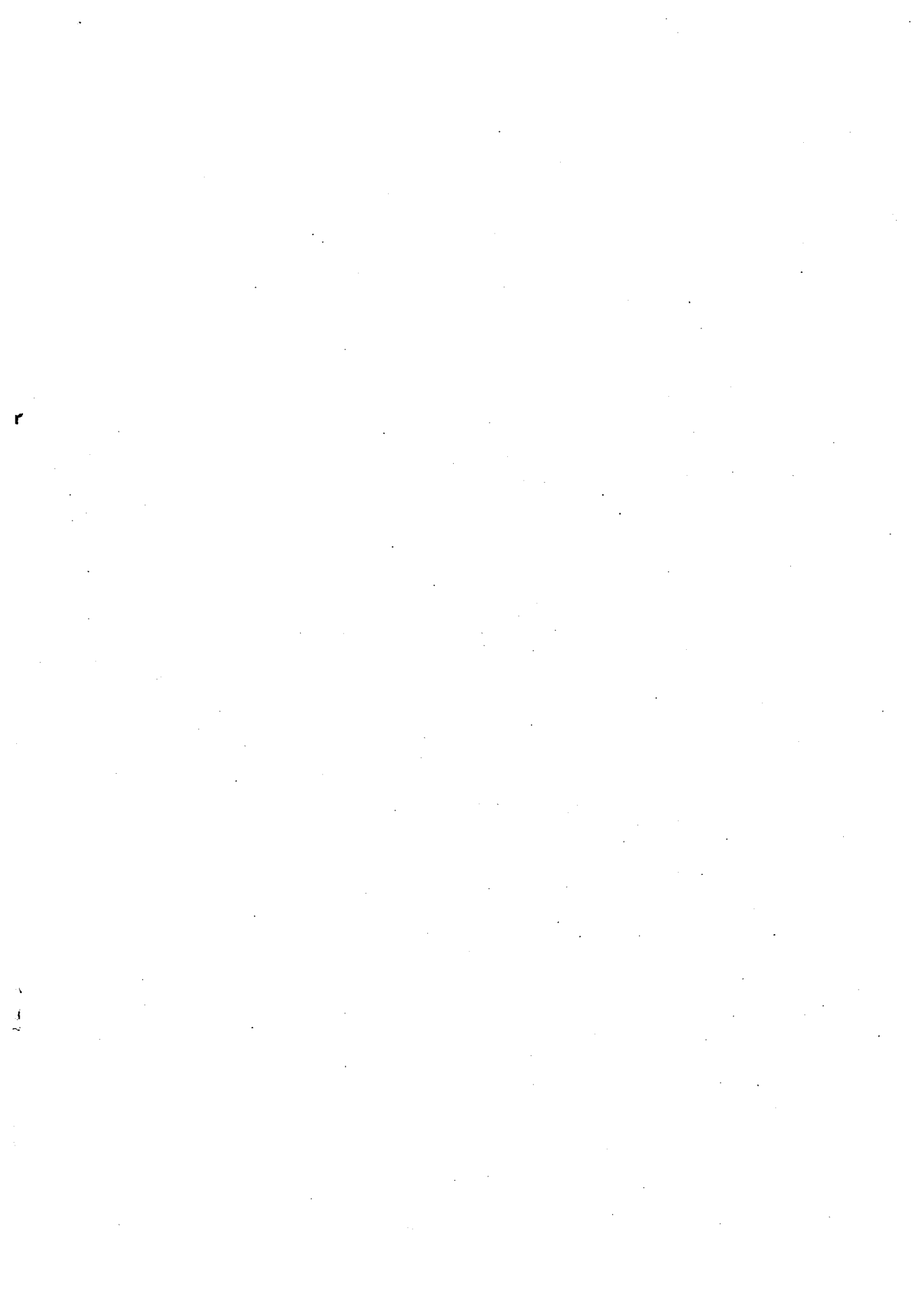
社會間接資本 즉 下部構造에 있어서는 共同建設 뿐만 아니라 共同利用問題도 더불어 考慮되어야 한다. 電力, 公路, 鐵道 및 通信 등의 社會間接資本은 人體에 있어서의 神經이나 血脈과 같은 것이다. 下部構造의 統合은 經濟的 統合을 前提로 하는 가장 큰 象

微的인 意味를 갖는다. 따라서 비록 莫大한 資金이 所要된다 하
더라도 北韓內의 가장 重要한 그리고 京釜高速道路로 連結되는 主
要幹線 高速道路를 우리側 負擔으로의 建設提議가 있음직도 하다.

參 考 文 獻

- 林陽澤, “南北韓產業 및 技術協力の 推進方案에 관한 研究”, 韓國經濟研究院, 1989.4.
- 產業研究院, “南北韓經濟交流促進을 위한 中長期發展計劃(案)”, 1989.4.
- 李 浩, “北韓의 經濟開放化 展望과 南北經濟交流의 評價”, 產業研究院, 1989.4.
- 延河清, “北韓의 經濟政策과 運用”, 韓國開發研究院, 1986.
- 金達中·스칼라피노共編, “아시아 共產主義의 持續과 變化”, 法文社, 1989.3.
- 金達中編, “東歐·蘇聯關係와 改革政治”, 法文社, 1988.3.
- 辛昇哲, “社會主義 國家에서의 經濟改革”, 漢陽大 中蘇研究, 1982.
- “ , “中共의 經濟改革과 新經濟政策路線”, 漢陽大 中蘇研究, 1984.
- “ , “東西間 體制收斂化와 經濟交流 및 協力”, 漢陽大 中蘇研究, 1985.
- “ , “소련의 經濟發展과 經濟改革間의 相關性”, 漢陽大 中蘇研究, 1987.
- “ , “比較經濟體制面에서 본 制度變動의 推移”, 漢陽大 經濟研究, 1988.5.
- “ , “太平洋時代와 黃海經濟協力圈構想”, 漢陽大 經濟研究, 1988.11.
- 김광수, “北韓의 開放化政策과 經濟開發”, 共產圈研究協議會 年次學術大會 資料集, 1989.

- 鄭暢泳, “北韓의 經濟開放與件과 展望”, 國土統一院 主催「南北韓經濟交流協力에 관한 國際심포지움」資料集, 1989.8.
- 李泰旭, “北韓의 經濟開放政策과 그 展望”, 上同
- 이희상, “北韓의 經濟開放努力과 展望”, 上同
- 玉城素, “北韓經濟計劃의 실적과 문제점”, 상동
- 朴聖祚, “東西獨間的 交流 및 協力形態와 南北韓交流에 부는 示唆點”, 상동
- 小牧輝夫, “北朝鮮의 經濟建設狀況”, 상동
- Oh Kwan-Chi, “Chuche vs Economic Interdependence : Impact of Socialist Economic Reforms on North Korea”, 제 4 차 한미북한회의 자료집, 1989.8.
- John Merrill, “North Korea's Economy today : The Limits of Juche”, 상동
- Georgi D. Toloraya, “The Directions of Economic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國土統一院 主催 “南北韓 經濟交流協力에 관한 國際심포지움” 자료집, 1989.8.
- 國土統一院, “南北韓 經濟交流協力 實踐方案”, 1984.
- “ , “北韓經濟統計集”, 1986.
- “ , “北韓經濟概觀”, 1988.
- “ , “岐路에 선 北韓經濟”, 1988.
- “ , “1987年度 北韓經濟 綜合評價”, 1988.8
- “ , “北韓經濟와 貿易展望—87年회고와 88年展望”, 1989.9.
- “ , “北韓輸出商品의 對外競爭力分析과 展望”, 1988.11.
- “ , “北韓의 合營法과 經濟開放化 展望”, 1984.10.



東北亞 經濟圈과 南北韓 經濟協力에 관한 研究

1989년 12월 24일 인쇄

1989년 12월 24일 발행

발행처 국 토 통 일 원

 조사연구실(제3연구관실)

전 화 720-2426,2143

연구책임 안 석 교 , 신 승 철

인 쇄 처 웃고문화사(☎ 267-3956)

국통조 89-12-174 (비매품)